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7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7

지은이 : 경북연구회

옮긴이 : 최범순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박승주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외래교수)

윤경애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려옥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정찬휘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발행처 : 경상북도 행정지원과

발행일 : 2025년 12월 22일

ISBN : 979-11-92320-54-0

## 일러두기

- 본 자료는 일본 관점의 표현과 용어가 많지만 1차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원문의 표현과 용어는 그대로 옮겼다. 이에 해당 표현과 용어 등은 옮긴이의 입장이나 역사 인식과 별개임을 밝힌다. 단 ‘내지, 내지인, 일본해, 일청전쟁, 일러전쟁, 이조시대’ 등은 ‘일본 본토, 일본인, 동해,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시대’ 등으로 바꾸어 옮겼다.
- 본 자료가 1차 자료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사진과 이미지 등도 최대한 빠짐없이 옮겼다.
- 일본의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설명이 필요한 어휘 등은 각주를 달아 설명했다.
- 원자료의 연도 표기는 모두 일본 연호 표기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번역 과정에서 서기로 변환해 옮겼다.
- 일본인 인명은 원자료에 성(姓)만 표기된 경우라도 확인이 가능한 인명은 이름을 추가해서 옮겼다. 일본인 이름 발음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이름 한자의 음독 발음으로 옮겼다.
- 지명은 한반도 일본인 거주 구역의 일본식 지명이라 하더라도 한자의 한글 발음으로 옮겼고, 일본의 지명은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했다.
- 각종 단위는 원자료 단위를 그대로 옮기면서 필요한 경우 설명 각주를 달았다. 단, 거리 단위 ‘리(里)’는 일본과 한국의 ‘리’ 단위 차이로 인한 오독을 막기 위해 한국 ‘리’ 단위로 변환해서 옮겼고, 원자료 화폐 단위 ‘圓’은 ‘원’으로 번역했다.

THE KEIHOKU

北慶

號三第年二第

號月三

會究研北慶

大正十二年一月十八日第三種郵便物認可  
大正十二年三月五日發行(每月一回五日發行)  
慶北第一年第三號

新調するなら  
最新スタイル

研究と改良と  
熱心と親切と  
約束の實行と

華客本位の  
大邱府十二間道路

旭洋服店

電話八〇三番  
發信電器アサ

### 아사히 양복점

대구부 12간 도로  
전화 803번  
발신 전신약호 (ア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복을 새로 맞춘다면 최신 스타일로.  
연구와 개량과 노력과 친절과 약속 실행을 가게  
의 방침으로 삼아 단골손님 본위

木村時計店

營業課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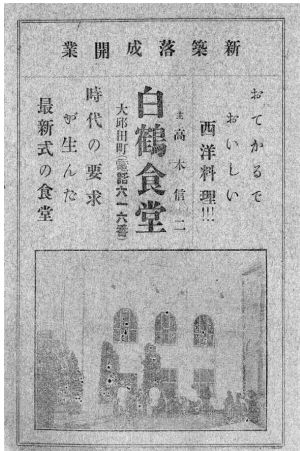
各種指輪  
眼鏡純金裝  
計類屬  
各國時表  
雙眼金

木村時計店  
大邱府上町道廳側  
電話五五五番  
番替號九五三番

### 기무라 시계점

대구부 상정 도청 옆  
전화 555번  
대체 계좌 경성 9532번

영업 품목  
각국 시계, 쌍안경 종류, 귀금속 /  
각종 안경, 순금 반지, 장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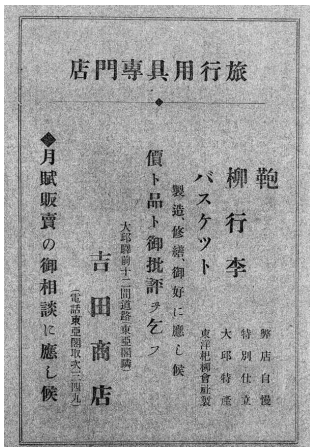


### 하쿠쓰루(白鶴) 식당

주인 다카키 신지(高木信二)  
대구 전정(田町)(전화 616번)  
근하신년

싸고 맛있는 서양요리!!  
시대의 요구가 낳은 최신식 식당

### 요시다 상점



여행용 도구 전문점  
가방, 버들고리(柳行李)<sup>1)</sup>, 바스켓(basket)/바구니

우리 가게 자랑  
특별 맞춤  
대구 특산  
동양기류회사(東洋杞柳會社) 제작

제조, 수선을 원하시면 응합니다.  
가치, 상품, 그리고 비평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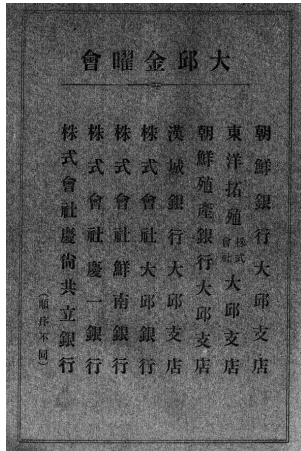
대구역 앞 12간 도로(동아각(東亞閣) 옆)  
(전화 : 동아각 층개 349)  
월부 판매 필요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影寫の氏郎三利川 長々會本前 事知道北尙慶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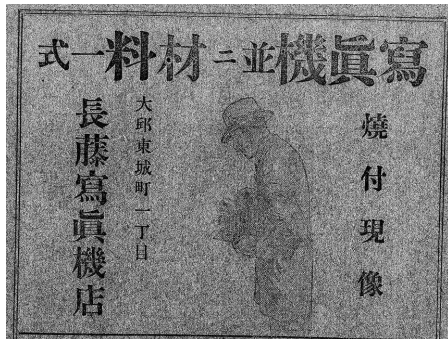
전 경상북도지사 전 본회 회장 후지카와 리사부로 최근 모습

1) 버드나무로 만든 상자 모양의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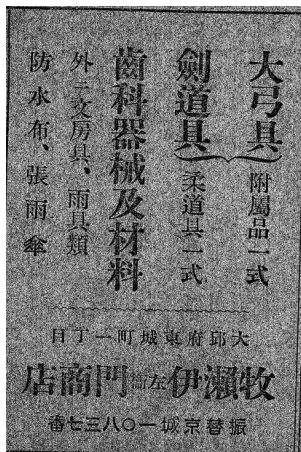
### 대구 금요일

조선은행 대구지점  
 동양척식주식회사 대구지점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한성은행 대구지점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식회사 선남은행  
 주식회사 경일은행  
 주식회사 경상공립은행 (순서 부동)



### 나가토 사진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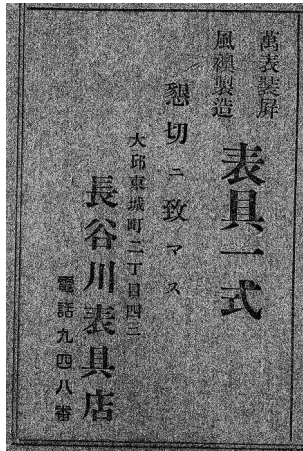
대구 동성정 1정목  
 사진기 및 재료 일습  
 소부(燒付) 현상<sup>2)</sup>



### 마키세 이자에몬 상점

대체계좌 경성 37081번  
 활, 검도, 유도 장비 일습  
 치과 기계 및 재료  
 그 외 문방구, 우비류  
 방수포, 종이우산

2) 인화지에 원판 음화(陰畫)를 덧대어 빛을 비추어 명암이 실제와 같이 보이는 사진인 양화(陽畫)를 말한다.



### 하세가와 표구점

대구 동성정 2정목 43

전화 948번

병풍 표장(表裝)

방풍 맹장지

표구 일습

친절하고 정중하게 해드립니다

## 경북자동차주식회사(慶北自動車株式會社)

大邱驛前 慶北自動車株式會社 電話 三六八番	大邱驛前 安東醴泉方面行自動車ハ 大邱驛前 安東方面ヨリ大邱行	
	安東行 前(八) 後(二) 安東發 前(八) 後(二) 安東行 前(三) 後(七) 安東發 前(三) 後(七) 安東行 前(六) 後(四) 安東發 前(六) 後(四) 安東行 前(九) 後(一) 安東發 前(九) 後(一)	安東行 前(一) 後(九) 安東發 前(一) 後(九) 安東行 前(四) 後(六) 安東發 前(四) 後(六) 安東行 前(七) 後(三) 安東發 前(七) 後(三) 安東行 前(二) 後(八) 安東發 前(二) 後(八)
金泉驛前 慶北自動車株式會社 電話 一四八九番	大邱驛前 安東醴泉方面行自動車ハ 大邱驛前 安東方面ヨリ大邱行	
	安東行 前(八) 後(二) 安東發 前(八) 後(二) 安東行 前(三) 後(七) 安東發 前(三) 後(七) 安東行 前(六) 後(四) 安東發 前(六) 後(四) 安東行 前(九) 後(一) 安東發 前(九) 後(一)	安東行 前(一) 後(九) 安東發 前(一) 後(九) 安東行 前(四) 後(六) 安東發 前(四) 後(六) 安東行 前(七) 後(三) 安東發 前(七) 後(三) 安東行 前(二) 後(八) 安東發 前(二) 後(八)
轉運時隨夜晝切貸内市 大邱金		

대구에서 안동, 예천 방면행 자동차는 대구역 앞 경북자동차주식회사  
전화 368번

김천에서 춘양, 문경 방면 자동차는 김천역 앞 경북자동차주식회사  
전화 84번, 189번

### 대구-안동

대구 출발 안동 방면			안동 방면에서 대구행		
행선지	대구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안동행	오전 8:00	오후 1:00	안동발	오전 8:00	오후 1:00
안동행	오전 10:00	오후 3:30	안동발	오전 10:00	오후 3:30
안동행	오후 1:00	오후 6:00	안동발	오후 1:00	오후 6:00
의성행	오후 3:00	오후 6:15	의성발	오전 8:00	오전 11:15

### 안동-예천

안동 출발 예천행			예천 출발 안동행		
행선지	안동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예천 출발	도착 시각
예천행	오후 1:00	오후 2:20	안동행	오전 10:00	오전 11:30

### 김천-춘양(春陽)<sup>3)</sup>

김천에서 춘양 방면			춘양 방면에서 김천행		
행선지	김천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춘양행	오전 8:00	오후 3:40	춘양 출발	오전 7:30	오후 3:10
예천행	오전 8:00	오후 12:20	예천 출발	오전 8:00	오후 12:30
영주행	오전 9:30	오후 3:40	영주 출발	오전 7:30	오후 1:10
예천행	오후 2:20	오후 6:40	예천 출발	오후 2:30	오후 6:30
상주행	오후 2:20	오후 4:00	상주 출발	오전 8:00	오전 9:40
상주행	오후 4:20	오후 6:00	상주 출발	오후 5:30	오후 7:10

### 김천-문경

김천에서 문경행			문경에서 김천행		
행선지	김천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문경행	오후 2:20	오후 6:20	문경 출발	오후 7:30	정오 12:00

### 김천-선산

김천에서 선산행			선산에서 김천행		
행선지	김천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선산 출발	오후 2:30	오후 4:00	선산 출발	오전 8:00	오전 9:00

### 구미-선산

구미에서 선산행			선산에서 구미행		
행선지	구미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선산행	오전 9:00	오전 9:50	선산 출발	오전 11:00	오전 11:50
선산행	오후 4:00	오후 4:50 <sup>4)</sup>	선산 출발	오후 5:00	오후 5:50

3) 경상북도 봉화 지역의 옛 지명.

4) 원자료에는 도착 시각이 오후 4:00로 되어 있다. 이는 출발 시각과 동일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오전의 동일 구간 출발 도착 시각을 참고해서 오후 4:50으로 정정해서 옮겼다.



### 주식회사 쿠마히라 상점

동경 다케우치 제조 금고  
경성 본점

불길과 잣더미 속에서도, 귀 가문의 모든 재산은 완전히 보관되었으며, 그 기쁨과 찬사는 다케우치 금고에 모인다.

실질을 중시하는 금고의 시조

쿠마히라의 카탈로그 : 소방펌프, 서양식 가구, 사무용품, 주문하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 원문은 광고-목차-광고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편집 체제상 광고-목차 순으로 재배치하였다.



# □ 목 차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7

- ◆ 권두언 / 1
- ◆ 후지카와 리사부로 회장을 보내며 / 2
- ◆ 조선의 산업(하) / 4
- ◆ 면 행정 감독에 대하여 / 14
- ◆ 조선 잠업 장려를 위해 관리의 분발을 바람 / 19
- ◆ 모르핀 은자隱者 / 25
- ◆ 조선의 단급 소학교 현황 / 39
- ◆ 사과 해충 구제 방법 실적 / 46
- ◆ 수산시험장 개시에 대해 / 59
- ◆ 비서 과장에게 부탁하는 글 / 63
- ◆ 경주와 교재 연구(1) / 66
- ◆ 거지의 생활을 답사하고 / 73
- ◆ 권업과 통신 / 80
- ◆ 휘보 / 84
  - 산업 계획 요강 / 84
  - 대구의 무역 개황 / 97
  - 잠업 장려 계획 / 102
  - 도평의회道評議會 개최 시기 / 102
  - 주임秦任 대우 네 명의 면장 / 103
  - 닥나무 증식 계획 / 106
  - 잠업 기술원 협의회打舍會 / 110

# □ 목 차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7

- 두 면의 징수 실적 / 111
- 청송군 개일동開日洞 진흥회 / 113
- 용기 있는 형사 / 117
- 조선어 시험문제 / 118
- ◆ 군웅할거의 시대(하) / 121
- ◆ 회보 / 142
- ◆ 경북연구회 규약 / 146
- ◆ 해제 / 149

## 권두언

인간의 생존은 진화를 의미한다. 다만 생물로서의 인간은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수염과 머리가 자라고 몸에는 때도 생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수명이 다하면 죽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런 하등동물과 같은 평범한 생존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인생에 무엇보다 자극이 필요하게 된다. 국가라는 존재는 공격과 방어의 역사였다. 지금은 공격과 방어에 지친 나머지 평화를 희구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진보는 자극에 대한 반발의 결과물이다. 인간에게도 자극이 없으면 점점 평범해진다. 바꿔 말하면 퇴화한다. 머리가 벗겨지고 흰머리가 나는 등 외관만 노력과 수고를 겪고 무형, 정신적으로는 그 형체가 점차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나도 늙은이가 된다. 혹은 사람은 스스로 말한다. 도무지 자극이 없으니 틀려먹었다고. 그러나 이는 실로 자신을 업신여기는 변호다. 자극은 단순히 닥쳐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오지 않는다. 자진해서 스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각오하면 어떠한 두메산골에서도 자극이 되는 재료는 많다. 결국 자극은 지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안이하게 있어서는 도시 한 복판에 있어도 자극을 느낄 수 없다. 애벌레, 지렁이도 바늘로 찌르면 꿈쩍인다. 하물며 진화를 생존 요건으로 삼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은가?

## 후지카와 리사부로 회장을 보내며

본 경북연구회 회장 후지카와 리사부로(藤川利三郎) 경상북도지사 각하, 이번에 관직에서 물러나 일본으로 귀국하시지요. 우리 2,300여 명 회원은 석별의 아쉬움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경북연구회가 조직된 지 6개월이고 본지 『경북』이 6회 발간되면서 연구회의 기초도 점차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경북연구회의 설립은 각하의 발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각하의 지도와 유액(誘掖)<sup>5)</sup>에 기댄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각하가 조선에 부임하신 지 1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각하는 서정(庶政)의 개선과 혁신을 위해 관리의 수완이 가장 필요한 때에 항상 중요한 재무(財務) 지위에 계셨습니다. 각하가 전반적인 시설(施設)과 제도 혁신에 진취(盡瘁)<sup>6)</sup>하신 것은 사람들이 널리 아는 바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화폐제도와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식산은행(殖産銀行)의 전신인 각 지역 농공은행(農工銀行)을 설립하는 동시에 지방의 무수한 금융조합 설립을 계획해 노력하신 것은 그 효과가 가장 현저한 부분입니다. 당시 경제 조직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의 상황에서 많은 곤란을 헤쳐 내며 위와 같이 제반 사업을 창시(創始)하고 완성하는 데에 힘쓰신 것은 모두가 감사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지역 경제가 지금과 같이 발전한 것은 그때그때 담당자가 노력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적의 많은 부분은 각하가 그동안 기울인 고심과 진력 덕분입니다.

1917년에 처음 목민관으로서 평안북도에 부임한 이후 경상북

---

5) 이끌어서 도와줌.

6) 몸이 여위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씀.

도에 전임(傳任)해 지금까지 7년 동안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잊은 채 국궁(鞠躬)<sup>7)</sup>하고 진취(盡瘁)하며 하급 관료를 엄하게 감독하고 경상북도를 위해 혼신의 정력을 쏟아 훌륭한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은 우리의 과찬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지역 경제의 불황을 만회하기 위해 힘쓰면서 산업 개발 계획을 기획하고 경상북도 각 지역 유력자와 명사를 망라한 ‘산업자문회(産業諮問會)’를 개최해 식산흥업 100년의 장기 계획을 세우신 것은 도민 전체가 그 노고에 모두 감사하는 바입니다.

각하가 10여 년 동안 관직에 계시며 쏟은 노력의 효과는 위와 같습니다. 각하는 그동안 관직에서 거듭 영전해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국가가 공신을 정중히 대했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고위 고관에 오른 자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은 결백하고 정직한 관리의 전형입니다. 각하는 경상북도를 다스리며 많은 사업을 펼치시고 이제 표연히 영예로운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청렴한 마음입니다. 어찌 항룡유회(亢龍有悔)<sup>8)</sup>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하의 고결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하는 이후에도 앞길이 창창하십니다. 바라건대 건강도 보살피시면서 국가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는 동시에 경북연구회를 오래오래 지도해 주십시오. 난잡한 말로 석별의 뜻을 표하면서 본 경북연구회를 위해 힘써주신 방정(芳情)<sup>9)</sup>에 온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7) 뒷사람이나 위패 앞에서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힘.

8) 끝까지 다 오르고 나면 이윽고 쇠할 수밖에 없는 슬픔의 비유.

9)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대한 높임말.

## 조선의 산업(하)

경북산업자문회(慶北産業諮問會) 강연 요지  
식산국장(殖産局長) 니시무라 야스요시(西村保吉)<sup>10)</sup>

이어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입니다. 조선에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이미 다양하게 논의되기도 했고, 소작 관계 개선은 많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조선에서 농사의 건실한 발전을 꾀할 때 근본 문제로서 논하는 바입니다. 조선의 소작 관계가 다양한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불공평한 이익분배도 방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소작법을 제정해서 소작 관계를 정리하고 지주와 소작인 상호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 소작법 제정은 시기상조이고 오히려 소작인 조합, 지주 조합을 만들어 각자의 입장에서 이익 증진을 꾀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요컨대 현재 시점에서 소작법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주와 소작인이 개별적으로 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양자가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행 상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만 지주와 소작인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상대를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자멸에 이르므로 상호 대립하지 말고 협조·보선(保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즉 공동단체를 조직해 개선을 촉

---

10) 1865-1942. 일본 에히메 현(愛媛縣)에서 태어났다. 1903년에 미야기 현(宮城縣) 사무관을 시작으로 여러 현의 사무관과 부장 등을 역임했고, 1917년에 시마네 현(島根縣) 지사에 취임해 산업 10년 계획 등을 세웠다. 1919년 8월에 조선총독부 식산국장으로 전임한 후 1924년에 사직했다.

진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총독부도 소작법을 제정할 의지가 없고 지주회와 소작인회를 설치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컨대 지주와 소작인이 자신과 상대에게 충실하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해서 상호협력 하에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선총독부도 산업조합령 및 농회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가능한 온건한 방법을 취한 것이고 각종 복잡한 문제를 협력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면한 급무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화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에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작(棉作)입니다. 면작 장려는 1912년 다이쇼(大正) 원년에 제1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6년 계획이고 목적은 약 10만 정보(町步)<sup>11)</sup>의 새로운 면작 경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계획한 시기보다 1년 늦은 1918년에 면작 경지 확장을 대체로 실현했습니다. 제2기 계획은 10년간 10만 정보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총 25만 정보의 면작 경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는 산업상의 필요, 또 하나는 국방상의 필요에 기초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 본토의 방적(紡績)은 현저히 진보해 매년 약 7억만 톤 가까운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만일 갑자기 외교 문제가 파탄 나서 수입이 곧바로 중단된다면 일본 방적업은 궤멸 상태에 빠집니다. 다행히 조선은 면작에 적합하기 때문에 가능한 면작을 장려해 자급(自給)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 유사시에는 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작 가운데 미국 면작은 새로운 작물이어서 지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

11) 1町步는 약 3,000평.

현재 면작도 상당히 발전했지만, 아직 관리가 불충분해서 반(反)<sup>12)</sup> 단위당 생산량이 매우 적습니다. 1억 5천만근은 채취해야 하지만 실제 채취량은 1억만 근 안팎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 단위당 겨우 70~80근(斤)입니다. 외국의 반 단위당 수확량이 300근 내지 500근인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조선의 토지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300근 내외는 확실하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 차이는 토지 선정이 부적절하기 때문이기도 해서 앞으로 적합한 토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배 방법 개량입니다. 정부는 1922년도부터 예산을 배부해 1개 군에 1개소씩 지정 면작지를 설치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면작지보다 대체로 성적이 우수합니다. 평안남도는 부근 면작지의 반 당 수확량이 90근인 것에 비해 지정 면작지는 150근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일반 면작지의 반 당 수확량이 85근인데 지정 면작지는 130근을 수확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주의를 기울이면 반 당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각종 방법을 강구해 생산지의 반 당 수확량을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50근 이상 채취한다면 멋지게 다른 작물에 대항해서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산림 총면적은 1,600만 정보이고 이를 관리상 구별하면 국유림이 600만 정보(町步)가 안 되고, 민유림이 600여만 정보이며, 나머지 400만 정보는 형식상 국유림이지만 앞으로 일정한 방침을 세워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리를 마치면 대략 국유림이 1/3이고 민유림이 2/3가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의 요점은 첫째 국유림 관리와 경영을 통일하는 것, 둘째 민유림 조림을 촉진하는 것, 셋째 황폐한 산야

---

12) 反은 논밭이나 산림의 면적 단위이다. 1反은 약 300평으로 1町步의 1/10이다.

를 복구하는 것, 넷째 불필요한 존치림(存置林)<sup>13)</sup> 처분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유림은 조선총독부 영림창(營林廠)<sup>14)</sup>에서 각각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빨리 통일해야 합니다. 민유림은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것과 개인이 소유하는 산림인데 이 가운데 공유림은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림을 원조할 생각입니다. 황폐한 산야의 복구는 치수 관계도 있어서 방치할 수 없는 당면 사항이므로 1922년부터 향후 30년 기간에 50만 원을 투입해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유림 600만 정보 가운데는 성림지(成林地)가 많은데 기타 민유림은 숲의 모습을 갖춘 성림지가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고 304만 정보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50만 정보는 완전히 민동산입니다. 치수 시설이 시급한 지금 이런 민동산이 밀집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므로 민동산은 신속히 없애야만 합니다. 민유지 47만 정보의 1/2인 23만 5천 정보는 제2기 계획에 포함시켜 30년간 전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의회가 작년 제1기 사업비 1,400만 원을 가결했기 때문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중요한 부분의 정리가 대체로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연고임야(緣故林野)<sup>15)</sup>의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종래와 같은 입회관행(入會慣行)이 있는 지역민의 연고림(緣故林)이고, 또 하나는 특별히 연고가 없는 임야입니다. 이에 연고관계가 깊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나 대여해 처분하게 되는데 연고임야는 법리로 보자면 국가의 소유이지만 기왕의 역사에 따라 이

---

13) 국유임야 가운데 국가의 삼림경영용 재산에 속하는 임야를 말한다.

14) 대한제국 때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특수지역 삼림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15) ‘연고임야’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및 산림조사 사업에 용어로 등장한다. 문맥상 개인이나 지역민과 소유 혹은 관계가 있는 임야로 이해된다.

전부터 지역민이 이곳에 의지해 생활해 온 관행을 고려해 이를 국유림으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민에게 부여(付與)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약 300만 정보는 연고자에게 부여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 사업 경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략 3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림 축적 수단 문제, 둘째 주요목(主要木) 인정, 셋째 이용 상 문제입니다. 산림 축적 증가와 관련해서는 국민도 국가도 가능한 나무 숫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목에 관해서는 제군의 사전 파악을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조선의 산림은 대부분 적송(赤松) 천연림이기 때문에 산의 모습과 달리 삼림의 이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대로 방임하는 정책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목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미룰 수 없는 문제이므로 현재 조사 중입니다. 3~4년 내에는 완료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는 송충이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박멸할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세계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완벽한 구제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송충이는 건조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늘이 있으면 발생이 많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나무를 빼곡하게 심어서 뿌리를 그늘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생한 것을 잡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비용도 들고 상당한 수고가 필요해서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은 저항력 있는 수종을 선택하거나 익충(益蟲)을 퍼뜨리는 방법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것은 붉은 개미입니다. 붉은 개미집이 있는 구역에는 송충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조사해보았더니 붉은 개미 이식은 전설(傳說)로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사할린 벌도 실패했기 때문에 현재 붉은 개미의 번식과 송충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첫째 어획량 증진, 둘째 어획물 이용 증진, 셋째 어민 보호와 개량입니다. 첫째는 바다의 천연 어획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및 인공적인 생산 즉 어로(漁撈)<sup>16)</sup>와 양식(養殖) 문제입니다. 또한 종래 조선의 어업 방법은 바다의 특질에 맞춘 것이 아니어서 다가오는 물고기를 잡는 연안어업으로 물고기를 쫓아 이동하는 원해(遠海) 어업이 아닙니다. 장래에는 물고기를 근해로 모는 근해 어업을 장려하는 동시에 어선과 어구 개선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을 견딜 방법 및 제조 방법, 즉 낱생선 이외의 것으로 가공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중국 무역으로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의 해산물 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크게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생선을 먹는 중국인의 기호에 맞춘다면 중국 무역의 전도는 그야말로 광대무변합니다. 중국은 해안선이 짧습니다. 이처럼 해안선이 짧은 생선 섭취 민족 앞에 긴 해안선을 가진 일본이 가로놓여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수산 무역에서 가장 첩경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중국을 향한 제품 개량과 증식을 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조선에는 중국에서 매년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조선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중국 수출을 활성화해서 중국과의 거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점에서 수산업 발달은 매우 긴급합니다. 다음으로 조선 어촌의 취약한 부분입니다만, 어업 발전의 최우선 근본책은 어촌 개량과 충실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금융의 편리가 현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어민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1923년도부터 해당 예산을 편성해 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

---

16) 물고기나 수산물 따위를 잡거나 거두어들이는 일.

습니다.

공업에 관해서는 어떤 종류의 공업을 장려할지가 선결 과제입니다. 공업의 종류는 첫째 조선에서 종래에 생산하면서 발달할 여지가 충분하며 간이 가내공업이나 판로가 확실한 것에서 적당한 것을 선정해 장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세한 것은 생략합니다. 장래에 공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업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는 조선의 각 공업 현황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대규모 공업은 동일 원칙으로 논할 수 없어서 개별 문제로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업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문제는 동력(動力)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업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광물은 금, 석탄, 철, 흑연의 4대 광물입니다. 이 가운데 철과 흑연은 차치하고 석탄과 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금 생산액은 많을 때는 1,500만 원이고 적을 때는 5~600만 원 이상입니다. 생산한 금의 품질은 일본 본토와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지만 금 정제 방법이 매우 미숙합니다. 대개 광산 경영자(山元)가 정련 기술을 모르고 발전된 기계 동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함유량이 많은 금산이 버려져 있습니다.

석탄의 경우 현재 조선의 석탄 소비량은 약 100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20만 톤은 조선에서 산출되지만 나머지는 푸순 탄(撫順炭)과 규슈 탄(九州炭)입니다. 석탄 부족은 분명 생산사업 및 가정을 위협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한 가지입니다. 조선 공업의 안전한 발달을 꾀하려면 석탄의 자급자족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당면한 급무입니다. 특히 조선에서는 공업을 일으키려고 해도 자본이 적고 조선인은 공업 상 훈련도 받지 않아서 임금은 높는데

능력은 낮고 금리는 높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불리함이 있더라도 저렴한 동력을 사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동력 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그로 인해 공업 경영상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서 저렴한 동력을 쉽게 사용하게 된다면 공업의 기초가 다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이 진보하고 발달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업 원료가 될 농업 생산품입니다만, 저렴한 동력을 얻게 되면 공업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농업 생산품의 개량과 증가를 촉진시켜서 농업 개량을 한 단계 높이게 됩니다. 어쨌든 동력 공급을 운택하게 해서 가격이 낮아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922년도부터 경성에서 선광정련연료연구소(選鑛精練燃料研究所)를 설치해 매년 40만원 내지 60만원의 경비를 들여 착수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업무는 첫째 석탄에 관한 조사와 실험, 둘째 금 및 기타 광물 정련 연구입니다. 첫째 업무는 조선의 무연탄 및 갈탄 생산을 견실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먼저 함경도와 평안도 석탄을 연구합니다. 이 연구는 대략 3년이 걸릴 예정인데 지하 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무연탄의 완전 연소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 경제적 실험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용 연료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연탄, 고령토를 활용한 연탄을 연구해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를 할 것입니다. 선광 측면에서는 가장 먼저 금 연구의 요점으로서 광산 경영자의 자본이 부족한 광구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의 탈거(脫去)를 방지할 간단한 정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탄 연구 실험은 조선의 산업과 경제적으로 중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에서 동력 원료가 될 만한 것은 산림, 수리(水利), 석탄뿐이지만 산림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한 물이 부족해 산에서 수력으로 전력을 만들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이용 상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존재합니다. 단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력으로 만들 수 있는 동력은 3만 6천kW 정도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래에는 산림 확장을 꾀하는 동시에 석탄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산을 울창하게 하고 치수를 잘 해서 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석탄으로 보충한다면 조선의 연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소는 오직 한 곳 중앙연료연구소(中央燃料研究所)밖에 없습니다. 이 연구소는 주로 이론을 연구하지만, 조선의 경우는 실제적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신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이나 주위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조선 산업의 근본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 마치며

조선총독부의 산업방침은 대략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요컨대 조선총독부에서 정한 방침에 기초해 각 지방의 실정에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점차 구체화해 가는 것이 지방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이처럼 지역 유지를 모아 간담회와 같은 방식으로 심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의가 큼니다.

저는 제군이 현재 연구하는 경상북도 산업방침 결정에 대해서 두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조선총독부의 방침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방 실정에 적용할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둘째 모임이 해산된 후에 후속 처리 없이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일단 결정한 이상은 어디까지든 수행해야 합니다. 소정의 방침에 기초한 결정을 현실에서 실행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래 계획이라는 것은 현재의 실정에

기초해 정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회는 나날이 진보하므로 이른바 동적인 사물을 정적인 문서로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영구불변하고 확고부동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인 방침과 주의는 움직일 수 없지만 실행할 때는 실제에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셋째는 이번에 이 계획의 제안자인 지사는 언제 다른 곳으로 영전하실지 모릅니다. 또한 제군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고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군들만 진지하게 실행한다고 해도 영구히 준행(遵行)<sup>17)</sup>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산업의 근본 축을 쥐고 있는 것은 지방의 수많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 방침을 철저히 이행·수행하지 않으면 오늘의 계획은 종이 위의 계획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 본토에서도 자주 볼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방침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당사자들이 혼연(渾然)해서 정신적으로 그 방침을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길입니다.

귀중한 제군의 시간을 빌려서 부족한 이야기를 해서 송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회의의 성공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완결)

---

17) 전례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행함.

## 면 행정 감독에 대하여

천형생(天形生)

면(面) 행정 감독에서 주안점은 국가조직의 세포인 하급 단체의 내실을 꾀하고 더불어 국가 내부의 결속력을 확고하게 하는데 있다. 감독 범위와 방법은 관계 법규가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상황을 보면 군·도(郡島)의 감독은 아직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면이 사무를 잘 정리하면 상급 관청은 더 이상 이에 대해 번잡스럽게 간섭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조장 행정(助長行政)<sup>18)</sup>에 중점을 두어 면의 발전을 기획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 270여 개 면에서 사무 전반의 정리가 충분하다고 공언할 수 있는 곳은 과연 몇 곳일까. 더욱이 우량 면으로 꼽힌 단체의 직원이 때때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일조차 있다. 이러한 단체는 감독자가 보기에 사무도 어느 정도 잘 정리하고 있어서 평소에 다소 안심했고 세간에서도 상당히 존경했던 만큼 그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특히 최근 공금 횡령 사건이 많은 것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생각건대 이러한 이들은 면을 생각해서 직원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야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면 사무를 성실하게 볼 생각이 없고 면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성의가 조금도 없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령 이러한 면의 상태를 인체에 비유하자면 이는 바로 불치병에 걸린 사람과 같다. 기타 경미한 나쁜 질병에 걸린 사람도 그 수가 결

---

18) '조장 행정'은 문맥상 '발전을 돕고 계획하는 것에 힘쓰는 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급선무는 감독책임자가 먼저 죽음에 임박한 사람을 치료한다는 각오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 없이 심각한 질병으로 빈사 상태에 있는 상대를 여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여겨서 부질없이 적극적인 시책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면 그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현재 면 행정 감독의 급선무는 바로 이 점에 있다.

### **면 행정 감독이 보급되지 않는 원인**

면 행정 감독이 절실한 이유는 위와 같은데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먼저 제1차 감독관청인 군청을 보면 기존에 감독이 부족한 점에 관해 여러 변명을 한다. 요약하자면 “항상 바쁘다, 인력이 부족하다, 여비가 부족하다”는 세 가지이다. 물론 몇몇 소수의 군은 예외로 해야 할 상황이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 군은 과연 진짜 그러할까. 예컨대 현재 군 사무를 분석해 보면 사교(社交) 관련 사무, 적십자 사원 및 애국부인회원 모집 사무, 농회 관련 사무 등이 있고 이 때문에 더욱 바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사무가 바쁜 것은 바쁘다고 하더라도 군 본래의 사무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무 때문에 바빠서 군 본래의 사무를 제쳐두는 것은 애초에 변명거리가 안 된다. 사람이 부족하고 여비가 부족한 것도 그러하다. 학교의 개교식, 자동차 개통식 등과 같은 의전행사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몇 명이 출장 나가는 일이 드물지 않다. 그러나 개중에는 필요여부가 의심스러운 것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부족하고 여비가 부족하다는 변명이 과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적절히 사람을 쓰고 적절히 여비를 쓴다면 관내 각 면의 순시·감독은 애초에 수행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 본토의 어떤 군은 모든

군 서기에게 정촌(町村) 감독 사무를 숙지시키고 각자의 담당 사무와 관련해 출장을 가는 때는 반드시 해당 정촌 사무를 감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력과 여비 면에서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다른 군은 모두 여비 증액을 요청하지만, 해당 군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증액을 거부한다고 한다. 물론 모든 지방,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항상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용무를 그르치지 않는다면 주도면밀하게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앞의 세 가지는 감독을 주도면밀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감독자의 의지와 행동이 약하거나 감독을 중시하는 생각이 없거나, 또는 형식적인 감독만 하는 것이 아마도 감독 부족의 주원인이 아닐까.

## 면 행정 감독상의 주의 사항

1) 감독자는 하급 단체를 냉정하게 대하고 상벌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를 볼 때 간절함을 지니는 것이다. 감독의 본 취지는 피 감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 감독자를 구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간절한 생각으로 감독에 임하면 가령 엄정하다고 해도 당사자가 반항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틀림없이 감독의 성과를 올릴 것이다.

2) 면의 담당자가 부지불식간에 법령을 어기면 그 결과 사무의 혼란을 초래하고 마침내는 면민에게 뜻밖의 손해를 입혀 면의 기초를 약하게 하므로 상급 관청은 이를 없앤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면 사무의 문란함을 바로잡기 위해 지휘하고 명령한 사항은 이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절

대로 면에 순응과 거부를 일임하면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감독자가 지휘·명령한 사항은 반드시 그 결과를 얻어낸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3) 감독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무 정리이다. 특히 회계 정리가 중요하다. 회계 정리는 요약하자면 수입을 정확하게 하고 지출을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그 의의는 간명하다. 그러나 담당자가 이 간명한 방법을 실행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개인의 채권을 기한이 되어도 거두지 않는 것과 같다. 이로 인해 급여 등 일정한 기일에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왕왕 있다. 특히 체납 정리는 그 조치가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고 왕왕 한 면에서 체납 정리를 계속 게을리 하다가 다른 면에서 일시 차입금을 빌려 지불하는 경우조차 없지 않다. 만일 이런 방법을 쓴다면 이는 정당하게 납세한 사람에 대해 납세 이외의 일시 차입금 이자까지 부담시키는 것이 된다. 이 얼마나 도리에 반하는 것인가.

4) 전체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동(洞)·리(里) 소유 재산의 관리이다. 되돌아보면 1910년의 '신정(新政)' 이후 이미 10여 년의 시간이 경과해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이 대체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독 동·리 소유 재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아직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담당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감독관청도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이를 등한시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능한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최근 면 재정 규모가 갑자기 팽창해 면민의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어서 기본재산 조성이 가장 긴급한 사안이 되었다. 특히 조림 사업은 가장 시의 적절하게 기획해야 하지만 실행 상황을 보면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계획은 정해졌지만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서 특히 충분한 감독이 필요하다.

6) 사무 순시를 시행한 후에는 그 결과를 강평해서 올바른 것은 상을 주고 잘못된 것은 징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면 사무 정리를 유도하고 사무 감독을 유효하게 하는 데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직원 훈련 면에서도 적지 않은 이익이 있다.

7)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방 사무의 진흥 여부가 주로 인재의 여부로 갈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매우 막연하지만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자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각건대 면 당국자가 좋은 인재를 얻는다면 더 이상 감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감독이나 시찰은 필경 불안함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상은 모두 감독상 중요한 주의 사항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요컨대 주도면밀하게 면 감독에 노력하면서 감독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사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적절히 한다면 모든 위법과 과오는 자연스럽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 조선 잠업 장려를 위해 관리의 분발을 바람

나카지 사다지로(中地貞次郎)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도 국민도 열심이다. 즉,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은 나라를 강하게 하여 외적의 침해를 방지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 말고는 없다. 그리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려면 그 나라 특유의 산물을 장려하여 외국 자본(外資)의 유입을 도모함으로써 비로소 국력 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태는 어떠한가?

시범적으로 1922년 중의 일본 외국무역 상태를 보면 그 총액은 35억 2천 688만 4천 원이며, 이 중 수출은 16억 3천 726만 원, 수입은 18억 8천 960만 4천 원으로<sup>19)</sup> 차액은 2억 5천 234만 4천 원의 수입 초과(1921년에 비해 1억 860만 1천 원의 감소)를 나타냈다. 그리고 수출액 중 우리 잠업품 가운데 생사(生絲)는 6억 7천 33만 4천 원, 견직물은 1억 791만 9천 원, 사설(絲屑)<sup>20)</sup> 및 진면(真綿)류는 1천 451만 3천 원으로 합계 7억 9천 276만 6천 원, 이는 전체 수출액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무역품의 주력은 잠업품이며 국가 경제의 성장은 잠업의 흥망성쇠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런데도—

---

19) 원문에는 '86억 8,960만 4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류로 판단된다.

20) 실보무라지, 실에서 나오는 자잘한 부스러기.

## 일본의 잠업(蠶業) 현황

일본의 잠업 현황을 보니 일본에서의 잠견(蠶繭) 총액은 해마다 풍흉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으나 대체로 700만 석이다. 농가에서는 이를 주요한 부업으로 삼아 자기 경제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점차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면 인구 증가로 인한 경지의 협소, 노동력 부족, 노은의 앙등(昂騰) 등의 관계상 자칫하면 수지가 맞지 않는 비극적 상황에 빠지기 쉬운 상태이다. 종래 일본의 잠업은 농가의 부업이었던 것에서 점차 쌀과 보리를 재배하던 양전(良田)을 모두 뽕나무밭(桑田)으로 전환하고, 평소에는 활용할 수 없는 전용 잠실(蠶室)을 특설하는 등 거의 전업적(專業的)인 모습이였다. 이와 같으므로 하루아침에 실(絲) 가격이 폭락하면 참으로 참혹한 공상에 이르게 되었다. 건설해야 할 농가 경제가 전업적 잠업 때문에 와해되었던 은감(殷鑑)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1920년 무렵 실 값의 참혹한 폭락 당시 체험한 바이다. 이처럼 농가 경제가 잠업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수지가 맞지 못한 결과이다. 근래 들어 일본의 양잠가들도 점차 각성하여 잠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다시금 이전의 부업적 경영으로 되돌아가려는 추세이다. 이렇듯 팽창할 대로 팽창해버린 일본의 잠업은 점차 긴축 방침(나아가 장래에는 뽕나무 재배법, 잠업 품종의 개량, 사육법의 개선 등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수확은 늘리는 길을 강구하더라도)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공업의 발달, 토지와 노동력 등과의 관계로 인해 다액의 생산비를 요구하게 되어 도저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잠업품이 외국무역품인 이상, 세계에서 수요공급 상황을 보면—

## 세계 4대(四大) 잠사국(蠶糸國)

세계 4대 잠사국으로 서유럽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동양에는 중국(支那)과 일본이 있다. 이들 네 나라가 세계 잠업품의 수요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상공업의 발달과 유럽 전란의 상처로 인해 과거에는 공급국이었으나 지금은 수요국이 되었다. 현재 정부는 장려금을 지급하며 잠업의 진흥을 꾀하고 있긴 하나, 생산품이 우량하다는 점에서 잠사국 가운데 견줄 만한 것이 없다 해도 생산비 측면에서는 도저히 세계와 경쟁할 수 없어 점차 쇠퇴하고 있는 바이다. 앞으로 일본 제품과 패권을 다툴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지금 가장 일본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존재는 이웃나라 중국(支那)이다.

## 두려운 중국 잠업의 장래

중국의 잠업은 오래전부터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불어 토지가 광활하고 비옥하며 노동력이 과잉인 데다 노임은 저렴하고 비료 또한 풍부하여 잠업 경영에 있어 실로 이상적인 적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농민의 다수는 완고하여 뽕나무 재배법, 누에 품종의 개량, 양잠법의 개선에 힘쓰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장려와 더불어 외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가까운 예로는 재작년에 미국의 견업단(絹業團)이 시찰을 왔고 최근에는 외국인의 경영에 힘입어 점차 개량과 발전의 기운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당 종사자들 또한 자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생사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게 될 수도 있으며 안팎으로 자극을 받아 어찌면 급속히 진보할 것으로 상상이 되기도 한다.

## 중국의 견주(絹紬)<sup>21)</sup> 기업 발전 상황

1922년 당시 중국 견주 기업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견주 기업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었으며 예전의 수공업 단계에서 공장제로 이행되어 이제는 상당히 대규모 공장이 설치되었다. 제품은 점차 개량되어 1922년 수출액은 1,317만 7천 해관량(海關兩)<sup>22)</sup> (일본 화폐 기준 약 1,580만 2천 원)에 이르렀다. 수출지 중 1위를 차지하는 곳은 미국으로, 340만 1천 해관량(일본 화폐 409만 2천 원)이 수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 상인들이 안동현(安東縣)<sup>23)</sup>의 작잠사(柞蠶糸)<sup>24)</sup>까지 취급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실로 주목할 만한 일로 본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세탁에도 견딜 수 있는 특성이 있어 현재 인도 및 구미 여러 나라에서 계층을 불문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주요 용도는 남녀 의류, 여성용 핸드백, 가방, 화장품 파우치, 여성용 모자 및 그 장식품, 커튼, 테이블보, 이불 소재, 자동차 커버, 여름철 남녀 유카타, 아동용 양복 등이다. 특히 유럽과 미국 여성들은 의복과 같은 색상의 동일 소재를 장식용품에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의류용으로서의 견주 사용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장식품 소재로서의 용도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 일본 제품과 중국 제품의 비교

그리고 이것을 일본 제품과 비교한 상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

---

21) 야생 누에에서 나온 실로 짠 얇은 견직물.

22) 海關兩(해관량)은 청말(清末)~중화민국 초기까지 중국 해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은(銀) 단위 화폐이다.

23) 현재 중국 단둥시(丹東市).

24) 산누에나방과의 나방의 애벌레.

면 중국 제품은 일본 제품에 비해 모양새가 나쁠 뿐만 아니라, 종류가 많아 취급 시 색상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 반면 일본 제품은 외관이 우수하고 내구성도 중국 제품과 동등하여 유럽, 미국, 인도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따라서 품질 면에서 본다면 일본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우월한 상태이지만, 중국 제품의 수출이 해마다 격증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일본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고가의 원료와 노임 등으로 만드는 제품으로 인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시장 경쟁에서 항상 밀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출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 우려스러운 일본 잠업의 장래

각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에서의 잠업은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미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杞憂)를 하게 된다. 만일 이것이 기우가 아니고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 무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잠업, 다시 말해 일본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잠업인 이상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대한 문제이다. 과연 그렇다면, 국가는 이 중요한 무역품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패권을 더욱 확고히 장악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안정과 튼튼함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우수한 생산품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를 저렴하게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잠업은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대한 만큼 낮추기는 어려운 듯하다.

## 조선에 국가적인 잠업 시설이 필요한 이유

이러한 이유로 장래의 잠업은 토지와 노동력이 여유롭고 노임이 저렴하여 생산비가 낮은 조선을 대상으로 온 힘을 다해 뿌리 내려야 하는 자연의 운명을 가진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조선의 잠업은 그 기원이 아득하고, 연혁은 자세하지 않으나 예로부터 여러 왕조에 걸쳐 장려되어 상당히 발전해 왔다. 이 사실은 기록과 각지에 남아 있는 수십·수백 년 된 노(老) 뽕나무가 인공적으로 재배된 흔적을 통해 그 정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근대에 이르러 거의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른 까닭은 잠업이 이 지역에 적합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서도 아니다. 이는 전혀 지도와 장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정치와 가혹한 수탈이 이뤄진 폐정(弊政)에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건대 조선의 기후는 잠업에 적합하고 더불어 토지와 노동력 모두 아직도 풍부하다. 이 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실로 적합한 지역이며 민도(民度)에도 적당하다. 이른바 여러 요건을 두루 갖춘 하나의 큰 천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시정(始政) 이래로 이 분야의 지도와 장려에 힘쓰며 이 산업의 계발을 도모하고 있다고는 하나, 위에서 언급한 여러 이유로 국가사업으로서 상당한 경비를 지출했다. 더욱 활발한 진흥과 장려에 힘쓴다면 첫째로는 저렴한 생산품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여 장래에 중요한 무역품으로 성장시키고 국가 경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피폐하고 고단한 조선 농가를 구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장려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시설에 기대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나의 소견을 덧붙이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붓을 놓는다.

## 모르핀 은자(隱者)

대구경찰서장 다카스키 곤조(高杉權藏)

모르핀 주사의 폐풍<sup>25)</sup>은 아편 흡입이 발단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할 만한 것이 없어서 여기에 자세히 적을 수 없는 점이 유감이다. 원래 아편 흡입은 주로 동아시아 민족 사이에 행해지던 악습으로—터키, 페르시아, 인도,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특히 폐해가 두드러진다고 한다—그 유래는 대체로 민족성의 기호(嗜好)로 인해 발생했다. 자세히 말하면 그 기호는 나태한 습속<sup>26)</sup>으로 인해 본능적인 충동에서 생겨난 것이고, 폐풍이 쉽게 교정되지 않는 것은 위생사상의 결여 때문이다. 또한, 아편 채취는 약학상의 역사에서 보면, 첫 세기 말엽(서기 77년) 아시아 터키에서 ‘디오스코리데스<sup>27)</sup>’씨가 처음으로 양귀비에서 채취하였다. 이후, 아편이 의료에서 마취약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폐풍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시작되어 점차 다른 지역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음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조선에서의 이 폐습은 다음에 상술하는 바와 같이 약 반세기 전에 중국에서 전래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조선 전체에 퍼

---

25) 폐해가 많은 풍습.

26) 습관이 된 풍속.

27) 그리스의 약업 분야의 권위자로서 서기 40년경에 현재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서 태어났다. 현재 약사과정 학생에게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로도 알려진 인물이며, 과거 서양 약학의 근본이 되는 저서 『약물에 대하여 De materia medica』를 남겼다. .

져 풍미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 폐풍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민족성의 결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모르핀을 한번 이용하면 쉽게 그 폐습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마침내 중독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現狀)이다. 게다가 한번 중독에 빠지면 눈에 띄게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평상시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시도 심신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모르핀 사용을 중지하면 금세 심하게 괴로워하며 땀이 나고 불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왕왕 인사불성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다시 모르핀을 사용하면 즉시 고통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층 더 쾌감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한번 애용한 자는 부지불식간에 자제심을 잃고 일시적 쾌감을 탐하기 때문에 점차 남용하는 악습에 빠져 결국에는 심신의 건강을 해쳐 자연히 폐인이 된다. 심한 경우에는 왕왕 생명도 잃게 되는데, 모르핀을 애용한 결과는 가산을 탕진하고 한 집안의 호구도 잃게 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산이 궁하여 왕왕 절도, 사기, 횡령,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질러 전과자가 되어 자연히 평생을 불우하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위정자는 하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현상이다. 이를 기왕의 사례에 비추어 현재의 사실을 판단해보면 이 폐풍의 끝은 건전한 사회의 풍기를 파괴하는 것이며, 작게는 일신일가(一身一家)를 망치고 크게는 사회국가를 좀먹게 한다. 이에 나는 특히 다음과 같이 항목을 나누어 상술하여 식자(識者)의 일고(一考)를 바라고자 한다.

## 연혁

‘모르핀’과 ‘코카인’ 주사의 폐풍은 아편 단속을 엄중하게 시행

하자 이를 대신하여 생겨난 것으로 기원은 물론 중국인에게 있으나 연혁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적을 만한 것이 없기에 상세한 사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를 경험 많은 노인의 말을 통해 알아보면 조선시대 말엽, 조선이 아직 청나라의 종주권에 의해 좌우되고 있을 무렵, 조선에 주둔하던 중국 군인들이 자주 아편을 흡입하던 악습이 점차 조선인들에게 침윤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애용하는 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폐풍은 처음에 경성, 인천, 평양 등지의 지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지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대구도 영향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중국인 한두 명이 가져온 아편이 결국은 오늘의 폐풍을 키웠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폐풍을 제거하기 위해 그 시절 정부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은 당시 일본,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와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에서 아편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법령(광무 9년 5월 법률 제2호 형법 제14장 제2절 제659조)에 아편의 수입 제조 판매 또는 흡입을 금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경찰 제도는 아직 단속 실적을 충분히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아편 흡입의 폐풍은 이후 각지에서 배로 만연하게 되었다. 그 후 고문제도 실시에 따라 구(舊) 한국경찰의 내실이 점차 개선되자, 이에 대한 단속도 역시 점차 주효하게 되어 아편의 수입, 판매, 수수 등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 결과 아편 중독자는 당시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었던 ‘모르핀’ 염류를 이용하여 아편 흡입을 대신했다. 그와 동시에 기회를 틈타, 간사한 상인 및 부정한 의사의 배덕행위가 두드러지게 이 폐풍을 조장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과도기의 제도 결함이 마침내 오늘에 이르게 했다.

## 동기

아편 흡입 및 ‘모르핀’ 염류 주사의 동기는 각종 원인이 기원 하지만, 이를 통계상의 기타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관찰하면 대개 일종의 변태적 성욕 본능의 만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편 흡입과 ‘모르핀’ 염류 주사가 아직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양 정도로 사용될 때는 뇌 신경중추의 마비를 초래해 진통 작용과 동시에 마비, 기아, 불면 등 모든 불쾌감을 제거한다. 흡사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을 때처럼 책임 관념을 아주 박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사물에 안달하지 않으며 한때를 가장 유쾌하게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성욕 기분을 왕성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생식 기능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정교를 할 때 사정 능력이 쇠퇴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정교를 하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성욕상의 만족을 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기왕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아편 흡입의 폐해가 가장 맹렬했을 당시에는 소위 ‘아편집’이라는 것이 도처에 산재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 ‘아편집’이라는 것은 중국인을 제외하면 대체로 기생이 사는 집이었다는 사실은 그 동기가 분명히 성욕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을 대구경찰서에서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모르핀’ 중독자를 대상으로 관찰했는데, 자백에 따른 동기를 표로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모르핀·코카인 중독자 원인(동기) 조사표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위병 치료	-	-	48	4	-	-	48	4	52
복통 치료	-	-	38	11	2	-	40	11	51
중풍 치료	-	-	2	-	-	-	2	-	2
신경통 치료	-	-	2	-	-	-	2	-	2
설사 방지	-	-	11	-	-	-	11	-	11
임병 <sup>28)</sup> 진통	-	-	2	-	-	-	2	-	2
일시적 쾌락 목적	-	1	24	1	-	-	24	2	26
계	-	1	127	16	2	-	129	17	146

한때의 쾌락을 얻기 위해(성욕 본능 만족) 모르핀 주사를 맞고, 결국 중독자가 된 사람은 146명 중 26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직업 방면에서 더욱 선별하여 관찰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위병 또는 복통 치료를 위해서라고 자백한 자들 중에는 기생(예창기), 유예가(遊藝稼)<sup>29)</sup>, 무직자(부랑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은 단지 표면을 호도하는 허구의 언사에 지나지 않고, 동기는 대체로 성욕 본능의 만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 폐풍의 근절을 무엇보다 곤란하게 만들며, 짧은 시일 안에는 해결할 수 없게 하는 까닭이다. 세상을 걱정하는 선비는 바야흐로 여기에 뜻을 두고 이들의 구제를 위해 하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8) 임균의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성병.

29) 메이지(明治) 시대에 라쿠고가(落語家)가 유예가인(遊藝稼人)이라는 면허를 받았다고 한다.

모르핀·코카인 중독자 직업별 표

직업별	원인 별	위병			복통			일시 쾌락			기타			계		
		일	조	중	일	조	중	일	조	중	일	조	중	일	조	중
술장수	남		1											1		
	여															
우마(牛馬) 장수	남										1			1		
	여															
재목 장수	남										1			1		
	여															
옷감 장수	남							1						1		
	여															
땀질 장수	남						1									1
	여															
도배직	남				1									1		
	여															
인쇄 직공	남				1									1		
	여															
주방 조리사	남				1						1			2		
	여															
재단 직인	남				1									1		
	여															
곡물상	남		2		1						2			5		
	여															
생선장수	남		3		2									5		
	여															
고물상	남		2		1			1						4		
	여															
목수직	남		2				1							2	1	
	여															
잡화상	남		1		2			1						4		
	여															
신발직공	남		2								1			3		
	여															

이발사	남	1						1		2
	여									
여인숙	남	1								1
	여									
유예가	남	3				2				5
	여									
예창기	남									
	여	2		6		1			1	8
나카이 <sup>30)</sup>	남						1			1
	여									
유기식기 (놋그릇) 제조 직인	남	1								1
	여									
농업	남	10		12		4		8		34
	여									
날품팔이	남	4		1				2		7
	여			1						1
무직	남	15		15		14				44
	여	2		4		1				7
계	남	48		38	2	24		17		127
	여	4		11		1	1		1	16

## 중독자의 현황

이 지방에서의 중독자는 해마다 배로 증가하는 추세로 근심스러운 사실이다. 특히 1918년 이후, 그 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야 할 점이다.

지금 대구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독자를 대상으로 모르핀을 주사한 연수를 조사하니 다음 표와 같다. 이미 14년 동안 오랜 세월을 걸쳐 주사를 계속 맞고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은 이

30) 요릿집이나 유곽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여성.

폐풍이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뚜렷하게 입증하고 있다. 1918년 이후 갑자기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시국 관련으로 인해 경찰의 단속이 본 건을 다소 등한시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실히 재계의 호황으로 유흥가에 출입하는 자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 원인이 일종의 변태적 성욕 본능의 만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추단<sup>31)</sup>하여 귀납된다. 올해 들어 갑자기 감퇴한 것은 일면, 단속이 엄격하게 행해진 결과이지만, 또한 재계의 불황이 명확히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르핀·코카인 중독자 주사 연수(年數)표

주사개시 연도별	주사 연수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22년 내	1년 미만			2				2	
1921년 내	2년 미만			30	1			30	1
1920년 내	3년 미만			34	8			34	8
1919년 내	4년 미만			22	5	1		23	5
1918년 내	5년 미만		1	15		1		16	1
1917년 내	6년 미만			4	1			4	1
1916년 내	7년 미만			8				8	
1915년 내	8년 미만			2				2	
1914년 내	9년 미만			2				2	
1913년 내	10년 미만			1				1	
1912년 내	11년 미만			6	1			6	1
1911년 내	12년 미만								
1910년 내	13년 미만								
1909년 내	14년 미만								
1908년 내	15년 미만			1				1	
계			1	127	16	2		129	17

31) 추리하여 단정함.

## 단속 및 치료

대구경찰서의 중독자 단속은 한쪽으로는 직접 중독자를 단속하여 그 비위를 교정하고 폐풍을 없애는 데 힘쓰는 동시에, 한쪽으로는 의사, 의생, 약종상, 기타 밀매자를 엄격히 단속하여 해당 약품이 부정하게 공급되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이 폐풍의 근절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는 점은 실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중독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치료 방법의 지정이다. 즉 중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증명서를 교부하여 지정 의사에게 치료를 받도록 한다. 그런데 중독자 중에는 왕왕 주치의의 점감(漸減) 요법을 싫어하여 몰래 ‘모르핀’ 염류를 입수하여 스스로 주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가 곤란해져 또다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지극히 유감이다. 심한 경우는 행방을 완전히 감추고 몰래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모의하여 갖가지 나쁜 수단을 이용해서 형벽(刑辟)<sup>32)</sup>에 처해지거나, 모르핀 구입 자금이 궁하여 횡령,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일으키게 된 자 또한 적지 않다. 대구경찰서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특별히 전문 단속 순사를 배치하여 치료 중독자 시찰과 단속 및 이들 불량 패거리의 검색에 힘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엄하게 시행함에 따라 점점 행방을 감추는 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일면 우려할 만한 점이다. 참고로 중독자의 현재 상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2) 죄 지은 사람을 형법에 따라 죽임.

모르핀·코카인 중독자 현재 상황표

국적별	치료 중독자 총수		내역								
			완치		이전		소재불명		현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일본인		1									1
조선인	127	16	35	1	9		32	6	51	9	
중국인	2				1				1		
계	129	17	35	1	10		32	6	52	10	

‘모르핀’ 염류의 단속에 대해서는 의사, 의생, 약제사, 약종상 등의 시찰 단속을 엄격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밀수이입, 밀매매업자의 단속도 엄격하게 시행하여 검거와 근절에 힘쓰고 있다. 위반자에 대해서 다음 표와 같이 엄벌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 효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는 못하여, 경성, 부산 등 경상북도 이외의 지방에서 몰래 반입하여 주고받고 있는 사례가 도무지 끊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모르핀·코카인 밀매자 검거 및 처분 표

형별	일수 또는 금액	처벌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구류	14일					1						1
	20일				2							2
	25일					1						1
	29일						1					1
과태료	15원			1								1
	20원			1	3							4
벌금	30원				2							2
	50원							1				1
	70원						1	2				3
	80원							4	1	1	1	7
	100원							1	1	3	6	11
	계			2	7	2	2	8	2	4	7	34

중독자 치료는 대구경찰서의 중독자 명부에 등록된 다음, 정해진 증명서를 교부하여 지정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자제심을 잃어 가고 있는 중독자들은 점감 요법에 따라 거의 완치가 되어 갈 때, 다시금 주치의가 아닌 자를 통해(대체로 같은 부류의 사람) 쉐 물약 주사를 시도하여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있어, 지정 의사가 실시한 치료는 헛수고가 되어 버린다. 참으로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모르핀’ 염류 중독에 빠진 자는 이것을 갑자기 중지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서 불면, 침울, 구토, 식욕결핍,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다시 모르핀 염류를 사용하면 즉각 이러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심신에 한층 더 쾌감을 일으킨다. 이에 모르핀 점감 요법을 받을 때도 때때로 다른 곳에서 ‘모르핀’ 염류를 입수하여 스스로 주사를 맞고 일시적 쾌감을 탐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대구경찰서에서는 조만간 강제 치료 방법을 강구하고자 했으나, 현재는 이러한 불량한 중독자 단속을 급무로 한다. 중독자 단속을 엄격하게 행하여 부랑 사실에 따라 구류 처분을 한 다음, 금단 요법 또는 극도의 점감법(모르핀 1.5% 용액을 첫날 5그램 주사하고, 이후 매일 0.5그램씩을 줄여 15일 동안 주사하고 마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독자 중 왕왕 하루 이틀 동안 심계항진(心悸亢進), 가슴통증을 호소하거나 땀이 나고 불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자도 있으나 차츰 증상이 사라져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다. 금단 후 대략 10일 정도면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 올 1월 이후부터 10월 말일까지 중독자 중에서 강제 치료를 받은 자는 다음 표와 같다. 꽤 불만한 성적이라는 것은 장래 단속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강제수용(구류처분)자 월별표

수용일 수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5일		× 1									1
7일		× 1	× 5			1					7
10일	× 3	× 7	× 2	1			1			1	15
14일	2		2	3	1						8
15일				1	1				1		3
20일		3	3	8	2		4	8	1	1	30
25일				2	2	2	1	2	3	1	13
29일									1		1
계	5	12	12	15	6	3	6	10	6	3	78

바야흐로 각지에 청년회 등이 만들어져서 모두 시대에 순응하는 제반 사회사업에 봉사하고 있다. 이렇듯 청년 여러분이 분기하면 중독자의 시찰 단속이나 약품의 부정 수수 등에 한층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모르핀 폐풍의 철폐를 기대할 만하다고 믿는다.

## 결론

요컨대 모르핀의 폐풍은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고 그 밑바탕 또한 견고하다. 그저 관헌의 시설 단속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관민일치 하에 함께 이 폐풍의 박멸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하리라 생각한다. 3가지 방법이란 무엇인가? 가라사대, 일반 단속 법규의 제정, 중독자의 강제 치료, 민중의 자각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는 아직 조선과 일본의 통일된 일반 단속법령이 없

기에, 조선 전체에 걸쳐 일률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다. 그저 지방 상황에 따라 각각의 행정처분이 행해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독자 그 자체의 단속은 물론 해당 약품의 부정 공급로를 끊을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따라서 조만간 일반법령의 제정을 요구하여, 마치 아편에 대한 조치처럼 하는 것이 모르핀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중독자에 대한 강제 치료이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중독자는 대체로 자제력을 잃고 있으므로, 임의 치료를 하여 모르핀 근절을 바라는 것은 역시 백년하청(百年河淸)<sup>33)</sup>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미 진술한 것처럼 중독자의 강제 치료는 확실히 정신적 방면에 현저하게 큰 반향을 가져다주기에, 이 치료는 비교적 용이하고 정확하게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장래 발생할 환자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의 길을 열어 점감요법으로 이들을 구하는 것이 급무다. 세 번째는 일반민의 자각이다. 모르핀 중독 현상이 건전한 사회의 풍교를 해치고 있는 것은 새삼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다. 중독의 결과는 자기의 심신을 망치고 자산을 없앨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범죄가 이에 동반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모르핀의 박멸은 단지 중독자에 대해서만 급무인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보전하고 일반 민중의 복리증진 상,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 민중이 자각하면 모르핀의 전파를 더 끊을 수 있고, 이웃끼리 서로 돕는 미풍은 중독자의 자제를 촉구하고 해당 약품의 부정 공급로를 끊어 부당한 이익을 탐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몹시 부끄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자각은 나아가서는 관민의 협조로 나타나 중독자를 구하는 결실을 거둘 것이고, 한편으로는

---

33) ‘중국의 황허강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모르핀 침염(浸染)의 해(害)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서술한 바와 같은 청년단원의 활동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활동이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상의 세 항목을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본 건의 목적을 관철할 수 있고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새삼 식자(識者)의 일고(一考)를 바라고자 하는 까닭이다.

## 조선의 단급<sup>34)</sup> 소학교 현황

로쿠인생

조선의 단급소학교라고 거창하게 표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 별안간 깡촌, 즉 자동차 휘발유의 요란한 울림이 겨우 지난 일 년쯤 전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산간벽지의 단급소학교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 모두 진기하여 눈이 휘둥그레진다. 나는 조합과 군청의 안내로 조선에 거주한 지 고작 3년도 되지 않는 짧은 경력과 지극히 얇은 견문밖에 없다. 따라서, 조선 땅의 실상과 그 방면의 방침을 분별하지 못한 채 전혀 다른 의견이나 당국의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마구잡이 주장도 있겠지만, 3년간 단급소학교를 실제로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하여 대담하게나마 소신과 감상을 꾸밈없이 대강 피력하여 현명하신 여러분의 교시<sup>35)</sup>를 받고 싶어서 마구 적었을 따름이니 독자 여러분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 단급소학교의 역사

말할 필요도 없이 단급소학교란 한 학교의 모든 아동이 한 명의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실에서 교육받는 소학교를 말하며, 보통소학교 즉 다급(多級) 소학교에 대응한 명칭이다. 본디 단급소학교의 기원은 1872년의 독일 교육령 발포에서 ‘한 학급의 평민학교’나 ‘무등급의 평민학교’라고 한 것이 일본의 단급소학교에

---

34) 두메나 낙도의 분교 등에서 학년이 다른 아동을 한 학급으로 편성한 것.

35) 상대방의 가르침을 높여서 이르는 말.

상당한다. 기타 북미합중국의 경우에는 ‘무급소학교’라고 하며, 스위스에서는 ‘집합소학교’라고 하는 것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법령상 단급소학교 명칭이 나온 것은 1890년의 교육령 개정 발표 때이며, 조선에서도 물론 이 교육령에 따라 오늘에 이르렀다.

## 단급소학교를 인정한 취지

상세한 것은 모두 생략하겠으나, 일본에서는 지난 1886년에 문부성이 ‘인가가 드문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국민교육을 보급 시키고자 하는 운운’이라며 포고했다. 즉 의무교육 보급상, 장려하는 시설이었다. 단급소학교가 대만이나 조선에서는 물론 교육 보급을 장려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분명 교육 보급 실시 상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우선 학교조합을 설립하여 경영 임무를 맡기고 부족한 곳을 메꾼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로서의 의무상에서도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작년에 조선 신(新) 교육령이 발표, 실시되고 내선공학(內鮮共學)을 인정하여 취학 상 여러 편의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현 상황에서 보면 단급소학교는 당분간 필요불가결한, 아니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한다.

## 단급소학교의 추세

문운(文運)의 진보, 국민의 자각과 더불어 일본의 단급소학교는 해마다 감소하여 복식소학교 혹은 다급소학교로 나아가며 변천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1895년에 10,385교였던 것이 1920년에는 1,226교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만과 조선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감소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관한 최근

매해의 통계가 유감스럽게도 수중에 없어서 조선의 단급소학교의 추세를 명료하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1919년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도명	단급소학교	다급소학교	소학교 전체 수	단급소학교 아동 수
함북도	2	5	7	40
함남도	11	6	17	245
강원도	13	4	17	251
평북도	15	5	20	226
평남도	13	8	21	173
황해도	10	10	20	168
경남도	43	26	69	1091
경북도	32	15	47	681
전남도	24	20	44	555
전북도	19	12	31	408
충남도	19	11	30	352
충북도	5	7	12	101
경기도	25	19	44	611
합계	232	148	379	4902

###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찬 1919년)

이것은 1919년 학무국 편찬 ‘조선 제학교일람’에 따른 것인데, 조선 전체 도의 소학교 수 379개 중 332교<sup>36)</sup>, 즉 약 2/3가 단급소학교이고,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 수는 4,902명에 이른다. 물론 1919년에서 3년이 지난 현재는 더욱 증가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학교 수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단급소학교의 경영 교수(教授), 그 밖의 연구는 어떠한 상태일까?

36) ‘232교’의 오키로 보인다.

## 단급소학교의 연구기관

위와 같이 전체 학교 수의 약 2/3의 단급소학교, 게다가 앞으로 의무교육 8년제가 시행되는 일도 멀지 않은 오늘날, 시설경영, 교수훈련, 양호 등을 위한 연구기관은 교토사범학교 부속 단급소학교가 있을 뿐, 견문이 좁아 듣지 못한 것은 국민교육상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 단급소학교가 서로 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생각해 보더라도 직분을 단급소학교에 두는 자는 교무 안팎으로 업무가 많아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참관 시찰할 여가도 찾을 수 없다. 또 단급소학교가 설치될 정도의 곳은 교통기관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편의도 없다. 그래서 차츰 나날이 문화 자극에서 멀어져서 그저 구태를 고집하여 아무런 진전도 도모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하다못해 모범학교의 설립이라든가 혹은 다른 도(道)를 시찰하는 기회와 방법을 강구하는 등 크게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단급소학교의 교원

어떠한 일이든 성적이 오르고 말고는 결국 그 사람에게 달렸다. 특히 교육이 그렇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중에서도 단급소학교는 특히 더 그렇다.

단급소학교 교원은 교장이자 훈도이며, 때로는 의사이자 사환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교사는 또 자연히 특수한 자격이 필요하다. 단급소학교가 있을 정도의 지방 기질 때문에 교원은 단순히 교내의 교수훈련에만 몰두할 수는 없다. 졸업생 지도, 학부모 형제자매 보호자의 상담 상대는 물론, 그 부락의

교육의 중심으로 자타가 공인할 만큼의 자신과 포부와 경륜이 있는 인물이어야만 한다. 게다가 신체 강건하고 사상 온건하며 교육에 취미가 있고 또한 시대의 진운(進運)에 뒤처지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강고한 인물이어야만 한다. 보통의 소학교라면 교원 한 명이 결근할 경우, 상호 보조가 가능하지만, 단급소학교 교원의 결석은 설사 병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전교 아동의 휴업이 된다. 보통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관리, 교수, 훈련 및 전 교과를 전 학년에 걸쳐 다 처리한 다음 사무와 조사, 보고까지 해야 하니, 우선 교원의 신체가 강건하여야 한다.

아무도 직접적인 감독이 없는, 상대는 아동뿐인 단급소학교 교원은 남들보다 더 진지하게 직무에 임하며 열성이 충만해야만 한다. 여름에는 강에 물고기 잡으러 가고 겨울에는 산에 사냥하러 가는, 오히려 귀찮고 단출한 학교 일을 처리하는 교사가 한 명이므로, 그 사상은 또 어디까지나 원만하며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수완이 좋고 어느 방면에서 기능이 우수한 사람일지라도 한 방면에 치우쳐서 다방면의 이해가 없는 전문가 같은 인물은 단급소학교에서는 몰라도 단급소학교에서는 아동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어 편파적으로 아동을 교육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노련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아동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교육 전반에 취미를 가지고 전아(全我)<sup>37)</sup>를 여기에 몰입하는 절개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취미는 열성을 만들고 사랑과 위엄을 생기게 하여 약간의 지식 기능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사람에게 만전을 기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단급소학교 교원으로서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직업적이었으면 한다. 다른 건 아무리 빼어나더라도 일단 자격은 없다고 해야 한

---

37) 관념론에서 자아의 전체를 이르는 말.

다. 그리고 단급소학교는 반드시 대부분 교통이 불편하다. 따라서 보통은 주위 환경의 자극이 적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날마다 스스로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날이 나아지는 사회 조류에 뒤처지지 않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직무가 번잡하고 여유가 적어 상당히 고생하기 때문에 싫어도 시대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교원뿐만 아니라 그 학교 모든 아동의 불행이며 교육상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이상, 단급소학교 교육에 필요한 자격의 한 부분을 예로 들었다. 물론 원기 왕성한 청년 교육자여도 충분하지 않는데 나이가 많으면 더욱 곤란하다. 노련하고 원기 왕성한 성실한 인격자이기를 바란다. 이렇듯 지극히 어려운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단급소학교 교원에 대해 일반인들이나 당국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은 없는지. 대우 방법에서나 교원양성기관에서 다급학교나 보통학교의 교원과 동일시하는 정도면 또 몰라도 혹 경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역시나 단급교수법 강습은 가끔 꼭 열리겠지만, 2주일이나 10일의 강습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적어도 반년 혹은 일 년 정도의 단급전문 교수법 연구, 혹은 보통 훈도 이외, 특히 단급용 교원양성을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단급소학교의 교과목

4년 의무교육제에서 오늘의 6년 의무교육제만으로도 단급소학교에서는 꽤 교과목이 많은데, 학년의 증가라는 사실 때문에 고심했다. 아니 실제로 고심하고 있다. 하물며 앞으로 8년제를 실시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경비가 남아돌아 두 학급제로라도 모두 바꾸어 단급소학교 자체를 모두 폐지하면 어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보다 더 2년을 연장하여 8년 단급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속한다. 8년제가 되었을 때도, 단급 소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곤란함과 결과는 생각만 해도 오싹해진다.

수신, 산술, 읽기, 작문, 쓰기, 역사, 지리, 이과, 체조, 재봉, 창가, 도화, 필수 과목만 해도 12과목이다. 이 8학년 8종류를 한 명의 교원이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실제로 이러한 교과목 중 취사 및 취급에 대해 교수자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것들이 과연 실행되어 법령이 기대하는 정신에 합치하도록 그 바쁜 단급소학교 교원이 연구를 축적하여 자신을 갖고 단행할 수 있을까.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기회에 한쪽으로는 교과목 정리, 다른 한쪽으로는 단급소학교용 교과서 편찬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교육 교수의 사조(思潮) 진보로 개성존중, 자유창조, 자학자습 등이 주창되고 있는 때에, 교육에 한층 활력과 원기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교과목 정리와 교과서 편찬은 대단히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맺음말

이상 단급소학교의 일반에 대해 서술했다. 머리말에서도 말했듯이 단시일의 얇은 경험과 좁은 견문에 수공하기 힘든 점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다행히 현명하신 여러분의 비평의 전거라도 되기를 바라며 붓을 놓는다. (1923년 1월 18일 원고)

## 사과 해충 구제 방법 실적

종묘장

오오가와라 구니사부로(大河原邦三郎)<sup>38)</sup>

경상북도에서의 사과 재배는 1906년 일본에서 이주해 온 농업자들이 사과나무를 식재한 것이 그 시초였다. 그 이후 해마다 번식이 이루어져 지금은 조선 내에서 주요한 원예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생산된 과실은 조선 내는 물론, 멀리 만주, 일본, 대만, 남양 지역에까지 반출되고 있으며, 품질 면에서는 아오모리(靑森)산 사과를 능가하는 기세이다. 최근에는 조방적(粗放的)<sup>39)</sup> 재배에서 집약적 재배로 전환되어 비료, 관리,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에서 두드러진 개량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생산 효율의 향상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점에서 점차 이상적인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쁘게 여길 만한 현상이라 하겠다. 올해 과수동업조합<sup>40)</sup>의 검사에 따르면 경상북도 외 지역으로 반출되는 수량은 실로 3만 상자 이상이 예상된다. 1916년부터 1919년 무렵, 경상북도 외 반출량은 현재보다 훨씬 많아 5~6만 상자에 달했으나, 마치 사회·문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전염병이 증가한 것처럼, 경상북도의 과수원에도 1912년부터 면충(綿蟲), 또 1919년부터는 심식충(心喰蟲)<sup>41)</sup>이 발생했는데 해를

38) 사이타마(埼玉)현 출신 조선총독부 내무부 농무과 농림 기수.

39) 집약적 토지이용의 반대 개념으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력과 자본이 적은 상태의 재배 방식을 뜻한다.

40) 1917년 10월 22일 설립된 최초의 원예계 동업조합으로, 대구·경상북도 지역의 과수 재배 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기술 개량, 생산 증대, 출하 과물의 검사 및 품질 통일, 판로 확장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거듭할수록 널리 번져 과실 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최근 1~2년간의 면충과 심식충의 발생과 번식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으며, 사과 재배자들 사이에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일시적으로 발전의 기세를 꺾기까지 했으니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외국이나 일본의 원예업 발달사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일은 오히려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발전의 과정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해충이 증가한 것은 재배자의 책임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이며 식견 있는 이들이 말하길, 재배에 적합한 지역일수록 병해충의 발생도 많다고 하였는데 바로 그 말대로이다. 하지만 이미 오늘날과 같은 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직면한 이상 당연히 방제 방법을 적극 연구하고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병해충을 박멸하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과일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감하고 인정하는 바이다.

원래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종류는 매우 많다. 잎을 해치는 것, 혹은 가지나 줄기를 해치는 것, 또 꽃이나 과실을 해치는 것 외에 뿌리 부분을 해치는 해충도 있다. 이와 같은 해로운 적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소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실적을 얻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병해충을 파악하고 자기 과수원을 중심으로 그 피해 상황, 형태, 습성, 발생 횟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방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즉, 제거하기 쉬운 약점을 찾아내어 구제의 방법·수단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수원에 적절한 방제법을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구제를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종 병해충을 상대할 때는 방제상 서로 일치하는 공통

---

41) 과실 속을 파먹는 해충.

구제도 쉽게 실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효과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의사가 진단을 통해 병명과 증상을 파악한 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922년의 사과 병해충 방제 실적에 근거하여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 작은 심식충(姬心喰)<sup>42)</sup>의 피해율

과실 속으로 침입하는 해충에는 작은 심식충 외에도 두려운 존재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방제의 노력에 따라 점차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1922년도에는 월동 해충에 대한 포살(捕殺)<sup>43)</sup>, 봉지 씌우기(袋掛), 그리고 여름철 포살 등을 집중적으로 실행한 결과 작은 심식충 피해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1921년(%)	1922년(%)
이와이(祝) <sup>44)</sup>	7.1	1.8
홍괴(紅魁) <sup>45)</sup>	4.7	1.1
아사히(旭) <sup>46)</sup>	4.5	2.0
홍옥(紅玉) <sup>47)</sup>	22.9	10.1
국광(國光) <sup>48)</sup>	41.4	25.9
왜금(倭錦) <sup>49)</sup>	29.2	29.2

42) 일본 곤충명에서 ‘히메(姬)’는 일반적으로 작은 것을 지칭하는 접두어로 쓰인다. 따라서 ‘姬心喰’는 심식충이 완전한 성충이 되기 이전 단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43) 해충의 알이나 유충, 성충을 직접 손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

44) 이와이(祝)는 여름철 조생종 사과. 7~8월 무렵 수확되며 ‘여름 사과’로 알려짐.

45) 홍괴(紅魁)는 일본에서 개량된 품종으로, 아오모리(靑森) 지방에서 재배된 초기 품종으로 언급됨.

46) 아사히(旭)는 캐나다산 ‘맥킨토시(McIntosh)’ 계열 사과로 향과 산미가 강한 품종.

47) 홍옥(紅玉)은 미국에서 유래한 품종으로, 본래 이름은 ‘조나단(Jonathan)’이다. 19세기에 일본에 도입되면서 일본어로 ‘고교쿠(紅玉/こうぎょく)’라 불리게 되

※ 다만 봉지 씌우기를 안 한 과실을 조사한 결과, 홍옥, 국광, 왜금 외의 품종들은 수확 시기의 관계로 인해 발생 시기가 뒤늦은 해충의 피해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생산량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1922년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에 소홀한 과수원에서는 45%에서 49%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곧 방제의 힘이 병해충의 번식에 큰 제재와 억제력을 발휘하며 피해 규모와 반비례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방제의 힘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 심식충(心喰蟲) 방제 방법의 비교

사과 해충 가운데 특히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면충(綿蟲)과 심식충이다. 면충의 경우 1920년부터 청산가스훈증법(靑酸瓦斯燻蒸法)<sup>50)</sup>을 적극적으로 지도·장려한 결과 해마다 널리 보급되었고 1922년에는 대부분 시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면충의 번식을 현저히 억제할 수 있었으며 매우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심식충의 발생은 최근의 일이라 아직까지 충분한 대응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벌레는 과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직접 침해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며 사과 재배자들의 예산에도 심각한 차질을 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로서는 가장 중대한 해충으로 간주된다. 병해충 방제라 하면 심식충을 가리키는

었다.

48) 국광(國光)은 원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800년경 미국 버지니아주 칼렙 랄스(Caleb Ralls)씨의 과수원에서 최초로 주목을 받은 품종이다.

49) 왜금(倭錦)은 메이지(明治)~쇼와(昭和) 초기에 재배된 일본 품종.

50) 청산가리(potassium cyanide)와 황산을 반응시켜 발생하는 청산가스(HCN, Hydrogen Cyanide)를 과수원이나 저장고에 주입해 해충을 질식·중독시켜 구제하는 방식.

대명사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그만큼 이 해충에 대한 방제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1922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시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제법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며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방제법에는 여러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약간 정리하여 아래에 기술하고 방제상의 참고로 제공하고자 한다.

### 1) 포살(捕殺) 구제를 실행한 사례

(가) 방법 : 성충, 유충, 번데기를 가리지 않고 가지, 새순, 과실에 침입하여 가해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포살하였다. 또한 봉지 씌우기(袋掛)를 하지 않고도 해충을 제거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은 사례이다.

(나) 과수원의 위치 : 과수원은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아 대체로 직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평평하다. 남쪽은 국도와 비교적 큰 도랑으로 경계 짓고 있으며, 북쪽은 중간 부근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어서 남쪽 도로와 접하고 있다. 주변은 넓은 수전(水田)으로 되어 있고 북쪽 중간 지점에서 서쪽을 둘러 남쪽 도로에 접하는 사이에는 수전이나 밭, 상점가가 띄엄띄엄 있다. 북쪽에는 간도(間道)를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2~3곳의 사과 과수원(蘋果園)이 인접해 있다. 주택은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간도의 중앙에서 약 12간(間)<sup>51)</sup>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식 가옥 1채, 조선식 가옥 2채가 있다. 그 주변에 식재된 사과나무는 집의 남쪽 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과 연달아 접해 있다. 과수원 주위에는 갈고리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북동단에서 서북부를 지나 남부 국도에 면한 녹지에는 야생 해당화(薔薇)를 조

51) 1間은 척관법으로 6尺, 미터법으로 약 1.82m이다.

밀하게 심어 울타리로 삼고 있다.

(다) 지질 및 지하수와의 관계 : 지질은 약간 점질의 충적토(沖積土)<sup>52)</sup>이며, 지하수는 지하 평균 1척<sup>53)</sup> 정도의 깊이에 있다. 건조한 날씨에도 상당한 보수력(保水力)을 가진 좋은 토질이다.

(라) 식재 품종 및 수령 : 국광, 홍옥, 왜금, 이와이 등은 각각 10년생이다.

(마) 수목 수량 및 면적 : 국광 205그루, 왜금 208그루, 이와이 33그루, 총 812그루

국광 1정(町) 2무(畝), 홍옥 8반(反) 2무, 왜금 8반 4무 20보(步), 이와이 1반 3무 20보, 총 2정 8반 2무<sup>54)</sup>

(바) 수형 및 수세 : 원추형(圓錐形)<sup>55)</sup>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주간(主幹)<sup>56)</sup> 높이는 왜금이 평균 1장(丈)<sup>57)</sup>, 홍옥, 국광, 이와이는 평균 9척이다. 지상 1~2척 높이에 있는 줄기 둘레는 왜금이 약 2척 내외, 홍옥, 국광, 이와이는 약 1척 7촌 내외로 모든 품종이 수세(樹勢)가 왕성하다.

(사) 수간 거리 : 남북 4간, 동서 3간, 또는 남북 3간, 동서 3간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과수원 주변은 약간 간격을 줄여서 심어져 있다.

포살에 소요된 비용은 이식한 수목 100그루이며 식재 면적이 2정 8반 2무인 점을 고려하여 2정 5반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

52) 침식물로 쌓인 토양.

53) 원문에는 '척(尺)'만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맥상 1尺으로 추정된다.

54) 면적 단위로 사용되었으며 1町(=1町步)은 약 3,000평이다. 1町 = 10反 = 100畝 = 3,000步.

55) 원뿔 모양을 뜻하며 밑부분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면서 끝이 뾰족한 모양이다.

56) 중심 줄기

57) 1丈은 약 3m이며 10尺과 같다.

## 지출 항목

총액: 금액 752원 57전  
(1정(町)당 278원 72전)

## 내역

금액 40원

1921년 가을철 낙엽 이후부터 이듬해 봄까지 심식충의 포살 및 과수원 내 정리에 동원된 인부 100명의 임금과 상여금. 인부는 조선인 여성 및 유년의 남자를 고용함.

금액 162원

청산가리 및 황산 비용

금액 70원

가스 훈증<sup>58)</sup>에 필요했던 30일 동안 인부 100명에 대한 일급이며, 금액 1인당 70전.

금액 41원 7전

석회‘보르도’액(石灰‘보르도’液)<sup>59)</sup> 제조에 사용된 황산동 및 석회 대금이며, 단 3회 살포분.

금액 40원 50전

석회보르도액 살포에 투입된 인부 54명에 대한 임금.

---

58) 훈증이란 밀폐된 공간에 기체 형태의 약제를 주입하여 해충이나 병원균을 죽이는 방제법. 사과 과수원에서 청산가스(시안화수소, HCN)를 발생시켜 면충(綿蟲)과 같은 해충을 퇴치하는 데 활용.

59) 보르도액은 황산동(CuSO<sub>4</sub>, bluestone)과 석회(Ca(OH)<sub>2</sub>)를 혼합해 만든 살균제.

금액 400원

밭아 후, 5월 중순부터 8월 말일까지 총 110일 동안 심식충 및 잎말이벌레(葉捲虫) 포살에 고용된 약 1,000명의 인부에 대한 일급과 상여금.

인부로는 조선인 여성 및 유년의 남자를 고용함.

비고: 가스 훈증 및 약제 살포용 기구류는 기존에 보유 중인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하지 않음.

### 수입 항목

총액: 금액 8,648원<sup>60)</sup>

(1정(町)당 3,418원 40전)

### 내역

금액 2,852원

홍옥 - 2,139관(貫)

금액 1,950원

국광 - 1,500관

금액 2,006원

왜금 - 2,106관

금액 120원

---

60) 각 종류별 수입 금액을 더하면 8,548원이다. 만약 8,548원이 맞다면 순수입(지출 차감 후)은 7,795원 43전이고 정(町)당 순수입은 약 3,117원 44전이고 1그루당 수입 약 10원 95전이다.

이와이 - 120관

금액 1,620원 손상 과실

비고: 상자값, 포장비, 운반비는 제외.

위의 수입 금액 8,648원에서 지출 금액 752원 57전을 차감한 7,895원 43전은 병해충 방제비를 제외한 수입액이다. 이를 정(町)당으로 환산하면 3,158원 17전이다. 재배한 나무 수는 712그루이며 1그루당 수입은 11원 9전이 된다.

## 2) 봉지 씌우기(袋掛)로 구제를 실행한 사례

(가) 방법 : 작은 심식층 및 이와 유사한 해충이 과실에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봉지 씌우기를 시행하였다. 또한 봉지를 씌운 이후에도 포살을 병행함으로써 완전한 과실 수확을 얻었으며 이듬해에도 상당한 결실이 기대되는 사례이다.

(나) 과수원의 위치 : 주택 주변에 위치하며, 남서부에서 북부로 길게 뻗은 불규칙한 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 홍옥만 식재하였다. 남부는 간도(間道)에 접해 있고 철조망으로 만든 울타리가 있다. 기타 주변은 일반 사과 과수원에 접해 있다. 주택은 동서로 길고 남향으로 지어진 일본식 가옥 1채, 그 동쪽에는 서향의 저장고 1채가 있다. 이 과수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동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국광 과수원이 있다. 해당 국광 과수원은 동북부와 서부 일부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간도에 접하고 있다. 주변은 일반 사과원과 복숭아 과수원에 접해 있으며, 두 과수원 모두 인근에 사과 과수원이 인접해 있다.

(다) 지질 및 지하수와의 관계 : 토질은 사질양토(沙質壤土)<sup>61)</sup>

61) 진흙이 비교적 적게 섞인 보드라운 흙.

로, 지하수는 평균적인 깊이에 있으며, 건조한 날씨에도 상당한 보수력(保水力)을 지닌 토질이다.

(라) 식재 품종 및 수령 : 국광, 홍옥 모두 10년생이다.

(마) 수목 수량 및 면적

국광은 510그루, 홍옥은 200그루, 총 710그루

국광은 1정 1반, 홍옥은 4반 5무, 총 1정 5반 5무

(바) 수형 및 수세 : 수형은 원추형의 2단 또는 3단식으로 되어 있다. 주간의 높이는 6척에서 8척, 지상 1~2척 높이에 있는 줄기 둘레는 홍옥이 약 1척 4촌, 국광은 약 1척으로 각 품종 모두 수세는 왕성하다.

(사) 수간 거리

수간은 사방으로 2간 반이지만 원내 및 주위에 다소의 공터가 존재한다. 구제에 소요된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지출 항목

총액: 금액 843원 70전

(1정(町)당 544원 30전)

## 내역

금액 90원

1921년 가을철 낙엽 이후부터 이듬해 봄까지 월동 해충 구제 및 과수원의 정리를 위해 인부 300명의 임금으로 조선인 여성을 고용함.

금액 154원

청산가리 및 황산 비용

금액 40원 50전

가스 훈증에 필요한 일수는 15일간이며 고용된 인부는 조선인 남성 45명, 여성 30명에 대한 임금으로 남성 70전, 여성 30전.

금액 49원

석회‘보르도’액 제조에 사용된 황산동 및 석회 대금이며, 단 2회 살포분.

금액 30원

석회보르도액 살포에 투입된 조선인 남성 30명, 여성 30명에 대한 임금. 남성 70전, 여성 30전.

금액 337원 50정

과실 피복용 삼각 봉지(소형) 45만 개 구입.

금액 112원 70전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14일간 봉지 씌우기에 종사시킨 인부 322명의 임금. 조선인 여성 35명 포함.

금액 30원

봉지 씌우기 후 해충 포살 및 구제 작업에 종사한 인부, 조선인 여성 100명의 임금.

단, 2회 포살분.

비고: 가스 훈증 및 약제 살포용 기구류는 기존에 보유 중인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하지 않음.

## 수입 항목

총액: 금액 8,634원

(1정(町)당 4,452원)

## 내역

금액 2,574원

홍옥 - 1,980(貫)

금액 5,460원

국광 - 4,200관

금액 600원

손상 과실.

비고: 상자값, 포장비, 운반비는 제외.

위의 수입 금액 8,634원에서 지출 금액 843원 70전을 차감한 7,790원 30전은 병해충 방제비를 제외한 수입액이다. 이를 정(町)당으로 환산하면 5,026원이다. 재배한 나무 수는 710그루이며 1그루당 수입은 80원 97전이 된다.

### 3) 포살 구제와 봉지 씌우기 구제의 비교

앞서 서술한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포살 및 봉지 씌우기 구제 모두 재배 수의 숫자에서는 포살 구제 쪽이 겨우 2그루가 더 많았을 뿐이다. 앞서 서술한 수입 총액을 나무 숫자로 나누어 보면 포살 구제는 1그루당 11원 9전, 봉지 씌우기 구제는 10원 97전으로 나타난다. 면적에 대해서는 포살 구제가 1정당

3,158원 17전, 봉지 씌우기 구제가 5,026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형(樹形)을 비교해보면 포살 구제는 일반적으로 대형 수형이며, 봉지 씌우기 구제 쪽은 그에 비해 뚜렷하게 소형 수형이다. 이 외에 이듬해의 결과 상황을 고찰하면 두 과수원 모두 상당한 결실이 예상된다. 그러나 포살 구제 쪽은 숙아내지 않고 손상 과실을 보는 대로 따버리는 관계상, 이듬해의 꽃눈 착생이 봉지 씌우기를 한 경우에 비해 다소 적은 느낌이 있다.

이상은 본래 그 상태를 달리하는 갑, 을 두 곳의 과수원에서 시행된 심식충 구제 결과를 비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곧바로 어떤 것이 좋은지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성적으로 본다면 사과 재배에서 가장 강력한 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심식충도 열심히 방제에 힘쓰다면 퇴치 효과와 재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음을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조사한 자료의 일단을 발췌하여 조선 원예계에 보고하는 바이다.

## 수산시험장 개시에 대해

산업기사(技師) 도가시 쓰네(富樫恒)

관내 수산업자들의 열망과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금품의 기부를 받아들여 도지사는 긴축된 지방비에서 할애하여, 도 수산시험장(道水産試驗場)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공사비는 2만 6천 원, 1922년도 예산은 겨우 3개월간 7,600원에 불과했지만, 수산업을 위해서는 실로 경하(慶賀)를 금할 수 없는 때입니다.

조선에서 수산시험장은 경남 부산에 소재한 국립 시험장을 필두로 강원, 함남, 함북 각 도를 아울러 동해안 일대의 연해 및 서해안의 황해도에 적극적인 장려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반도 수산계에 있어서는 일단의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산업은 1921년 본부(本府)의 산업조사회에 의해서 이미 국책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큰 길이 마련되고 목표가 제시된 것입니다. 별도로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산업자문회를 개설하여 그 큰 길에 침목<sup>62)</sup>을 놓혀 놓고 궤도를 부설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주어진 영역에서 정차장을 선정하고, 화객을 흡수하고 집산에 힘쓰며 ‘시그널’을 세워 통행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실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막 직책을 맡아 그 책임을 지게 된 자라면 숙연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상북도는 육지 면적은 광대하나 해안선의 길이나,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수심 약

---

62) 철도 선로에서 레일(궤도)을 고정하기 위해 가로로 놓는 굵은 나무.

181m<sup>63)</sup>의 해저 면적은 12개 도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연해 1리당 어업자 수, 어선 수, 어획고는 모두 다른 도를 능가하고 있으며, 전체 해안선 54리에서 1921년도의 어획 총액은 486만 원으로, 전 도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정확히 8.5배 증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즉, 바다에서의 생산이 매우 크며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점입니다.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고 게다가 확장개량을 한다면 증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선 분포 수와 같이, 1리당 전도의 평균은 6척인데 비하여 경상북도는 40척이고 이는 일본 평균인 56척에 근접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도 일반 수준을 능가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어업은 미개척 영역, 말하자면 ‘처녀해(處女海)’로 유도하여 어장 확장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소형 배 모양에서 나아가 점차 대형으로 하여 상당한 파고에도 견디며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장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의 동력으로 운반하는 것은 노동력을 절약하고 민첩한 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어업계의 대세에도 순응하는 바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기계의 동력을 갖춘 경상북도의 기선(機船)은 고작 2척에 불과하며, 이는 지나치게 빈약한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한편으로 눈앞의 어업을 바라보면, 현재 결코 그 정점에 도달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남획 등의 사실은 그다지 인정

---

63) 원문에 ‘百尋’이라 기재되어 있다. ‘1尋’은 약 1.81m이므로 ‘百尋’은 약 181m이다.

되지 않기 때문에 어구 및 어법을 공업 방식으로 개량하고 또 수산 자원의 번식 보호를 꾀하는 등 연안 개량에도 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획물의 이용, 즉 제조와 가공 방면에서는 1921년 기준 112만 원에 달하였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9.3배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연하게도 식용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비료로 전락하거나, 조악해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혹은 아예 쓰이지 못한 채 버려지는 잉여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산물의 판로 및 배급 상황 등과 같은 문제는 어업 이익의 증진과 국민 보건상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실제로 정밀한 기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대략적인 전망일 뿐이지만 경상북도의 수산 개량과 발전을 기획하는 데 적어도 긴요한 사항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충실과 설비의 완성을 병행하고 사안의 경중과 전후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실용적인 방향으로 시험 조사를 하며 그 결과는 곧바로 사업화하여 소화하는 것을 주안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양에서의 여러 현상을 관측 조사하여 이를 일반화하여 예단을 하거나 그 밖에도 성질상 단기간에 그 효과를 인지할 수 없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실험을 거듭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단지 실적을 서두르다가 연구를 불철저하게 끝내는 일은 기술 연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상북도 시험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적이고 학술적인 연구 조사는 기관을 정비하는 국립 시험장에 의뢰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도의 시험장과 연계하여 시험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내 동종 기관과의 연결 시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은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요하게 다룬다.

1. 기계 동력에 의한 고등어, 삼치의 어로 시험
2. 청어 서식장 조사
3. 고등어, 청어 및 청어 알 이용 시험
4. 수산물 수급 상황 조사

이와 같이 경상북도 수산상, 지위 특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산 관계상 그대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거나 갖 신설되었기 때문에 직원들 대다수는 경상북도 사정에 정통하지 않고, 경비 또한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료 여러분의 열성과 협력 일치에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본래 수산은 그 자체가 인류, 특히 일본인의 일상생활과 지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매달 식료비로 지출되는 가계부를 들여다본다면 일목요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코 수산만을 위한 수산의 연구·개발이 아니므로, 세상의 여러 군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막 태어난 이 수산시험장을 아껴주고 길러주며 건전하게 성장시켜 주시도록 부디 깊은 동정과 고견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 비서 과장에게 부탁하는 글

칠생생(七生生)

귀하께서는 더욱더 날이 갈수록 건재하시어 우리들의 시험과 목인 수신(修身), 행정, 경제 등에 대해 쉬지 않고 우리 머리 위에다 낙제와 합격 점수를 매기고 계시리라 미루어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채점에 대해서 이의를 아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성가시더라도 거듭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는 우리들이 장래에 벽지를 전전하면서 명사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기회도 없이, 문화 시설도 접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면서 시대의 발전에 뒤처져서 장년인데도 늙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군(郡)과 읍내 곳곳의 조선인 집단지에 흠어져서 오로지 관리가 잘되도록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높고 멀리 떨어진 깊숙한 궁궐에서 두문불출하며 고귀하게 계시기에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위의 수많은 조선인 아동으로부터 감화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바다와 산, 천리 고산(故山)의 문화를 연모하여 저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에 목이 메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주택, 일상품은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출장 가서 부재중일 때 아내와 아이들의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아이들이 복식(複式) 단급(單級)<sup>64)</sup> 소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귀하께 바라는 바는 우리들 가정에까지 깊숙이 그 족적을 남길

---

64) 소규모 학교에서 전교, 전학년의 아이들로 한 학급을 구성하는 경우, 단급복식(單級複式)학급이라 불렀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쟁은 날 때부터 재능이 없어서 사라지는 것도, 부침(浮沈)도 대수롭지 않지만, 우리 동료 중에는 아깝게도 용과 같은 재능을 지니고서도 결국 벽지에서 끝나 버리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장래 사람을 바꾸는 때에는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2년 정도는 대구나 달성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달성이라 말씀드려도 귀하께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겠지만, 우리에게 유렵과 미국에 유학하도록 명받은 것처럼 환희와 감격으로 벅차오르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애를 유학하는 곳에서 끝내고자 하는 탐욕이 아닙니다. 2, 3년 후에는 다시금 제2회 유학생에게 양보하고 고만조만 귀국하고자 합니다. 귀하께 바라는 바는, 깊이 생각하시어 상사로서 보필하는 중대한 임무를 다하시는 것입니다.

송구스러움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 경주와 교재 연구(1)

- 보통학교용 교과서에 실린 내용 -

## 경주공립보통학교장 오사카 긴타로(大阪金太郎)

현재 보통학교용 교과서에 경주에 관한 교재는 『국어독본』 4권에 두 곳, 『조선어 및 한문 독본』 5권에 일곱 곳, 『조선어 및 한문 독본』 6권에 한 곳이 실려있다. 이러한 교재는 모두 신라시대의 전설이나 사실(史實)에 속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그 유적도 현재 경주 부근에 있으므로 흥미로운 서술의 배경을 만들며 내용을 보다 더 재미있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교재에 서술된 신라의 유래를 자세히 살펴보고 더불어 이와 관련된 유적의 상황을 서술함으로써 수업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1. 박혁거세

조선어 및 한문독본 5권 제16과

#### 교재

본 과에 실린 기사(記事)<sup>65)</sup>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 시조 항목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始祖姓朴氏，諱赫居世，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四月丙辰(一曰正月十五日)即位，號居西干，時年十三，國號徐那伐，先是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爲六村一曰闕川楊山村，二曰

---

65)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突山高墟村, 三曰觜山珍支村(或云干珍村), 四曰茂山大樹村, 五曰金山加利村, 六曰明活山高耶村, 是爲辰韓六部, 高墟村長蘇伐公, 望楊山麓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嶷然夙成, 六部人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立爲君焉, 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 故以朴爲姓, 居西干辰言王(或云呼貴人之稱)

시조의 성은 박(朴)이고, 이름은 혁거세(赫居世)이다. 전한 효선제(孝宣帝) 오봉(五鳳) 원년 갑자년 4월 병진일(丙辰日)(일설에는 정월 15일이라고도 한다)에 즉위하여 호칭을 거서간(居西干)이라고 하니, 이때 나이가 13세였다. 나라 이름은 서나벌(徐那伐)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朝鮮)의 유민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살면서 6촌(六村)을 이루고 있었는데, 첫째는 알천(闕川) 양산촌(楊山村), 둘째는 돌산(突山) 고허촌(高墟村), 셋째는 취산(觜山) 진지촌(珍支村)(혹은 간진촌(干珍村)이라고도 한다), 넷째는 무산(茂山) 대수촌(大樹村), 다섯째는 금산(金山) 가리촌(加利村), 여섯째는 명활산(明活山) 고야촌(高耶村)으로, 이들이 바로 진한(辰韓)의 6부이다. 고허촌의 우두머리인 소벌공(蘇伐公)이 양산의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蘿井) 옆 숲속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래서 가서 살펴보니 홀연히 말은 보이지 않고, 단지 큰 알이 있었다. 알을 깨뜨리니 어린아이가 나왔다. 이에 거두어서 길렀는데, 나이 십여세가 되자 쑥쑥 커서 남들보다 일찍 성인의 모습을 갖추었다. 6부의 사람들이 그 탄생이 신비롭고 기이하다고 하여

떠받들었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진한 사람들이 표주박(瓠)을 일컬어 ‘박’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에 큰 알이 표주박처럼 생겼으므로 이로 인해 ‘박’을 성으로 삼았다. 거서간은 진한 말로 ‘왕’이라는 뜻이다. (혹은 귀인을 부르는 칭호라고도 한다.)<sup>66)</sup>

독본에서는 ‘조선유민(朝鮮遺民)’을 단지 ‘민(民)’으로 표기하고 있다. 조선유민이라 함은 기자조선(箕子朝鮮)으로 추정되며, 기자조선이라 추정하면 신라는 한민족(韓民族)...남방민족...이 세운 것이 아니게 되어 사실(史實)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아져 근본적으로 큰 오해를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조선유(朝鮮遺)’ 세 글자를 삭제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독본에는 6촌의 촌명을 생략하였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보아...본교를 비롯해...역사수업과 더불어 가르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6부는 후에 6성<sup>67)</sup>...이, 최, 손, 정, 설, 배...가 되며 그 자손이라 칭하는 자들도 현재 그 지방에 다수 거주하므로 학생들도 큰 흥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 내용

이 기사는 신라 3대 전설의 하나인 신라 개국에 대해 전해 내

---

66) 삼국사기 한국어 번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사료DB 참고.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sg\\_001r\\_0020\\_0010](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sg_001r_0020_0010))

67) 양산부(楊山部)는 양부(梁部)라 하고 성(姓)은 이(李)로 하였으며, 고허부(高墟部)는 사랑부(沙梁部)라 하고 성은 최(崔)로 하였다. 대수부(大樹部)는 점량부(漸梁部)(혹은 모량부(牟梁部))라 하고 성은 손(孫)으로 하였으며, 간진부(干珍部)는 본피부(本彼部)라 하고 성은 정(鄭)으로 하였다. 가리부(加利部)는 한기부(漢祗部)라 하고 성은 배(裴)로 하였으며, 명활부(明活部)는 습비부(習比部)라 하고 성을 설(薛)로 하였다. (우리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o100250&code=kc\\_age\\_10](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o100250&code=kc_age_10))

려온 내용으로, 보통 ‘나정(蘿井)<sup>68)</sup>의 전설’이라고 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신라의 개국은 전한(前漢) 오봉(五鳳) 원년이므로 진무(神武)<sup>69)</sup> 기원(紀元) 604년 스진천황(崇神天皇) 41년, 서력 기원 56년에 해당한다...다만 이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당시 경주를 중심으로 여러 골짜기에 흩어져 살던 이른바 한민족들은 한편으로는 동쪽의 증식 발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족과의 관계 때문에 국가조직의 필요를 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날 명활산(明活山) 아래 알천(闕川) 강변에서 동쪽 대화합의 장을 열었던 것이다. 그토록 넓은 알천 강변을 예상외로 백의의 백성들이 가득 메운 것을 보고, 발의자인 양산 촌장은 천천히 일어나

“우리 천강민족(天降民族)은...6부의 시조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다...오랫동안 동쪽 끝이 천혜의 땅에서 도원(桃源)을 꿈꾸었으나 시대의 추세는 이미 각자 분립의 상태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서 온갖 어려움을 물리쳐 6부의 대화합을 이루고, 이로써 권위 있는 한 국가를 조직하여 영원한 자손 번영의 경사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천강민족 화합의 필요를 부르짖었다.

대중의 의견에 물론 이견이 있을 리 없었다. 6부 연맹은 환호 속에서 순조롭게 성립을 고했다. 그러나 그 맹주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각 부족들이 자신들의 촌장을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돌산 고희 촌 촌장...최씨의 시조...의 심모원려(深謀遠慮)<sup>70)</sup>한 제안을 기초

68)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나온 알이 그 곁에 있었다고 하는 전설상의 우물로, 경주 양산에 있었다고 한다.

69) 진무천황(神武天皇)은 일본의 1대 천황으로 여겨지는 신화 상의 인물.

70) 깊이 생각하여 낸 꾀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

로 한민족과 관계 깊은 지역에서 혁거세라는 한 위인을 맞이하여  
군주로 받들게 되면서 신라라는 나라가 탄생한 것이다. 삼국유사  
에는 이 일을 더욱 흥미로운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

“...전략...전한(前漢) 지절(地節)<sup>71)</sup> 원년 임자 3월 초하루, 6부  
의 선조들이 각각 자제를 이끌고 모두 함께 알천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에게 위로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임금이 없어  
백성들이 모두 제멋대로 원하는 바를 쫓을 뿐이니 어찌 덕이 있  
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를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이때 모두 높은 데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밑 나정(蘿井) 옆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웬 흰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그곳을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가 있고 말  
은 사람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뿜으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쪼개 보니 형용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이가 있었다.  
놀랍고도 이상하여 아이를 동천(東泉)에서 목욕을 시키자 몸에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모조리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게 빛났다. 따라서 혁거세왕이라 이름하고...운운”

본래 일종의 구비 전설을 신비화한 것이지만 왕으로 추대한 사  
정이나 이를 위해 채택한 형식은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6부 백성의 회합과 같이 신라는 후세에 이르기까지 국  
가의 중대한 일들은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거쳐 결정하게  
되었다. 신라의 화백(和白)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sup>72)</sup>

---

71) 중국 전한 선제 때의 두 번째 연호(B.C.69~B.C.66).

72) 신라 때에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하던 회의 제도. 의결 방법은 만장일치제로,  
처음에는 경주의 육촌(六寸) 사람들의 회의였으나 뒤에는 진골 이상의 귀족  
회의로 변하였다.

## 유적

### 1) 혁거세 왕릉 및 재실

왕릉은 경주 남쪽으로 약 20정(町)<sup>73)</sup> 떨어진 남천의 왼편 언덕에 있다. 원형의 봉토 무덤으로 옆에 왕비와 제2대 남해왕릉, 제3대 유리왕릉, 제5대 파사왕릉도 있다. 이른바 오릉(五陵)이라 불리는 것이 이 능묘이다. 광대한 소나무 숲 가운데 높고 낮은, 크고 작은 능묘가 낮은 토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능묘 앞 커다란 건물은 송덕전으로 혁거세왕의 재실이다. 건물 안에는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에 세운 비석이 있다.

### 2) 나정

경주에서 약 1리(里)<sup>74)</sup>, 오릉에서 남쪽으로 약 56정(町) 떨어진 곳에 있다. 일대가 구릉지로 오래된 소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있다. 그 안쪽에 비각(碑閣)<sup>75)</sup>이 있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세운 비석이 있다. 시조 발상의 유래가 상세히 적혀있다.

### 3) 육촌(六村)

삼국유사와 『동경잡기(東京雜記)』<sup>76)</sup>에 따르면, 알천 양산촌은

---

73) 일본 에도시대부터 사용된 거리 단위로, 1町은 약 109m이다. 따라서 20町은 약 2,180m이다.

74) 한국에서 1리(里)는 약 400m지만 일본에서는 약 4km이다.

75) 비를 세우고 비바람 따위를 막기 위하여 그 위를 덮어 지은 집.

76) 동경(東京)은 고려 때 경주의 별칭이다. 작자 미상으로 전부터 전해오던 『동경지(東京誌)』를 1669년 민주면이 이채 등과 함께 편집, 보완하여 『동경잡기』라고 개칭, 간행하였다. 이것을 1711년(숙종 37) 남지훈이 첨보(添補)하여 재간하고, 1845년 성원목이 다시 증보, 정정하여 중간하였다. 1910년 조선고서간행회가 성원목의 판본을 인쇄본으로 간행하였고, 1913년 최남선이 주관하던 조선광문회가 이것을 또 활자본으로 중간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6198>)

현재의 경주면, 돌산 고허촌은 현재 내남면, 무산 대수촌은 현재 서면, 취산 진지촌은 현재 외동면, 금산 가리촌은 현재 양남면, 명활산 고야촌은 현재 천북면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양산촌은 후에 이씨가 되고 고허촌은 최씨, 대수촌은 손씨, 진지촌은 정씨, 가리촌은 배씨, 고야촌은 설씨가 되었으므로 이 지방에는 지금도 그 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 4) 알천

알천은 경주군 동쪽 산마루에서 발원하여 읍 북쪽을 흘러 현곡면 금장리에서 서천과 만난다. 길이는 약 5, 6리이며 현재는 북천 혹은 동천으로 불린다. 알(闕)은 신라어로 아리(阿利)라 발음된다는 것이 삼국사기 지리지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아리천(阿利川)은 앞서 말한 강을 의미한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아리나례하(阿利那禮河)라는 것이 이 알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 5) 명활산

경주읍 동쪽 약 1리 떨어진 곳에 있다. 이른바 신라 3악(岳)의 하나로 산성이 있다.

#### 6) 양산

경주읍 남쪽에 있는 남산을 말한다. 험벗고 바위가 많은 산이다. 산성이 있다. 이 산은 예부터 '경주의 옥'이라 불리는 수정이 산출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 도쿄를 유람하다

황기중 (봉화)

어제는 시바조노(芝園), 오늘은 우에노(上野).  
정자와 관청의 누각이 삼(麻)처럼 줄지어 곧게 솟았구나.  
수많은 집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섬과 바다를 따라 이어지고,  
삼춘(三春)의 화창한 기운은 피꼬리와 꽃을 무르익게 하는구나.  
남방의 문명은 이다지도 융성하고,  
동양의 인물들은 이 가운데 가득하도다.  
우리들이 먼 길 떠나 타국을 건너온 까닭은 무엇이라?  
다만 풍속을 살피고 한 곡조 읊조리려 함일 뿐이라.

翫東京

昨上芝園今上野。亭坵館閣立如麻。萬戶浮烟連島海。三春和氣  
老鶯花。南國文明如許大。東洋人物此中多。吾人遠涉魯何事。  
只爲觀風一唱歌。

## 거지의 생활을 답사하고

경북구제회(慶北救濟會) 후지이 주지로(藤井忠治郎)

드문 폭설이 내리고 며칠 지난 1월<sup>77)</sup> 23일 오후 11시에 맞추어 필자는 대구 시내의 밑바닥 생활자들이 사는 곳을 답사하기 위해 불과 2~3일 전까지 같은 거지 그룹의 한 명이었던 경북구제회 아이의 안내로 집을 나섰다. 눈이 녹은 진흙 위에 얇은 막처럼 덮인 얼음에 번번이 발이 빠져 정수리까지 진흙 세례를 받았다. 오후 11시 40분에 우선 서문(西門) 파출소를 방문해 시내의 거지 소굴로 불리는 파출소 관할 내 서문시장 부근까지 안내를 청했다. 필자의 이 조사에는 대구경찰서도 호의를 베풀어 서문파출소에 미리 통지했기 때문에 당번인 조선인 순사가 마음씨 좋게 안내해 주었다.

### 자동차 차고에서

서문시장을 서쪽으로 빠져나가면 하나는 현풍가도(玄風街道), 또 하나는 효령가도(孝靈街道)로 나뉘는 3차로가 나온다. 그 분기점에 ‘창녕 자동차부’의 차고가 있다. 길을 잘 아는 조선인 순사는 먼저 여기로 안내해 주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암흑이었다. 초롱불 빛을 비추니 진흙투성이가 된 대형 택시가 덩그러니 있을 뿐 그 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아무도 안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자니 가까운 곳에서 부스럭부스럭 지푸라기 소리가 났다. 놀라서 초롱불을 비춰 보니

---

77) 1923년 3월호(7권)에 게재된 것을 고려하면 1923년 1월로 추정된다.

뜻밖에도 흙바닥에 짚을 깔고 벚섬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처럼의 단잠인데 불쑥 들이닥친 손님 때문에 잠이 깬 그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초롱불을 끄뻑이며 바라보았다. ‘눈이 이상한 남자구나’라고 생각하며 잘 살펴보니 그는 맹인이었다. 올해 35살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행려병(行旅病)<sup>78)</sup>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완치될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한 달 정도 전에 수용소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그가 하는 말에 따르면 지난번에 폭설이 내리고 나서 나돌아다니지도 못해 3일 전부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한다.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다. (이 일이 있는 지 2일째 그는 순사와 함께 경북구제회에 왔고 지금도 수용하고 있다)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지 물어보니 작년 여름부터라고 대답했다. 직업도 없고 맹인에다가 간질(癎疾)도 있어서 너무나 비참했다. 이 맹인과 헤어진 후 원래 왔던 길로 시장으로 돌아가 여기저기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보았지만 어떤 쓰레기통에도 사람 그림자는 없었다.

## 온돌 아궁이에서

쓰레기통 안에서는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주막과 음식점 온돌 아궁이에는 두세 명씩 강아지처럼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 있거나 길게 방고래(煙溝)<sup>79)</sup>에 기어들어가 따듯한 잿더미 속에 몸을 파묻고 코를 골고 있었다. 뜻밖의 방문에 잠이 덜 깬 채 눈을 비벼서 얼굴 전체가 새까만 이, 놀라서 방고래 속 깊이 들어가 나오지 않는 이 등 참으로 안쓰러웠다. 김달영(金達永)이라는 소년에게 나이를 물어봤더니 13살이라 했다. 고향은 대구 남산정

---

78) 부랑자로 떠돌아다니다가 앓는 병.

79)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 불길과 연기가 통하여 나가는 길.

(南山町)이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는 있다고 했다. 그럼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더니 어머니에게 혼 나서 도망쳐 나온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세 곳에서 이와 같이 대여섯 명의 집 없는 거지를 발견했다. 이후 안내해 준 조선인 순사와 헤어졌고 필자가 데려온 경북구제회 아이의 안내로 유곽 부근에 갔다. 시계를 봤더니 오전 1시였다. 환락의 거리도 고요히 얼어붙은 듯 잠들어 있었다.

### **뱀의 길은 뱀이 안다.<sup>80)</sup>**

어두운 거리를 한두 번 꺾어 금정(錦町)으로 나왔다. 안내하는 아이가 가리키며 “여기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봤더니 검은 나무 벽에 검은 문이 있는 집이었다. 초롱으로 문패를 비춰 보니 스기하라 상점(杉原商店) 합숙소라고 쓰인 문패가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취사장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한 평 남짓한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어른이며 아이며 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깔지 않고 옷만 입은 채 코를 천둥소리처럼 골며 자느라 아무도 필자의 방문을 모르고 있었다. 구석 쪽을 봤더니 흙바닥을 살짝 파서 숯불을 떴고 있었다. 모처럼의 잠을 깨우는 것도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돌아가는 것도 유감스럽고 안쓰러워 불러 깨웠다. 개중에는 필자를 형사라고 생각하기라도 한 건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자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7명 가운데 반(半) 거지가 2명 있었다. 2명은 담군(擔軍)과 거지를 겸하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처지와 사정을 물었다. 그 가운데 이

---

80) 같은 취미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기만 해도 쉽게 알아본다는 뜻.

갑산(李甲山)이라는 소년은 고향인 경주에서 부모를 찾아 대구에 왔는데 폭설 때문에 사흘 전부터 어쩔 수 없이 거지 무리에 들어갔다고 했다. 필자는 소년에게 경북구제회에 오면 언제든지 기쁘게 환영할테니 내일이라도 오라고 말한 후 일동과 헤어졌다. 그 후 원정(元町)으로 나왔는데, 어디선가 시계가 2시를 알렸다. 대구 역 앞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12간 도로 남쪽에 있는 조선은행 지점 바로 뒤까지 왔다.

## 거지 숙소

안내하는 소년이 “여기도 있다”고 해서 네 척(尺)이 채 안 되는 낮은 처마 밑으로 몸을 숙여 아무것도 둘러친 것이 없는 취사장을 들여다보니 네 명의 거지가 온돌 아궁이에 발을 넣은 채 좁쌀 포대나 멍석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온돌방 문을 열어 보니 천장이 매우 낮은 실내에 8명의 거지가 뒤엉켜 자고 있었다. 방 넓이는 1평이 안 되는 넓이였다. 이것저것 조사하고 있으니 옆 방에서 나이 오십 전후의 노파가 나와서 “뭘 조사하려는 거요?”, “어디에서 왔수?” 하며 물었다. 노파의 말에 따르면 옆의 온돌방은 6명의 거지에게 월 2원에 방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지들이 받아오거나 훔쳐 온 쌀로 밥을 지어 주고, 자기 부부도 함께 먹는다고 한다. 즉 거지들이 먹여 살려주고 있는 셈이다.

## 장물의 중개

이 숙소에 지숙(止宿)하는 거지들이 여기저기서 훔쳐 온 장물을 숙소 할아버지가 중개해 고매(故賣)<sup>81)</sup>한다고 한다. 이곳을 나

---

81) 도둑질이나 강도, 사기 등의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을 내다 팔.

와서 동성정(東城町) 방면으로 가려고 했지만, 진창을 무턱대고 걸어 다닌 탓에 신발 속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흡입 펌프처럼 흙탕물이 들락날락하고 무릎 위까지 감각이 없어서 잘못하면 허기와 추위에 당할 것만 같아서 나머지 장소는 후일로 미루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도중에 첫닭이 여기저기서 울었다.

## 거지의 수

이날 밤 필자가 조사한 거지 수는 다음과 같다.

연령	인원
11세	1명
12세	2명
13세	5명
14세	6명
15세	4명
17세	4명
18세	1명
35세	1명
총수	24명 (전부 남자)

부모의 유무는 다음과 같다.

부모 없는 자	11명
부모 있는 자	6명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없는 자	5명
불명	2명
경북구제회가 한 번 이상 수용한 적 있는 자	5명

구걸 생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년 이상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자	3명
반년 이상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자	6명
한 달 이상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자	11명
한 달 이하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자	4명

출신지별(郡別)<sup>82)</sup>로 보면 다음과 같다.

현풍	2명	경주	3명
대구	2명	경산	3명
부산	1명	안동	1명
상주	3명	불명(不明)	9명

거지가 된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부모나 형제에게 꾸중을 들어 가출한 자	3명
일이 없어서 거지가 된 자	2명
병 때문에 거지가 된 자	1명
부모나 친척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	18명

교육의 정도

보통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자	없음
한글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자	4명
한자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자	1명
기타	불명

그들의 직업과 부업 및 임금은 다음과 같다.

- 1) 활동사진(活動寫眞) 깃발 들기와 전단지 배포 : 하루 15

82) 원자료에는 '군별(郡別)'이라고 적혀 있으나 부산은 군이 아니기에 위와 같이 바꾸어 옮겼다.

전~20전

- 2) 장례식 깃발 들기와 초롱 들기 : 하루 15전~20전. 장례식 깃발 기수는 묘지와 화장터에서 술값을 강요해 약간 받음.
- 3) 굴껍질 줍기
- 4) 판자 조각, 석탄, 목탄 줍기
- 5) 날치기

위와 같은 부업이 있는 데다가 매우 방탕해서 어엿한 한 사람으로서 향상하고 진보하려는 정신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몸과 마음 모두 밑바닥 생활자가 되어 버려서 규율 등에 구속받는 것을 못견디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구걸을 사흘 하면 그 맛을 잊지 못한다”라는 말은 분명 이러한 심리를 일컫는 것이다.

## 권업과 통신

### ▲ 농회사무 주관(主管) 이동(異動)

1920년도부터 권업과 주관에 속해 있던 농회사무는 1923년 1월부터 농무과 주관으로 변경되었다.

### ▲ 사무분장 개정

상공(商工) 사무담당자인 시로시타(城下) 도속(道屬)이 고령군으로 전출되고 임업계에는 다부치(田淵) 도속, 수산계에는 아가타(縣) 도속이 배치됨에 따라 과내 사무분장이 개정되었다. 즉 시로시타 도속의 후임인 구리모토(栗本) 도속은 상무(商務)를, 쇼지(庄司) 도속은 공무(工務)를 분장한다.

### ▲ 마루타(圓田) 과장 출장

하타(秦) 내무부장은 포항과 하마다(濱田) 사이의 직항로 개시 문제를 비롯하여 실업교육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1922년 12월 26일부터 16일간 예정으로 야마구치(山口), 시마네(島根), 돗토리(鳥取),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오카야마(岡山)현에 출장 중이었다. 또한 마루타 권업과장은 1월 10일 공업교육기관을 조사하기 위해 경성, 평양, 진남포, 신의주 방면으로, 시로시타 도속은 1월 4일부터 12일간의 예정으로 출장 중이었다. 이들은 상공정(商工政) 분야의 유익한 자료를 조사하고서 모두 1월 15일에 귀청(歸廳)하였다.

### ▲ 1923년도 지방비 사업

해마다 높아지는 산업 기운과 일전에 개최된 산업자문회의의 결과로 1923년도 지방비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요구했으나 아쉽게도 지방비 총세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불운하게도 대부분은 삭감될 듯하다. 그렇지만 권업과는 사업의 완급을 도모하면서 모두 통과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 ▲ 수산시험장 사무 개시

사무소가 완성되기 전에 소장과 일부 직원이 임명되었기에 곧 영일군 어업조합 건물을 차입하여 사무 개시를 하고자 현재 부지런히 준비 중이다.

### ▲ 도량, 형기(衡器)<sup>83)</sup> 공동구입 알선

가정에 도량, 형기가 없어서 주부들이 계량 관념이 없는 것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공통으로 지니는 결점이다. 이 때문에 왕왕 나쁜 상인에게 당하거나 경제적이지 못한 지출을 하는 자가 적지 않다. 이에 계량기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부의 각 관공서와 은행, 회사에 공동구입을 알선하였더니 모두 반겨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청어 어황

영일만을 중심으로 청어를 잡는 주요 어구(漁具)는 호망(壺網)<sup>84)</sup>, 각망(角網)<sup>85)</sup>, 낙망(落網)<sup>86)</sup>, 거휘리망(擧揮羅網)<sup>87)</sup> 등이

---

83) 길이, 부피, 무게 따위를 재는 자, 되, 저울 등의 기구를 일컫는다.

84) 물고기가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움푹하게 파놓은 소형 그물망.

다. 1922년 12월 20일부터 1923년 1월 말일까지 청어 어획고는 18,000동(同)(1동은 2,000마리)이었고 금액은 594,000원에 달했다. 1동의 시세는 최고 150원부터 최저 30원으로 낮아지나 올해는 불황인 탓에 생선값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풍어였던 전년과 흉년을 비교하면 상당히 번성한 것이다. 어획물은 생선 그대로 조선 혹은 일본으로 이송, 배급되고 있다.

### ▲ 어업조합 공동판매

신설된 구룡포 어업조합은 1922년 12월 16일부터 공동판매를 개시하여 1923년 1월 25일에 이르러서는 총매상이 4,569원에 달했다. 본 시설에 대한 조합원 및 중개인의 이해는 높은 편으로 크게 장래를 촉망받고 있다.

### ▲ 울봄 식림 전망

울봄 경상북도에 심을 예정인 나무는 15,550,000그루의 흑송을 필두로 적송, 주목, 밤나무, 낙엽송, 물오리나무, 미루나무, 포플러나무, 아까시나무 등이다. 이를 합하면 25,650,000그루로 그 가운데 경상북도에서 나는 묘목은 약 20,000,000그루이며 다른 지역에서 6,000,000그루 이상을 공급받는다. 이 이입되는 묘목으로 인해 입는 직간접 손실은 막대하여 몇 년 전부터 당국이 목이 쉴 정도로 자급자족에 힘쓰고 있다. 1926년이 되면 대략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미리 기대하고 있다.

---

85) 본 그물과 물고기를 본 그물 쪽으로 유도하는 데 쓰는 보조 그물로 구성된 그물망.

86) 물고기를 유도하여 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잡는 그물망.

87) 고기 떼를 그물로 둘러싸고 몰아넣어 배에서 끌어당겨 올려서 잡는 그물망.

불국사를 유람하다.

홍승균 (경성)

나도(羅都)에서 옛 자취를 찾는다.  
국사(國寺)의 이름이 어찌 이리도 높은가.  
열어붙은 눈이 산길을 묻고,  
겹겹의 구름은 돌문을 가린다.  
소나무는 말라 백 척의 뼈만 남고,  
불로(佛老)는 천 년 동안 영혼을 지냈다.  
서글프다 흥망의 일들이,  
황량한 비석에서 글의 흔적을 읽는다.

# 취보

## 산업 계획 요강

먼저 경상북도 산업자문회 자문을 거친 경상북도 산업계획 요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농업에 관한 건

#### 一, 토지개량에 관한 건

- ① 경지 확장, 개량을 도모할 것.
- ② 기존 논의 관개 시설 개선을 장려할 것.
- ③ 관개 설비 개선과 함께 습답(濕畓)<sup>88)</sup> 저수답(畓) 등에 대한 배수를 장려할 것.
- ④ 토지개량 사업 장려를 돕기 위해 수리(水利)에 관한 조사를 중심으로 시행할 것.
- ⑤ 사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을 증액할 것.
- ⑥ 토지개량사상 보급을 도모할 것(산업지식 보급 향상에 관한 건 및 계획서에서 다룸).
- ⑦ 댐의 보에서 이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계를 조직하게 하고 군농회가 이를 보호하고 지도 감독하게 할 것. 또한 이미 개수한 댐의 보에 대한 유지 관리는 물론 장래 개수에 필요한 자금의 적립 등을 하게 할 것.

#### 二, 산미에 관한 건

- ① 논을 확장, 개량할 것(토지 개량 부분에서 다룸).

---

88) 물이 항상 있거나 물을 댄 수 있는 논.

② 경종법을 개량할 것.

가) 논벼 우량품종 종자 갱신 및 새로운 우량품종 선출 등 품종 개량을 할 것.

나) 논벼 우량품종 종자 갱신에 필요한 계통적 채종답(採種畝)<sup>89)</sup>을 마련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것.

다) 밭벼 재배 장려, 비료 증산, 병충해 구제 예방, 선종(撰種)<sup>90)</sup>, 직사각형 못자리 및 정조식(正條植)<sup>91)</sup> 보급, 그 외 재배법 개량을 장려할 것.

라) 피 뽑기 및 수확 적기 지키기, 건조 및 조제 개량을 장려할 것.

마) 현미 조제 보급, 개량을 장려할 것.

바) 산미 개량을 도모하기 위해 벼 검사를 시행할 것.

사) 경종법 개량에 관한 기초적, 응용적 시험, 조사의 철저를 기할 것.

③ 저장법 및 판매 습관을 개량할 것.

가) 벼 저장법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곡식을 저장해 두는 습관을 위해 농가에 자가용 창고 및 소농 공동 창고 설치를 장려할 것.

나) 쌀 저장, 보관, 금융 및 공동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창고 설치를 장려할 것.

④ 산미 개량 증식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 기관을 설치할 것.

### 三, 쌀 이외 주요 식용작물에 관한 건

① 우량품종 종자 보급, 새로운 우량품종 선출 등 품종 개량을 할 것.

---

89) 벼씨를 받기 위해 특별히 경작하는 논.

90) 씨 뿌리기 전에 불량한 종자를 거르고 좋은 종자만 골라내는 작업을 일컫는다.

91) 간격을 고르고 줄이 바르게 모를 심는 것.

- ② 우량품종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계통적 채종전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것.
- ③ 비료 증산, 병충해 구제 예방, 선종, 이모작, 기타 재배법 개량을 장려할 것.
- ④ 경종방식 개량을 장려할 것.
- ⑤ 판매 방법을 개선할 것.
- ⑥ 경종법 개량에 관한 기초적, 응용적 시험, 조사의 철저를 기할 것.

#### 四, 특용작물에 관한 건

- ① 특용작물은 기후, 풍토 및 농업조직이 어떠한지에 따라 저절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견실히 그 향상, 발달을 도모할 것.
- ② 우량품종 보급, 새로운 우량품종 선택 및 종묘를 육성 배부할 것.
- ③ 경종법 개량 및 거름을 많이 주도록 장려할 것.
- ④ 특용작물, 그중에서도 제마(製麻)<sup>92)</sup> 방법 개량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적인 설비를 마련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것.
- ⑤ 가공 전습생 양성, 저리의 자금 융통 및 생산품 공동 구매를 알선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것.

#### 五, 원예작물에 관한 건

##### 갑) 과수

- ① 우량 과수 보급 및 우량품종 선택, 묘목 공급을 도모함으로

---

92) 삼실로 삼베를 만드는 것.

써 해당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킬 것.

- ② 기존 과수원을 정리함으로써 품질 및 생산 향상을 도모할 것.
- ③ 과수 병충해 구제 예방을 철저히 할 것.
- ④ 원예에 관한 연구 기관의 충실을 도모할 것.
- ⑤ 과물 동업조합의 보호 및 충실을 촉진하고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길을 강구할 것.
- ⑥ 과수 원예에 관한 지식 향상 또는 고무, 격려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촉구할 것(산업지식 보급 향상에 관한 건 및 계획서에서 다룸).

(을) 채소

- ① 우량품종 선택 및 종자 공급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량을 촉구할 것.
- ② 축성 재배<sup>93)</sup> 발달을 도모할 것.
- ③ 재배법 개량 및 병충해 구제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 ④ 판로 조사 및 확장을 도모하여 해당 산업의 발달을 촉구할 것.

## 六, 비료에 관한 건

- ① 자급 비료 개량 증식을 한층 더 철저하게 장려할 것.
- ② 화학비료 사용 장려 및 공급 방법 개선을 도모할 것.
- ③ 자급비료 개량, 증식 및 화학비료 보급 장려에 필요한 시험 조사를 할 것.
- ④ 거름주기에 관한 일반 지식 향상을 도모할 것(산업지식 보급 향상에 관한 건 및 계획서에서 다룸).
- ⑤ 화학비료 사용 증가에 따른 부정 비료를 방지하기 위해 비료 단속법을 강구할 것.

---

93)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사용하여 빨리 자라게 하는 재배 방법.

## 七, 새끼줄 가마니에 관한 건

- ① 새끼줄 가마니 장려에 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시설 계획을 세워 부업으로서 견실한 발달을 기할 것.
- ② 새끼줄 가마니 품질 개선을 도모할 것.
- ③ 검사기관 충실을 도모하고 품질 통일과 향상을 촉구할 것.
- ④ 새끼줄 가마니 판매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견실한 발달을 촉구할 것.
- ⑤ 적당한 시기에 새끼줄 가마니 생산 판매 조합 설립을 촉구할 것.

## 八, 농업기구 및 기계 등에 관한 건

- ① 벼 조제 개량용 기구류의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산미 개량에 도움을 줄 것.
- ② 농기구, 소형발동기 보급을 촉구함으로써 노동력 조절과 농촌 기업을 조성할 것.
- ③ 일반 개량 농기구 보급을 촉진하고 농가 형제 향상을 기할 것.
- ④ 축우의 여력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것.

## 九, 소농 보호에 관한 건

- ① 소농 경제 및 관행, 소작법을 조사함으로써 소농보호 확립에 도움을 줄 것.
- ②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친밀히 하고 토지에 대한 양자의 이해를 공평하게 함으로써 소농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 ③ 노동력 이용과 소비 절약을 권장함으로써 소농 보호에 일조할 것.
- ④ 생산에 필요한 원료 구입 및 농산물 저장 보관 및 판매 조

직 개선을 도모할 것.

- ⑤ 국유 미간지 이용을 권장할 것.
- ⑥ 성실하고 인정이 두터운 자를 고를 것.
- ⑦ 일반적인 지도, 장려를 하여 경제 향상을 도모할 것.
- ⑧ 저축 장려 및 저리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할 것(금융 부분에서 다룸),

#### 十, 농업 연구 및 장려 기관에 관한 건

- ① 도(道) 종묘장 설비를 충실히 함으로써 연구 및 조사상 유감스러운 점이 없도록 할 것.
- ② 면(面), 부(府) 기술원(員)을 충실히 함으로써 면 산업의 철저한 장려를 도모하고 또한 벼 검사 기관의 역할을 하게 할 것.
- ③ 도 및 군도(郡島) 농회 보호 및 충실을 도모함으로써 독립 활동을 촉구할 것.
- ④ 과물동업조합 보호 및 충실을 도모함으로써 독립 활동을 촉구할 것.
- ⑤ 미곡 및 대두검사 기관 설비를 충실히 하고 벼 검사와 더불어 유입출 곡물의 개량을 도모할 것.
- ⑥ 특수농사회사 설립을 촉구함으로써 농업의 경제적 방면의 기관 역할을 하게 할 것.
- ⑦ 농촌모범 부락을 설치하거나 지방 특농가를 선도하여 하나의 장려 기관 역할을 하게 할 것.
- ⑧ 면 권업장려 성적 품평회를 개최할 것.

#### 十一, 목화에 관한 건

- ① 작부(作付)<sup>94</sup> 확장을 장려할 것.

- 가) 경지 확장을 도모할 것(토지 개량 부분에서 다룸).
- 나) 목화 재배자 한 가구당 경작 반별(反別)<sup>95)</sup> 증가를 도모할 것.
- 다) 목화 재배자 호수 증가를 기할 것.
- 라) 경제적인 재배법 그중에서도 맥간(麥間) 작법<sup>96)</sup>을 장려할 것.
- 마) 각지에 면 사업으로서 다수확 및 모범 채소밭 등을 설치할 것.
- 바) 경작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할 것(금융 부분에서 다룸).
- 사) 운송교통기관 완성을 촉구할 것(교통 부분에서 다룸).
- ② 집약재배를 장려하고 반(反)<sup>97)</sup>당 수확량 증가를 도모할 것.
- 가) 지도 리동(里洞)을 설치하여 일반에게 집약재배 모범을 보일 것.
- 나) 비료 사용을 늘이도록 도모할 것(비료 부분에서 다룸).
- 다) 간혼작(間混作) 정리를 하게 할 것.
- 라) 부녀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비배(肥培)<sup>98)</sup> 관리를 주도면밀하게 하게 할 것.
- 마) 일반에게 비배 관리를 면밀하게 하도록 할 것.
- ③ 계통적 채종밭을 설치하여 종자 갱신 및 우량종자 보급을 도모할 것.
- 가) 종자 갱신은 제2기 계획의 수행을 기할 것.
- 나) 우량계통 종자 보급을 도모할 것.
- 다) 페달식 조면(繰棉) 기계 보급을 도모할 것.
- ④ 면화 거래 방법을 개선할 것.
- 가) 생산자의 자각을 바탕으로 공동판매 보급 발달을 촉구할 것.

---

94) 작물을 심는 것.

95) 논밭의 넓이.

96) 간작 즉 사이짓기의 하나로 경작지에서 주작물 사이에 보리를 파종하는 것.

97) 反은 논밭이나 산림의 면적 단위이다. 1反은 약 300평으로 1町步의 1/10이다.

98) 특별히 거름을 주어서 농작물을 기르는 것.

- 나) 선량한 중매인을 보호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할 것.
- 다) 조면공장의 견실한 발달을 촉구할 것.
- ⑤ 면화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이출(輸移出) 검사를 행할 것  
(부령(府令)의 발포를 기다려서 행할 것).
- ⑥ 면작(棉作) 장려기관의 충실을 도모할 것.
  - a) 면작 시험장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 것.
    - 가) 경종법 시험 및 조사
    - 나) 품종 개량 및 육성 배포
    - 다) 강습, 강화(講話), 실지지도 및 질문 응답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b) 기술원(員)을 증설할 것.

## 十二, 잠업에 관한 건

- ① 잠업에 관한 지식기능 보급, 향상을 도모할 것(산업지식 보급 향상에 관한 건 및 계획서에서 다름).
- ② 뽕밭 개량 증식을 도모할 것.
  - 가) 주요 면에 기술원을 설치할 것.
  - 나) 지방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여 이를 재배하도록 장려할 것.
  - 다) 적당한 땅을 선정하여 뽕밭 확장을 도모할 것.
  - 라) 뽕나무 식재는 통상적인 식재를 피하고 지도 감독의 주도함을 기하기 위해 집중하여 식재하도록 할 것.
  - 마) 뽕나무 손질법은 가능한 한 높은 부위에서 베거나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라도록 장려할 것.
  - 바) 뽕나무 묘목 생산과 수요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 사) 뽕나무 묘목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분간은 지방비로 적절한 보조를 할 것.

- 아) 지주와 소작농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 뽕밭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 자) 우량한 뽕밭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할 것.
  - a. 모범 뽕밭의 설치
  - b. 뽕밭 품평회 개최
  - c. 뽕밭 비배 관리 기일 설정
- ③ 양잠 보급, 개량을 도모할 것.
  - 가) 양잠 호수(號數) 및 수확 증가를 도모할 것.
  - 나) 봄 양잠 사육을 주로 하고 여름, 가을 양잠은 당분간 가을 양잠만 장려할 것.
  - 다) 한 집마다 사육 수는 춘잠은 한 장에서 세 장, 가을 양잠은 봄 양잠의 절반을 표준으로 해서 장려할 것.
  - 라) 공동 누에깨기 및 치잠 공동사육소 설치를 장려할 것.
  - 마) 양잠부락 설치를 장려할 것.
  - 바) 치잠 공동사육소 또는 양잠부락에 교사를 고용할 때는 첫째에 한해서 지방비로 적절한 보조를 할 것.
  - 사) 누에 품종은 봄 양잠의 경우 일지일대잡종(日支一代雜種)<sup>99)</sup>으로 하고 가을 양잠의 경우는 당분간 백룡(白龍) 한 종으로 통일할 것.
    - 아) 순뽕(순뽕)을 주어 누에를 사육하는 방법을 장려할 것.
    - 자) 잠종 수급을 원활히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 차) 잠종 제조를 성행하게 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것.
    - 카) 양잠 보급 및 생산 고치 품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품평회

---

99) 일본과 중국의 누에를 교미시켜 만든 잡종.

개최 또는 모범 양잠업자 등을 표창할 것.

④ 제사(製絲)업 발달을 도모할 것.

가) 필요한 지방에 고치를 건조하는 설비를 하게 할 것. 다만 당분간은 지방비로 적절한 보조를 할 것.

나)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고치는 가능한 한 경상북도의 제사공장이 처리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실행을 장려할 것.

a. 제사업자는 원료인 고치를 모을 때 양잠업자 또는 양잠부락 등에 원조 혹은 시설을 만들 것.

b. 생산된 고치를 양잠업자와 제사업자가 직접 거래할 것.

c. 양잠업자와 제사업자 사이에서 각 군도의 농회가 고치 거래를 알선할 것.

다) 우량 공녀(工女)를 표창할 것.

라) 자가(自家) 생산 제사 개량 방법을 강구할 것.

⑤ 지도 장려 기관을 충실히 하고 잘 지도하여 이끄는 한편 시험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

가) 경상북도에 잠업기술원을 증설할 것.

나) 원(原) 잠종제조소 및 잠업단속소의 내용을 충실히 할 것.

다) 주요 군에 기술원을 더 둘 것.

라) 각 군도 농회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우량한 기술원을 더 둘 것.

### 一三, 축산에 관한 건

1. 소 개량, 증식을 도모할 것.

① 씨밭이 소(種牛) 충실을 도모할 것.

경상북도 축우는 농경 작업에 적합한 좋은 체격을 지니고 있어

경상북도에서 나는 우량한 소를 선발하여 총당할 것.

가) 씨수소(種牡牛)<sup>100</sup> 설치

씨수소는 다수의 수소에게 할당함으로써 특히 우수한 것을 골라 다 성장한 수소 60마리에 대해 한 마리 비율로 축우 분포 및 지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각종 씨수소를 적절히 배치하고자 함.

- a. 보호 씨수소
- b. 조합 및 연합회 소유 씨수소
- c. 면 소유 씨수소
- d. 계(稷) 소유 씨수소
- e. 지정 씨수소

나) 우량우 보호

축우 개량은 오로지 수소의 정밀한 선정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할당하는 좋은 수소 및 이를 보충하는 좋은 송아지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보호 소(牛)의 규칙에 따라 우량 수소 및 수송아지를 보호하고 더불어 다음과 같이 좋은 소의 생산을 도모할 것.

- a. 우량 수소 및 송아지 보류
- b. 종축 부락의 완성

② 생산 증진을 도모할 것.

현재 생산율은 전체 수소에 대해 4.6%이지만 더욱 증진할 여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 증가를 도모할 것.

- 가) 종부(種付)<sup>101</sup> 장려
- 나) 수소 사육 장려
- 다) 새끼를 밴 소 도살 제한
- 라) 생산 능력이 없는 소의 도태

---

100) 씨소로 쓰이는 황소.

101) 우량종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우량 수컷을 암컷과 교배시키는 것.

- 마) 송아지 사육 장려
- 바) 송아지 품평회 개최
- 사) 축우 예탁법 개선

③ 농경용으로 필요한 축우 충실을 도모할 것.

축우 충실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할 것.

- 가) 소 구입 자금 융통
- 나) 예탁 소의 장려
- 다) 소 구입 계 및 생산조합 설치 장려
- 라) 송아지 도살 제한
- 마) 축우 사육 안전보호
- 바) 가축 전염병 예방 철저
- 사) 사료 개량 및 충실
- 아) 비료 사육법 장려

④ 사육 관리 개선을 도모할 것.

사육 관리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시할 것.

- 가) 축우 위생 향상
- 나) 겨울철 사료 충실
- 다) 안상(鞍傷)<sup>102)</sup> 예방
- 라) 사료 조리 개선, 보급

⑤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박멸을 기할 것.

가축 전염병은 축산장려에 있어 가장 큰 장애이므로 이를 예방하고 박멸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할 것.

- 가) 가축 전염병 검사 위원을 더 둘 것.
- 나) 임시 가축 전염병 위원 설치
- 다) 폐사 가축 신고에 힘쓸 것.

---

102) 안장에 쓸려서 난 상처.

- 라) 우사 청결법에 힘쓸 것.
- 마) 폐사 가축 사체 처치를 완전히 할 것.
- 바) 예방접종에 힘쓸 것.
- 2. 돼지와 닭의 개량, 증식을 도모할 것.

① 양돈을 장려할 것.

재래종은 실용 가치가 떨어지나 체질이 강건하고 번식력이 왕성하다. 그러므로 개량종을 할당하여 잡종 번식을 도모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소고기를 대신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에 근거하여 10개년을 기해 현재의 3배로 증가시키고자 한다.

- 가) 종돈 공급
- 나) 양돈조합 설립 장려
- 다) 공동구입 알선
- 라) 사료 충실

② 양계를 장려할 것.

재래 닭은 체격이 왜소하고 산란 수도 적다. 이 때문에 산란용 및 고기 겸용인 개량종을 장려하여 경상북도 농가의 8할에 대해 1호당 평균 수탉 1마리 암탉 4마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번식, 보급을 도모할 것.

- 가) 종계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
  - a. 민간양계업자 장려
  - b. 축산조합 및 도(道) 종묘장의 사업 확충
- 나) 양계 보급을 장려할 것.
  - a. 양계단체 조직 장려
  - b. 가금 품평회 개최
  - c. 공동구입 알선
  - d. 재래 닭의 도태

- e. 울타리 사육 장려
  - f. 닭과 달걀 판매 알선
  - g. 학교 아동 양계 장려(실업교육 및 실과 교육에 관한 건에서 다름).
3. 축산물 개량을 도모할 것.
- ① 소가죽 개량을 도모할 것.
    - 가) 축우 사육 관리 개선
    - 나) 도살업자 강습
    - 다) 짐승 가죽 건조장 등의 설치
  - ② 소뼈 이용을 도모할 것.
 

소뼈 이용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항상 이를 모아서 이용 방법을 강구할 것.
  - ③ 양봉 보급을 도모할 것.
 

개량종 보급을 도모하고 견실한 발달을 기할 것.
4. 사료 개량 및 충실을 도모할 것.
- 사료를 개량하고 그 충실을 도모하는 것은 축산 개량 증식의 요체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할 것.
- 가) 공동 목야(牧野)<sup>103)</sup> 설치 및 보호
  - 나) 건초 저장 장려
  - 다) 목초 재배 장려
  - 라) 녹비 재배 장려 및 이용
  - 마) 농산물 이용
  - 바) 차가운 사료 및 증열 사료 장려, 보급
5. 축산장려 기관의 충실을 도모할 것.
- ① 종축장을 설치할 것.

---

103) 풀이 많이 나는 곳.

축산장려에 필요한 여러 종의 시설,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해 3개년 계획으로 완성을 기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 것.

- 가) 종축(種畜) 및 종금(種禽) 번식 및 육성
- 나) 종축 및 종금 배부 대부 및 종부
- 다) 종금 및 종란(種卵) 배부
- 라) 축산에 관한 강습, 강화실시 지도 전습 및 질문 응답
- 마) 축산가공품 및 사료에 관한 시험 및 조사
- 바) 가축 노동력에 관한 시험 및 조사
- 사) 기타 가축 가금에 관한 시험 및 조사

② 축산동업조합 및 연합회 발달을 기할 것.

- 가) 조합업무 확장
- 나) 조합 소유 종우를 더 둘 것.
- 다) 종축 부락의 발달, 장려
- 라) 위생기관의 정비
- 마) 조합기금 축적
- 바) 축산물 위탁 매매
- 사) 축산자금 융통 알선(이하 다음 권)

## 대구의 무역 개황

1922년 대구통관 화물의 상황을 보면 1923년 총무역액은 수 수출이 5,723,579원이며 수입은 6,739,399원으로 합계 12,462,978원이다. 이를 전년 총무역액과 비교하면 수출액은 1,818,883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입액은 1,637,873원 감퇴하여 차감액은 181,010원으로 늘었다. 여기서 위의 수출입 주요 품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에서는 그 과반수가 감소하였

다. 그러나 오로지 경상북도 특산물인 쌀, 생사만 출하 호황을 보이고 있다. 쌀은 1,800,000원이 넘으며 생사는 실로 3,200,000원이 넘어 재계 불황에 따른 대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합계는 현저히 증진되었다. 이는 1923년 벼농사 증수, 곡물 가격 폭락 등에 의해 투매가 많았던 점과 예년과 달리 생사 업계 호황에 따른 산출이 많았던 까닭이다. 다음으로 수이입은 기계류, 소포우편물, 기타 물품들이 약간 증가했으나 주요 품목의 대부분은 감소하였다. 그중에서 당목면<sup>104)</sup>은 1,600,000원 넘게 감소한 것을 필두로 면직물, 레일 및 그 부속품 등의 감소 또한 적지 않았다. 예년 11월과 12월은 보통 겨울용품 매입 때문에 모든 수요품에 변화가 일어나 수출입 업계에서 가장 큰 성수기를 맞게 마련이지만 1923년은 예측이 어려운 재계의 불황과 소비 절약 선전의 영향으로 판매도 자연히 순조롭지 않아서 희유의 불황을 보이며 한산했다. 1923년 주요 수요품 출입에 대해 그 개황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이재과(理財課) 마키모토(牧本) 촉탁이 기고함).

#### 주요 수요품 수이출

품목	1922년 (단위 원)	1921년 (원)	비교 증(△)감(원)
쌀과 벼	1,849,038	811,462	1,037,576
대두	69,995	78,371	△ 8,486
면직물	15,585	-	15,585
고치	6,675	17,699	△ 11,024
생사	3,279,453	2,329,597	949,856
소가죽	49,139	176,360	△127,211
비료	3,134	3,158	△ 24
기타	450,670	488,049	△ 37,379
합계	5,723,579	3,904,696	△ 1,818,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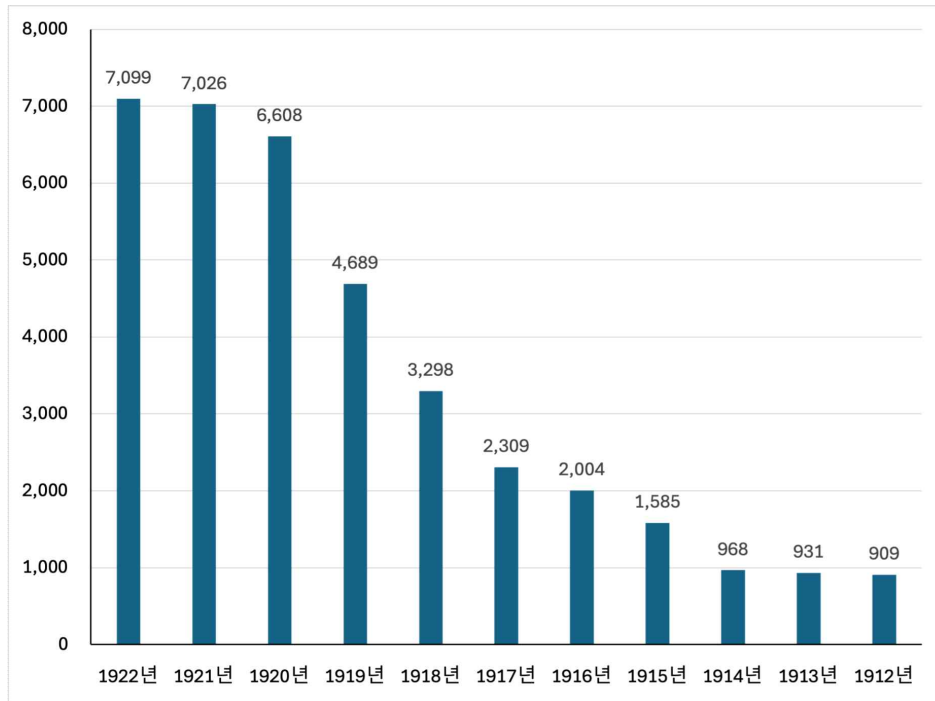
104) 광목보다 가늘고 흰 실로 곱게 짠 피륙으로, 서양목이라고 부른다.

### 주요 수요품 수이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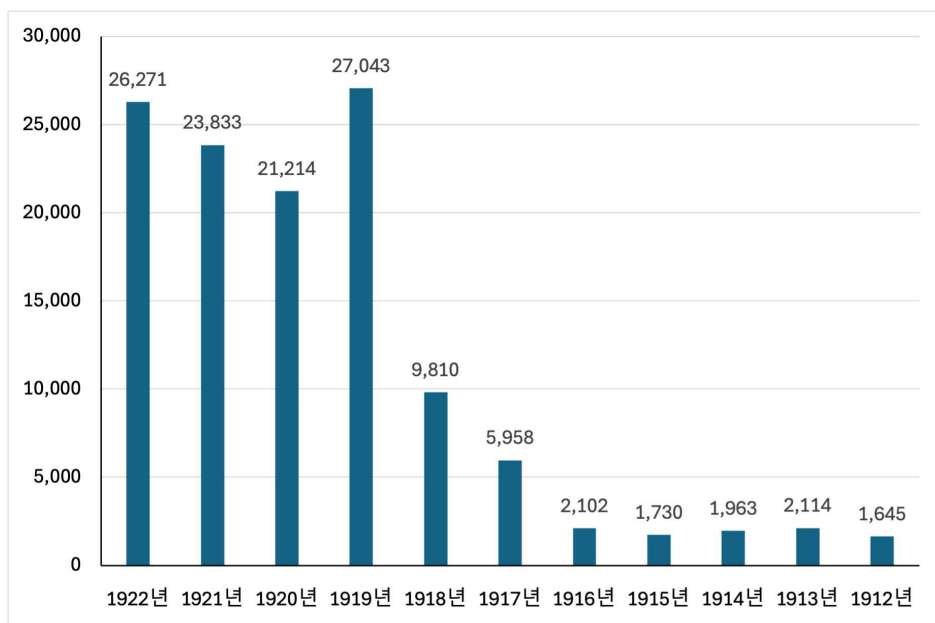
품목	1922년 (원)	1921년 (원)	비교 증(△)감 (원)
쌀과 벼	45,716	1,403	44,313
소맥분	43,735	16,021	27,712
설탕	77,375	172,095	△94,730
주류	90,055	122,819	△ 32,764
연초	35,228	81,007	△45,779
조면 및 타면(打綿)	89,674	93,526	△ 3,852
면직실	365,182	1,003,303	△ 638,121
생광목(生金巾) 및 시트 감(sheeting)	54,291	94,027	△ 39,736
백목면	149,614	348,368	△ 198,772
진(jeans), 무늬광목(綾金巾) 및 운제포(雲濟布) <sup>105)</sup>	251,073	475,493	△ 224,420
견직물	26,749	28,237	△ 1,488
종이류	224,274	145,489	78,785
도자기	59,77	65,255	△ 6,078
철근, 철판통(板鐵筒)과 관(管), 쇠못	69,535	46,819	△ 22,716
레일(rail) 및 부속품	-	164,079	△ 164,079
기계류	252,038	94,540	157,498
소포 우편물	953,616	742,641	210,975
기타 여러 물품	3,506,300	2,895,010	611,290
합계	6,739,399	8,377,272	△ 1,637,873

105) ‘雲齋布’의 오기. 일본에서 흔히 ‘운사이오리(雲齋織り)’라고 하며 대각선으로 짠 면직물이다. 가방이나 앞치마 등 내구성이 필요한 기능적 용도로 많이 쓰인다.

도내 각 은행 예금 누년(累年) 비교표(단위는 천원. 각 12월 말일 현재)



도내 각 은행 대출금 비교표(단위는 천원)



## 잠업 장려 계획

산업 발달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정을 수립하여 이를 목표로 장려하는 것이 득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상북도 잠업 장려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양잠업자에 대한 지도 이외에도 적극적인 지도 장려를 함으로써 잠업 발전을 앞당기고 있다. 즉 1922년부터 1926년까지 5개년으로 뽕밭 증식을 계획하고 있다. 앞을 따서 이용하는 것은 1924년부터 시작되어 1928년에는 모두 해낼 계획이다. 계획을 수행한 후의 경상북도 잠업 현황을 예상하자면, 양잠 호수는 98,700호가 될 것이며 현재 52,900호에 대해 45,800호 즉 8할 6푼이 늘어난다. 농가 총 호수 333,800호 중 3할을 차지하는 것이며 농업의 기초를 이루는 뽕밭의 면적은 5,650정보(町步)에 이른다. 이는 현재 2,790정보와 비교하면 286정보 즉, 1할 넘게 증가한 것으로, 이로써 생산되는 양잠 고치는 52,000석이 된다. 현재 20,000석에 비해 32,000석 즉 16할을 더 증수하는 것이다. 게다가 추잠 고치의 증가를 가산할 때 춘잠 고치의 3할을 목표로 추잠 고치를 장려하면 생산은 15,600석이 되고 춘잠 고치 52,000석과 합산하면 총생산은 67,600석을 헤아린다. 이는 현재 총생산 22,600석과 비교하면 45,000석 즉, 20할 넘게 증수하는 셈이다.

## 도평의회(道評議會) 개최 시기

경상북도 도평의회가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도청 내 회의실에서 열려 19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 주임(奏任)<sup>106</sup> 대우 네 명의 면장

조선의 지방관 관제를 개정한 결과, 2월 11일 기원절(紀元節)<sup>107</sup> 길일에 전조선 46곳의 면장 주임 대우가 발표되었다. 경상북도의 명예로운 주임 대우 면장은 다음과 같다.

### 정(正) 7위 훈(勳) 5등 공(功) 5급

#### 김천군 김천면장 시바사키 사다스케(柴崎定介)

이바라키현(茨城県) 다카사키(高崎) 출신이다. 1871년 12월 9일생으로 1890년 3월 다카사키 사숙(私塾)(중학 정도)을 졸업하고 1891년에 징병되어 보병 제2연대에 입대했다. 1892년 12월에 상등병, 1893년 12월에는 2등 군조(軍曹)<sup>108</sup>로 승진, 제대하였다. 1894년 8월 청일전쟁 때는 1등 군조로 출정하여 1895년 6월에 개선(凱旋)하였다.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훈(勳) 8등 백색 동엽장(桐葉章)을 받았다. 1896년 5월 청나라 위해위(威海衛)<sup>109</sup>의 수비로 출전하여 주둔하다 10월에 돌아왔다. 1897년 보병 조장(曹長), 1900년 10월에 특무조장으로 승진하였다. 1904년 4월 러일전쟁 때는 동원 명령을 하달받은 날 제11사단 소속으로 출정, 종군하며 각지를 돌며 싸웠다. 같은 해 10월에 보병 소위로 임명되어 정(正) 8위(位), 1906년 4월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훈 5등 공(功) 5급 금치(金鷄) 훈장을 받았다. 1907년 12월 보병 중위로 임명되었고 1908년 3월 헌병 중위로 임명되어 종(從) 7위 보(補),

---

106) 일제강점기 관리 임명 형식의 하나로 내각이 천거하고 천황이 임명함.

107) 일본의 1대 천황인 진무(神武)천황이 즉위한 날이다.

108) 일제의 육군 하사관 계급의 하나였다.

109) 중국 산둥성(山東省) 북동쪽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현재의 웨이하이시(威海市)이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공격당한 지역이다.

한국헌병대에 소속되어 1911년에는 헌병대위로 임명되어 정(正) 7위, 1912년에는 예비역을 명받았다. 1919년 10월 김천면장이 되어 학교조합 관리자 기타 공직을 겸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상주군 상주면장 박정한(朴挺漢)**

1872년 1월 1일 상주군 상주면 성동리(城東里)에서 태어났다. 1885년 사숙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1891년에 마쳤다. 1908년 10월 상주보통학교 학무위원이 되었고 1909년 2월에 상주군 내동면(內東面) 면장, 1911년 자원 퇴직하여 같은 해 6월 내남면(內南面) 면장이 되었다. 1914년 3월 자원 퇴직하여 같은 해 4월 상주면장에 취임하여 공직을 겸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달성군 옥포면장 김진옥(金振玉)**

1880년 12월 29일 달성군 옥포면 간경동(干京洞)에서 태어났다. 1888년 본적지에 있는 한문 사숙에서 배우고 1901년 9월 경상북도 낙육재(樂育齋)<sup>110)</sup> 유생을 명받았다. 1904년 4월 사립 대구사범학교<sup>111)</sup>에 입학하여 1905년 5월에 졸업하고 1912년 7월에 옥포면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달성군 현풍면장**

#### **종(縱) 7위 구종명(具鐘鳴)**

1864년 2월 경상남도 울산군 읍내에서 태어났다. 1876년 경성

---

110) 1721년 경상도감영(慶尙道監營) 내에 설립된 교육서재(敎育書齋)를 일컫는다.

111) 민간 교육 운동으로 1897년에 설립되었으며, 서양식 교육과 근대적인 교사 양성 방식을 도입하였다.

의 한문 사숙에 입학하여 1885년에 졸업하였다. 1900년 경부(警部) 주사(主事)로 임명되었고 1904년 9월 대구경찰서 총순(惣巡) 판임관 4등에 서임되었다. 1910년 10월에 군수 고등관 8등으로 서임되어 영해군 임무를 명받았다. 같은 해 12월 정(正) 8위로 퇴직하고 1911년 6월 현풍면장에 임명되어 오늘에 이른다.

위 임용과 관련하여 총독부 내무국장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 씨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조선의 면장은 지방관 관제에 규정된 직원이며 군수, 도사(島司)의 지휘를 받아 면내 행정 사무를 보조 집행하는 나라의 행정 기관이다. 이와 동시에 면제(面制)에 따라 지방단체인 면의 사무를 총괄 담당하는 중요한 직무이다. 이 때문에, 적절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조선 통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면장을 선발할 때는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유능한 인사를 뽑아 임명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사람들은 면장의 지위를 존중하며, 예전 문무(文武) 고등관이었던 자, 또는 지방 일류의 인물이 면장직에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그 대우에 있어서는 종래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부여하는 데 그쳤었다. 이래서는 면민 그리고 대외 관계상 적당한 대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적절한 인재를 잃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특히 특정 지역의 면장의 경우, 요즈음 각 지방이 발전함에 따라 시설을 운영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서 더욱더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의 성격에 따라서는 각별히 우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면<sup>112)</sup> 이외의 면장이라도 오랫동안 근속하여 공적

---

112) 조선총독부는 1917년 6월 9일 자로 제령 제1호 「面制」와 조선총독부령 제 34호 「면제시행규칙(面制施行規則)」을 공포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제정된 면제에서 시장이 변화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이 다수 거주해 부(府)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면을 '지정면(指定面)'으로 지정하고

이 두드러진 자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여 더욱더 부지런히 공무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칙령 제372호로 지방관 관제를 개정하여 면장 가운데서 50인에 한해 주임관(奏任官) 대우를 할 수 있게끔 규정되었다. 이후 대구부에서는 진중하게 후보자를 심사하여 내각에 상신하였고 드디어 이번에 최초의 주임관 대우 면장을 임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기원절이라는 경사스러운 날을 택해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영광을 받은 면장 각위에게 지면을 빌려 축하함과 동시에 무거운 직책을 짊어졌음을 알고 더욱더 직무에 정진하여 조선통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절실히 바라는 바이다. 이번에 주임 대우 면장에 임용된 자는 다음과 같다. 일본인 15명, 조선인 31명이며 도별로 인원을 구별하자면 경기, 전북, 경북, 평북이 각각 4명, 충남, 경남이 각각 5명, 전남, 황해, 평남, 강원, 함남, 함북이 각각 3명, 충북 2명으로 총 46명이다. 경력별로 인원을 구별하자면 원래 고등관이었거나 주임 대우 직책에 있었던 자가 17명, 5년 이상 판임관 직책에 있으면서 행정사무에 종사하여 5급봉 이상의 봉급을 받고 있던 자는 6명, 10년 이상 면장의 직책에 있으며 공적이 두드러진 자가 8명, 지방 사정에 밝고 학식과 명망 있는 자가 15명으로 합계 46명이다.

## 닥나무 증식 계획

시정(施政) 이래 경상북도 제지 추이는 당국의 장려로 최근에는 품

---

상담역을 두도록 하였다. 입안 첫해에는 2,512개 면 중 23개 면이 지정면으로 지정되었다.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大正六年. 朝鮮總督府 (1919): 344-347.)

질 및 생산액이 현저히 개량, 증가되었다. 그러나 대내 수급 상황은 만주 방면으로 일부 수출되는 것 외에는 주로 함경남북도 및 경상북도에서 소비되는 것에 그친다. 최근 일본 사업계에서 해가 갈수록 닥나무 생산이 감퇴하면서 튼튼한 종이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특히 최근에는 저장용 쌀자루, 차 봉투, 시멘트 자루 등의 용도로 튼튼한 순수 조선종이의 이용에 눈을 돌리게 되어 이미 대량 수요 계획이 있는 업자도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종이의 현재 생산 능력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종래 거의 대내 수급에 만족하고 있었다. 때문에 대량 수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바로 수요에 대응할 능력이 없기에 원료인 닥나무의 증식은 경상북도 제지(製紙)를 위해 가장 긴요한 일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장려 계획 요항에 따라 힘껏 권장하도록 2월 11자로 관내 각 군에 통첩을 하였다.

## 一. 일반장려계획

1. 현재 흑피 약 50만관(貫) 연생산을 향후 13개년간 100만관 생산으로 증식하고자 함.
2. 식재 후, 최다 수확 연차는 7년째이며 이하 점차 수확이 줄어들어든다. 이에 별지에 나타낸 닥나무 묘목 식재 연차 계획에 따라 반드시 실행할 것.
3. 필요한 묘목 양성은 군도(郡島) 농회 혹은 군도 내에서 경험이 많은 개인으로 하여금 권장 경영하게 할 것.
4. 양묘(養苗) 경영은 군도 농회가 담당하게 할 것. 다만 군도의 사정에 따라서는 경험이 많은 개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있음. 양묘 경영자에게는 생산 수량에 대해 지방비에서 1923년도 이후부터 생산 보조를 할 예정임.
5. 묘포(苗圃)<sup>113)</sup> 생산 묘목은 군도의 증식 장려 계획에 기반

하여 군도의 해당 업자에게 한 그루당 약 1천 가격으로 공급할 것. 다만 군도에 잉여가 발생할 경우, 군외로 매각할 수 있음.

## 二. 실행방법

### 1. 묘목 양성

묘포용 묘목은 종래 닳나무 1년생 뿌리에서 어린 나무를 파내는 것을 주안으로 삼는다. 주근(主根)은 4치(寸) 내지 5치 정도로 잘라 가능한 따뜻한 곳을 선택하여 5치 5부(分)<sup>114)</sup> 간격으로 사선으로 심는다. 여기에다 가늘고 고운 흙을 덮고 햇빛을 피하기 위해 절엽(切葉) 등을 하여 햇빛을 차단하고 적당한 습기를 유지해야 한다. (별지 양성 방법 참조) 생략.

2. 묘포 식수는 평당 120그루가 적절하다. 식수 후, 약 10일~20일 후 발아하면 이후는 제초에 주의를 기울이고 2, 3회 비료를 줄 때(액체 비료, 구운 흙, 마구간 거름, 퇴비 등) 가지 눈은 제거하고 외줄기 세우기로 할 것.

### 3. 못자리 이식 및 내년 봄 묘포용 주근

묘포 묘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 묘포지에서 받아 10그루 내지 15그루를 한 묶음으로 하여 평지 적당한 곳을 깊이 갈아 임시로 심어놓고 이듬해 봄에 꺼내온다. 다만 이때 파내는 것은 내년 봄에 쓸 묘포용 묘근으로 하고 묘목 뿌리를 5치 정도 쏘치고 파낸 다른 것들은 앞서 말한 방법으로 임시로 심어둘 것.

4. 파낸 식재지는 전답, 밭두둑, 경사지 및 미간지 등을 선정하여 이용할 것.

밭 식재는 1평당 3~4그루 심고 가능한 열매가 채 익기 전에

---

113) 5년생 이하의 묘목을 길러내는 밭을 일컫는다.

114) 1寸은 약 3.03cm, 1分은 약 3.03mm이다.

거두어 들여 대두, 낙화생 등 콩 종류의 식물을 간작(間作)할 것.  
기타 토지에는 평당 6그루를 심어서 적당히 거름을 주고 기를 것.

### 三. 묘포 설치 경비의 대략적인 계산(1반보(反步) 당)

땅 임대료	인부 임금	씨뿌리 비용	비료 비용	합계
20원	20원 40명/ 남녀 평균 1인당 50전	36원 36,000그루/ 1그루당 1리(厘) <sup>115)</sup>	10원 퇴비 500관(貫)/ 1관당 2전	86원

### 四. 1923년 춘기 닻나무 묘포 설치 계획

군	묘포 반별(反別)	재배 그루 수	성묘(成苗) 예상(6할)	소요경비	비고
안동	1반	36,000그루	21,600그루	86원	1924년 이후도 본 표에 준하여 시설할 것
청송	2반	72,000그루	43,200그루	172원	
영덕	10반	360,000그루	216,000그루	860원	
영일	5반	180,000그루	108,000그루	430원	
경주	10반	360,000그루	116,000그루	860원	
청도	2반	73,000그루	43,200그루	172원	
경산	6반	216,000그루	129,600그루	516원	
김천	5반	180,000그루	108,000그루	430원	
문경	2반	72,000그루	43,200그루	172원	
울릉도	2반	72,000그루	43,200그루	172원	
합계	45반	1,621,000그루	972,000그루	3,870원	

#### 비고

본 표에 나타낸 9군과 1도 이외 군에 대해서는 기술원(員) 관 계상, 설치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군의 장래성에 따라서는 설치를 장려해도 괜찮다. 그리고 본 표 이외의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묘목이 부족할 때는 본 표에 나타낸 군으로부터 공급받을 것.

115) 1厘는 1전의 10분의 1이다.

## 五. 1923년부터 1935년까지 닥나무 묘목 식재 연차 계획

별지와 같음(생략).

## 六. 군별 닥나무 증식 할당표

별지와 같음(생략).

### 잠업 기술원 협의회(打合會)

이번 각 군(郡), 도(島) 잠업 기술원 협의회는 1921년 12월 20일부터 4일간 도청 회의실에서 내무부장의 통재(統裁)로 개최되었다. 1922년은 잠업 장려 계획의 첫 해에 해당하며 각종 시설 사항에 대해 상당한 긴장 속에서 협의회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후지카와(藤川) 지사는 잠사 가공품은 제국의 주요 수출품임을, 잠업은 경상북도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중요한 부업이라는 점, 특히 잠업은 조선에서 부녀자에게 수산적(授産的)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와 장려를 담당하는 사람은 정해진 방침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함을 비롯해서 그 외를 서술하여 훈시한 바가 있다. 하시모토(橋本) 내무부장은 아래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주의시켰다.

#### △ 주의사항

1. 각 군(郡)·도(島) 내 뽕나무 묘목(桑苗) 생산에 관한 사항
2. 뽕나무 묘목(桑苗) 가을철 식재 장려에 관한 사항
3. 뽕밭 비료 생산 방법 지도에 관한 사항

4. 뽕밭 비배(肥培)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잠종 취급에 관한 사항
6. 잠종 1매(枚) 미만 사육자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7. 누에 선반 및 양잠 기구 설비 장려에 관한 사항
8. 도내 제사장에 가급적 많은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방책에 관한 사항
9. 생산된 누에고치 공동 판매 업무에 관한 사항
10. 도(道)의 장려 및 지도 방침을 숙지할 것에 관한 사항
11. 장려 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
12. 복제 잠종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종묘 대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
14. 보통학교 학생들의 잠업 사상 양성에 관한 사항
15. 지주 또는 지역 유력자를 장려 지도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관한 사항
16. 군·도 농회 기술원 또는 순회 교사의 독려에 관한 사항
17. 뽕밭 대장(台帳)의 정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8. 통계 편찬에 관한 사항
19.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
20. 출장 수첩의 이용에 관한 사항

## 두 면의 징수 실적

경산군(慶山郡)은 쌀의 산지로 1920년 이전까지의 징수 실적은 비교적 양호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이후 경제 상황의 변동과 모든 물가의 폭락으로 인해 생산물인 쌀값이 예상외로 떨어져서 지방의 금융 경색이 극심해져 농민들은 생활의 안정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불평불만을 품은 자들의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민심은 일시에 돌연 악화되었고 왕왕 과격한 사상을 품는 자도 있어서 납세자들은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체납 방법을 선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경산군의 납세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직 남산의 한 면은 예외였다. 면장과 면 직원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끊임없는 열성과 노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징수 업무를 처리한 결과 그로부터 3년간 한 명의 체납자도 생기지 않았고 국세와 지방세 모두 기한 내에 완납하였다. 이는 실로 징세 기관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또한 경산군 경산면(慶山面)은 군청 소재지로 각 부락(部落)이 경산시장을 중심으로 18정(町) 이내의 지점에 해당 시장을 둘러싸듯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슬기나 지식이 산간 벽지의 면에 비해 다소 진보한 면이 있다. 그러나 시장 부근의 민심은 대체로 온순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라 자연히 면 행정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징세 사무는 가장 곤란한 일로 법정 납기 말일까지 미납자 즉, 체납자의 수가 많아 일반적으로 징수 실적은 군내에서 항상 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921년 이래 면장은 부하 직원들과 일치 협력하여 징수 사무 전반에 일대 혁신을 가하였다. 세금을 직접 자진 납부하도록 장려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면장 회의 때는 물론 민중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하거나 강연하였다. 한편 징수 독려에도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심성의로 그 업에 종사한 결과 특별한 사정을 가진 사람은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납기 내에 완납하였다. 이러한 우수한 실적에 이른 것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와 계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청송군 개일동(開日洞) 진흥회

청송군(靑松郡) 현동면(縣東面) 면장 남석한(南錫翰)은 1921년 2월에 면장에 취임한 이래 상설적인 진흥 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 면내 유력자와 협의하여 고찰하던 중이었는데, 마침내 현동면의 일부에 속하는 개일동(開日洞)에서 ‘개일동진흥회(開日洞振興會)’라 불리는 사회사업에 속하는 공공적 시설 기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회의 목적은 별첨된 회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 정세에 비추어볼 때 무엇보다도 풍기 개선, 지덕의 증진, 식산흥업 등을 주요하게 삼고 있다. 그러나 본 회의 필요한 경비는 당분간 동(洞) 내 유력자들의 기부에 의존하며, 그 외 회비로서는 봄·가을마다 벼 1두(斗)씩을 내도록 하여 본 회의 유지와 운영에 충당하려 한다.

진흥회의 규칙 및 기타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 개일동진흥회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의는 ‘개일동진흥회(開日洞振興會)’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는 풍기 개선, 지덕(智德) 증진, 생산 장려 및 산업진흥의 장려, 납세 의무의 함양 등 기타 개선된 실제 성과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당분간 회장 자택에 둔다.

제4조 본 회의는 본 동(洞)에 거주하며 한 가구를 구성하는 자로 조직한다.

제5조 본 회의 사업연도는 역년에 따른다.

## 제2장 임원

제6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원은 전원 무보수로 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부장 4명

고문 몇명

간사 몇명

제7조 본회의 임원은 회원의 선거로 선출하며, 부장은 간사 중에서 4명을 임명한다.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시 재선에 제한은 없다.

제8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장은 각 부의 사무를 관장한다.

고문은 중요한 회무에 참여한다.

간사는 회의 위임에 따라 회무를 보조 집행한다.

## 제3장 사업

제9조 본회의 사업은 풍기, 교육, 권업, 납세의 네 부로 나누며, 각 부장이 담당 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한다.

1. 장유 질서를 명확히 하고, 특별한 선행을 실천할 것.
2. 관혼상제는 검소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을 절약하고 사치와 화려함을 피할 것.
3. 회원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돕되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

4. 회원 중에 질병이나 비상 재난을 입은 자가 있으면 이를 구제할 것.
5. 도박 및 불량 행위를 금지할 것.
6. 미신과 음사(淫祀)<sup>116)</sup>를 경계할 것.
7. 음주 및 흡연을 경계할 것. 단, 50세 이상은 예외로 한다.

### 교육의 부

1. 회원 자제 중 학령(學令)에 이른 아동은 가급적 입학시키며, 이를 일반에도 확대 적용한다.
2. 회원 중에서 연령 초과로 인해 학업에 곤란을 겪는 자와 노동자들의 상식을 계발하기 위한 강습 기관을 설치한다.

### 권업의 부

1. 근검절약과 저축을 실천할 것.
2. 농작물은 개량 종자를 중심으로 재배할 것.
3. 묘판은 개량형(改良形)을 따를 것.
4. 피(稗)와 밀 감부기병(麥黑穗)을 철저히 제거할 것.
5.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새나 벌레는 반드시 구제할 것.
6. 농한기를 활용하여 농기구 및 짚신(草鞋) 등을 미리 준비하게 할 것.
7. 노동 시간은 모든 사람이 함께 정하여 엄수할 것.
8. 우량 잡종을 사육하며, 그 방법을 개선할 것.
9. 우량한 뽕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뽕나무의 보호 및 손질을 철저히 할 것.
10. 나무가 없는 땅에는 식수를 장려하고, 애림사상을 불러일으

---

116) 음란하거나 부정한 제사.

킬 것.

11. 산림의 남벌과 나무뿌리의 채굴을 금지할 것.
12. 우량 소(牛)의 보존과 증식을 도모할 것.

### 납세의 부

1. 납세 준비금을 적립할 것.
2. 세금은 면사무소에 직접 납부할 것.
3. 납세 깃발을 게양하고, 회원 스스로가 납기일을 철저히 지키게 할 것.

제10조 본 회 회원은 이전 조항의 각 항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

제11조 본 회 사업의 세부 시행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4장 회의

제12조 임원 총회 및 총회는 수시로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회칙의 변경, 사업 계획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5장 모범자 표창 및 위약자 처분

제14조 본 회 회원 중에서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성과가 현저하고 모범이 될 만한 자는 임원회의 평의를 거쳐 표창한다.

제15조 본 회 회원 중에서 본 규약을 위반한 자는 임원회의 평의를 거쳐 위약금을 부과한다.

## 용기 있는 형사

경상북도 왜관경찰서에 근무하던 형사 순사 황의원(黃義元)은 1921년 12월 22일 오전 2시경, 왜관면(倭館面) 왜관동(倭館洞)을 비밀리에 정찰하던 중 수상한 한 조선인 남성이 도로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여 그를 불러 세웠다. 남성은 자신이 성주 사람으로 전날 밤 왜관에 도착해 기차 시간을 기다리며 이렇게 배회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모호하고 수상한 점이 많았기에 황의원 순사는 일단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서에서 약 20간(間) 떨어진 삼거리에 이르렀을 때 범인은 틈을 엿보아 갑자기 동쪽을 향해 도주하였다. 이에 황 순사는 곧바로 뒤쫓아, 경찰서에서 약 12정(町) 떨어진 곳에서 간신히 범인을 따라잡았다. 서로 격투 끝에 범인을 가까스로 넘어 뜨리고 말 타듯 올라가 포박하려 하는데 범인은 놀려 있는 채로 숨겨둔 길이 8촌가량의 식칼을 꺼내 황 순사의 목 부위를 겨누어 찔렀다. 황 순사가 이를 피하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칼은 왼쪽 뺨에 깊이가 입안에 이를 정도의 상처를 입히고 이어 얼굴 여러 곳에 경증상을 입혔다. 그러나 황 순사는 심한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범인을 체포하려 용감한 격투를 계속하였으며 마침내 범인의 흉기를 빼앗았다. 아무리 강도라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즉시 그 자리에서 달아나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황 순사는 끝까지 범인을 추격하려 애썼으나 과다 출혈과 20분에 걸친 필사의 격투로 인해 신체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함을 자각하고 범인에게서 빼앗은 흉기를 지닌 채 자유롭지 못한 몸을 움직여 오전 2시 30분 경찰서에 도착하였다. 보초 순사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였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인사불성에 빠졌다. 경찰서원들은

곧바로 공의(公醫)를 불러 응급처치를 시행하였고 약 30분 후에 황 순사는 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부상 부위에 수술이 필요하여 대구 자혜병원(慈惠病院)에서 의사를 출장시켜 수술을 받은 후, 12월 25일 자혜병원에 입원하였다. 예후는 매우 양호하였다.

황의원은 성격이 과묵하고 침착하며 호기롭고 인내력이 강한 데다 품행이 단정하였다. 1921년 10월 20일 형사로 임명된 이래, 앞장서서 직무에 정진하고 있었으나 형사로 부임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 아직 큰 사건을 해결한 공로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평소 동료들에게 중요한 범죄자를 검거하여 직무의 면목을 세우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덧붙여서 이 보고가 총독부에 전달되자 마루야마(丸山) 경찰국장은 황 순사에게 즉시 위문의 뜻으로 금일봉을 수여하였다. 또한 범인은 경산군 안심면(安心面)에서 체포되었다.

## 조선어 시험문제

### 조선어를 일본어로 번역

(가나를 섞어 신문기사체로 번역해야 한다)

미신으로말매암아밍랑한거슨말이만히전 혀야오는 중에도간혹드러맛는말이있다고남녀간에반하는사람도잇는모양인대요사이미신의류설이려항간에전파되야갑작히안심을못하야쵸심 혀는터이나지나간임술년에도괴질이엇더케치성하얏던지사람을비로쓸다십히하얏스니금년에도그씨모양으로창궤 혀야사람이만히상하리라는풍설이여긔저긔나오는모양이다지금물건너편에서는호역이출몰화힝하며사람을얼마나잡어가는지를런일신문지상을보드라도가삼이덜렁

거리지안는가를건너화지로보아서는결단코안될일이오각기위성에  
주의하야무서운대적을침로치못하게 하여야하나니라

## 조선어를 일본어로 번역

(청원서문체를 섞어 번역해야 한다)

伏惟彰善揚美는士林之公議이오며施閣樹風은國家之懿典이외  
다不避倣獄하옵고裏足上奏하와薦呼于總督하오니伏願閣下는勿  
謂倣安하시고洞察公議하시와使此御曲殘微之人으로褒揚幽潛之  
行하시면一則光輝邵德이오며一則振興頽俗이외다.

本道某邑居某는故某後裔로天性이溫良하고至行이兼備하야事  
父母할세偏義가比古今하와可謂罕見이음으로鄉里觀感하와莫不  
興孝니이다舉其一例컨댄親病이或至危境이오면中夜禱天하와以  
身代之라하옵고及其當變하야는哭泣之哀가足以感人이오며喪葬  
之節은務盡誠禮하얏사오며其他昆季和陸하며接友切悃하며御婢  
僕教子孫이亦各有方이로이다若此卓行之人으로混沒無傳於後世  
이오면豈非有欠於聖朝敦孝之政이리잇가伏乞下議于該局하시와  
以示獎勵之義하심을至懇伏望하나이다.

## 일본어를 조선어로 번역(한글을 섞어 공문체로 번역해야 한다)

朝鮮ニ於ケル産業上計畫ハ帝國産業政策ノ方針ニ順應セムコ  
トヲ期スベク内外ノ情勢殊ニ内地支那及露領亞細亞等隣接地方  
ノ經濟的事情ヲ考察シテガ對策ヲ講スルノ必要アリ朝鮮ノ産業  
ハ始政以來進歩ノ跡顯著ナルモノアリト雖其ノ進歩ハ畢竟草創  
ノ初期ニ屬シ其ノ基礎尙薄弱ニシテ前途發展ノ要件ニ缺クル所  
鮮シトセズ仍テ將水益智識技能ノ向上發達ヲ促シ勤勉協同ノ慣  
習ヲ助長シ産業諸般ノ組織及交通通信ノ機關ヲ整備シ資力ノ充

實及金融ノ疏通ヲ圖リ内鮮ノ關係聯絡ヲ一層密接ナラシムルノ方法ヲ講ジ朝鮮經濟力ノ進歩ト内鮮共同ノ福利ノ増進トヲ期セザルベカラズ

### **일본어를 조선어로 번역(한글을 섞어 시문체로 번역해야 한다)**

人々ノ腦裡ニユビリ附イタ習慣ノカハ實ニ恐ロシイ偉大ナ粘著カヲ以テ居ルノデアアル我等ハ地方改善事業上其ノ拔キ難キ力ノ非常ニ大ナルヲ痛感セザルヲ得ナイ今ヤ誰シモ徵ノ生ヘタ前時代ノ遺習ヲ踏襲スルコトノ如何ニ時代錯誤デアアルカ位ノユトハ覺ッテ居ネバナラヌ筈デアアルニ拘ラズ因習ノ刀ハ理性ノカヲ壓倒シテ感情ヲ支配シ其儘之ヲ社會ニ應用セムトシテ居ルノハ實ニ聖代ノ一大根事デアアル此社會的缺陷ヲ充タスタメ吾人ハ階級ノ上下如何ヲ問ハズ總掛リテ之カ補正ニ努メ同胞偕和共昌ノ實現ヲ期スルコトニ勗メネバナラス

## 군웅할거의 시대(하)<sup>117)</sup>

니시에 레이겐(西江靈弦)

본래 결사의 주종관계였던 시게미쓰(鎮光)를 비롯한 열두 명의 무사들은 피에 굶주린 아수라처럼 분투하였다. 그러나 시게미쓰 쪽은 중과부적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차례차례 쓰러져 시게미쓰 한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뽑아 든 대도를 휘두르고 또 휘두르면서, 칼에 묻은 피를 털어내며 종횡으로 상대의 칼을 마주했다. 그러다 그만 잔디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더니 애처롭게 엎어져 쓰러졌다. 그 광경을 본 류조지의 군병들은 겹겹이 둘러싸며 칼을 들이댔다. 시게미쓰는 원통함에 이를 악물고 칼을 지팡이 삼아 일어서려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오다 전하, 운이 다하셨소. 수급을 받아가겠나이다.”라며 대도를 높이 쳐든 이와미노카미(石見守)의 두 눈에도 역시 이슬이 맺혀 있었다. 시게미쓰는 충혈된 눈으로 사가성(佐嘉城) 쪽을 노려보며 “원통하다”라고 한마디 크게 외쳤으나 이와 동시에 이와미노카미가 내리친 칼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목이 땅 위에 굴러 떨어졌다.

수풀 속 벌레 우는 소리는 차차 가늘어지고, 새벽이 가져온 희

---

117) 1923년 2월호(6권)에 ‘군웅할거의 시대(상)’ 내용 요약: 전국시대 규슈에서 류조지 다카노부(龍造寺隆信)와 오토모 세력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다카노부의 가신 나베시마 노부나리(鍋島信生)가 승전 소식을 안고 귀환한다. 다카노부는 오토모쪽의 오다 시게미쓰(小田鎮光)와 결혼한 수양딸 히데노마에 야스코(秀の前安子)와 역시 오다의 수양아들로 보낸 자신의 아들 쓰루히토오(鶴仁王)의 처분에 고심하다 그들을 류조지 가문으로 다시 데려온다. 다카노부는 히데노마에를 속여 오다 시게미쓰를 류조지의 소굴로 끌어들이어 처분하고자 한다.

미한 빛은 서서히 적과 아군의 참혹한 주검 위를 스치며 비추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운 히데노마에는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다카노부(隆信)의 거처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다. 다카노부는 기분 좋게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을 뿐, 달리 시게미쓰의 ‘시’ 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곳에 앉아 있었으나 다카노부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전혀 상대할 기색을 보이지 않기에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때 문득 정원 건너편에서 서너 명의 젊은 무사들이 큰 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발을 멈추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이야기 중에 “오다 전하”라든가 “속여서 급습” 같은 그냥 흘려넘길 수 없는 말까지 섞여 있었다. 히데노마에는 요동치는 가슴을 억누르며 가만히 정원의 나무 사이를 헤치고 그들 가까이 몰래 다가갔다.

그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지난밤의 야습 이야기였다.

히데노마에는 듣고 있는 동안 점점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거의 쓰러질 듯한 몸을 나무에 기대 지탱하면서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 얼마나 비정한 이야기인가. 이 얼마나 무도한 처사란 말인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편지 따위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참으로 비정하시다. 아버님께서도 그것으로 노여움이 풀리셨겠지요. 이 세상에 집 한 채 없이 시게미쓰 전하 한 분께만 의지한 이 몸의 정조는 어디에 의탁하라는 뜻입니까. ‘설마 놓은 아니시겠지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찌 놓을 하겠는가’라고 하신 그 진실해 보이던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방심하

도록 속이고 급습이라니 너무도 지나친 방식이 아니옵니까...”라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면서도 의부 다카노부의 모질고 잔혹한 처사를 원망하며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는데 무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히데노마에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파멸되고, 사라지고, 깨져버린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낮이고 밤이고 쏟아낸 눈물은 이제 말라버릴 지경이었고 피를 토할 듯한 고통스러운 날들이 며칠이나 이어지자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다.

그녀는 이제 오로지 격앙된 원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어찌하여 이토록 슬프고 비참한 생각에 잠겨있어야만 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애절한 통탄과 참혹한 비탄에 밤마다 괴로워하고 날마다 매질 당하면서, 그저 의부 다카노부의 처사를 원망할 뿐이었다.

이 세상에 양부모와 자식 사이의 차별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 적어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식이라 불리는 인연에 스스로 엉클어져 풀 수 없는 마음의 실타래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든 불행이지만, 결국 처음부터 서로의 마음가짐에 달린 일이다. 의지할 사람이라고 다가온 아이가 어쩐지 꺼림칙하고 불쾌했던 것이리라. 일이 이렇게 된 이치도 거기에 있다. 어린 시절 두 번째 아버지를 갖게 된 히데노마에는 그날부터 자애로운 부친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며 어린 마음에도 서글픈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헛된 희망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모두 헛되이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카노부는 세상의 인정을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

는 강직 일변의 무장이었다. 그는 정략의 희생양으로서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일은 있어도 한쪽 부모를 잃은 가련한 공주로서 진심으로 아낀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애뜻하게 매달려 오는 그녀의 가련한 모습도 단지 하나의 값진 인형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이것도 내가 수양 자식이기 때문이겠지...”라고 그녀는 단정 지었다. 그리고 “살아갈 의미도 없는 이 몸, 오래 살아봐야 무엇 하랴”라며 허망한 심정에 잠겨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양부 다카노부는 그녀를 위해 다시 혼처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 그가 자기 사위로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최대의 적으로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하타 미카와노카미 지카시(波多三河守親)였다.<sup>118)</sup> 다카노부는 미카와노카미가 앞서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히데노마에를 시집보내 사위로 삼아 그 친분을 통해 자신의 큰 도약에 가로놓인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정원의 나무들은 모두 낙엽을 떨구어 앙상한 가지들만 남았고, 그 위로는 반달 하나가 쓸쓸히 빛을 비추고 있었다. 듬성듬성 엮은 대나무 담장 옆에는 서릿발에 시달린 가을 국화가 아직 은은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다.

밤은 이미 자시(子時) 가까운 시각이었고, 바깥은 고요하고 적적하여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히데노마에의 방에서는 등불이 대낮같이 빛나고 있었다. 다카

---

118) 이름은 하타 지카시(波多親)이고 미카와노카미(三河守)는 관직명이다. 센고쿠시대부터 아즈치모모야마 시대까지, 현재 사가현에 위치한 히젠 기시타케성 성주였다.

노부의 위로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와 수발드는 시녀의 달래는 말소리가 섞여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다카노부는 시녀가 내온 찻잔을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렇게까지 말하건만 너는 어찌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깟 시계미쓰 따위.... 게다가 이미 이승을 떠난 사람이다. 그를 위해 울어도 그 울음소리가 저승까지 들릴 리 없고, 그 눈물이 땅속으로 흘러들어 그가 받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 보람도 없는 의리를 지키느라 아까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냐. 조금이나마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겠느냐...”

허나 그녀는 오로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어찌 이리 답답하게 하느냐. 창칼을 들면 백만의 적이라도 겁내지 않는 이 다카노부가 네 앞에선 이리도 속절없구나. 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곤란케 할 셈이냐. 하타라 하면 너도 알 터이다. 와타나베 겐지(渡邊源氏)의 정통 후손, 가미마쓰우라 무사단(上松浦党)의 우두머리로 어디서든 뒤지지 않는 가문이다. 더욱이 미카와 노카미는 나이는 젊은데도 재덕을 겸비한 이로, 네가 남편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어떠냐, 예하고 선선히 승낙해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말해도 히데노마에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할 뿐이었다. 시녀는 안타까워 말하였다.

“저, 공주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전하께서 아까부터 그리도 말씀하시건만 어찌 대답을 아니 하시옵니까. 이리 우시기만 하면 전하의 마음에는 비가 내립니다. 자, 어서 생각을 정하시고 답을 올리시옵소서. 하타 가문이라 하면 당대 여러 다이묘(大名) 중에서도 훌륭한 명문이요, 게다가 인품이며 기질이며 무엇 하나 흠잡을 곳 없는 훌륭한 분이시옵니다. 그런 분과 혼인을 하신다

면...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인연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전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일이니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저 한 가지 효행은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님...”

양쪽에서 이처럼 간절히 어르건만, 히데노마에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오, 더는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제 마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결연한 자세로 말하니 다카노부가 책망하듯 물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니, 무슨 마음을 먹었더냐?”

“.....”

히데노마에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냐! 말하지 않아도 너의 흐트러진 머리채가 말해주는구나...”

“예....”

“무엇이냐? 무엇이래 마음을 정한 것이냐?”

“아버님, 불효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녀는... 소녀는 죽고자 하나이다. 죽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옵니다. 이 외에 더는 바랄 것도 없사옵니다. 부디, 제발 소녀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목메어 말하는 히데노마에의 말끝은 꺼져들어가는 듯하여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아픔이 가슴에 사무쳤다.

“또 그런 말을 하여 나를 곤란하게 하는구나. 이제 와서 죽일 작정이라면 어찌 너를 사가까지 데려왔겠느냐. 깊이 집착하지 말고 모든 일은 아비에게 맡기거라. 오늘 밤은 이만 물러나마.”

그녀의 마음이 금방 움직일 리 없음을 깨달은 다카노부는 그대로 일어나 옆방까지 배웅 나온 시녀에게 무엇인가 일러준 후 자

리를 떴다.

히데노마에는 한숨 돌리며 고개를 들었으나, 격하게 짓눌린 마음은 나가는 숨도 들어가는 숨도 고통스러워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일어나 뒷마루로 나가보니 서리처럼 흰 달빛이 정원을 위를 은은히 비추고, 하얗고 붉은 국화꽃들이 위로하듯 울타리에서 가냘프게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기둥에 기대어 쓸쓸히 서 있었다.

아아, 이것이 과연 이 몸의 운명이란 말인가.

그리 생각하며 꿈처럼 지나온 과거, 현재와 미래의 일을 꼼꼼히 생각하니 어찌할 수 없는 비애가 절절히 가슴에 밀려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생이별에 이은 사별의 눈물, 그조차 채 마르기도 전에 뜻밖에 들이닥친 억지스러운 재혼 이야기는 그녀로 하여금 더욱 이 세상을 등지고자 하는 마음을 깊게 만들었음이 틀림없다.

이전에도 그녀는 몇 차례나 단검을 들어 자결하려 하였으나 빈틈없는 시종들의 저지로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죽고자 하나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어찌하리오.

“죽을 수 없다면 이 고통에서 어찌 벗어나리… 벗어나길 없구나… 아아, 이 몸이 벗어나길은 어디에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의 부어오른 두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줄줄 흘러넘쳐 닦고 또 닦아도 그칠 줄을 몰랐다.

“공주님, 그만 주무시지요.”

젊은 시녀가 말을 걸었다.

히데노마에는 맥없이 침소에 들었으나 뜯눈으로 밤을 지냈다. 새벽 빛이 차차 희미하게 머리맡 장지에 비칠 무렵,

“후지야…”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곁에 있던 시녀를 불렀다.

“예, 부르셨사옵니까?”

시녀는 즉시 히데노마에의 머리맡으로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버님께서는 벌써 일어나 계시느냐?”

“그러하옵니다.”

하고 장지문 밖에서 저편 안쪽을 들여다 보기라도 한 듯

“벌써, 일어나신 것 같사옵니다.”

“아버님께서 일어나셨다면 어젯밤의 대답을 드려야겠다.”

“어젯밤의 대답이라 하시오면...?”

시녀는 귀를 의심하듯 물었다.

“그렇다면 공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그래, 모든 것을 전생의 인연이라 여기고 아버님의 뜻에 따라 하타가에 시집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옷의 옷깃은 흠뻑 젖어 있었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셔야지요. 전하께서도 필시 크게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이보다 더한 효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전하께 알리러 가겠습니다.”

시녀는 옆방에 대기하던 젊은 시녀들에게 뒷일을 맡기고 급히 방을 나섰다.

하타 미카와노카미와 히데노마에의 혼담은 순조롭게 성사되어 마침내 길일을 택해 혼례를 올리기로 결정되었다. 하타와 류조지 양가에서는 밤낮으로 가신들이 모여들어 여러 가지 혼례 준비로 분주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히데노마에는 그저 눈물에 잠긴 채 어두

운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오랜 심려와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와 결국 안타깝게도 병상에 들게 되었다.

류조지를 비롯한 가신 일동의 근심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의원이며 약이며 기도며 온갖 방법을 다 써 보았으나 그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듯하였다.

죽기만을 바라고 있던 그녀에게는 그야말로 뜻밖의 행운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시라도 빨리 목숨이 끊어지기를 염원했다.

히데노마에의 중병 소식이 하타가에 전해지자, 수석 가신인 야나미 무사시노카미(八並武藏守)가 급히 사가성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직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진 않았으나 이미 약혼이 이루어진 이상 히데노마에님은 어디까지나 하타가의 정실 부인이 틀림없다. 만일 이번 병으로 신상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은 곧바로 배를 가르고 그 뒤를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는 성 아래에 숙소를 정하고 밤낮으로 신불에 기도하며 오직 히데노마에의 쾌유만을 빌 뿐이었다.

이것은 히데노마에의 마음에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켰다. 세상의 차가운 바람을 한탄하며 죽고자 하였던 그녀의 마음은 이제 무사시노카미의 따뜻한 진심이 가슴 속 깊이 전해지며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그 정성을 외면한 채 죽음만을 생각하는 것은 어쩐지 미안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그녀는 무사시노카미를 가까이 불러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몸, 역시 병을 이겨내야겠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그녀의 뺨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때

로는 알 수 없는 기쁨의 기색마저 드러나 보였다. 의관은 나날이 회복되어 가는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며 속으로는 의아해하면서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단지 원기를 회복하시길 기다릴 뿐입니다.” 라며 자신이 공을 자랑하듯 말하였다.

오랫동안 음울한 분위기에 싸여있던 집안 사람들의 표정도 서서히 밝아지며 기쁨에 들뜨고, 곳곳에서는 웃음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히데노마에의 병은 이듬해 겐키(元龜) 2년(1571년) 3월이 되어 완쾌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하타 미카와노카미 지카시와의 혼례가 성대히 치러졌다.

하타 미카와노카미 지카시의 거성(居城)은 ‘기시다케 성(鬼子嶽城)’ 또는 ‘기시의 미네 성’이라 불리는 곳으로, 히젠(肥前)의 가라쓰(唐津)와 가까운 기시다케 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은 예전에 요괴(鬼)가 살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곳이다. 조겐(長元) 4년(1031년), 신슈(信州) 후쿠하라(福原) 출신의 야인이나에 다라키(稻江多羅記)라 하는 자가 이곳에 들어와 경작을 생업으로 삼고, 밤이면 나무를 상대로 검술을 익히며 떠돌이 무사의 말을 흠치기도 하였다. 그의 아들 기시다케 고카쿠(岸嶽孤角)는 대단히 강력하여 곳곳에 들이닥쳐 강도질을 일삼았으나 영주의 손길마저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오에야마(大江山)의 도적을 토벌하였던 선례에 따라<sup>119)</sup>, 와타나베노 쓰나(渡邊

---

119) ‘도적’ 혹은 ‘요괴(鬼)’로 표현되는 존재가 오에야마 산중을 근거지로 하여 인근 마을이나 교토(平安京)를 괴롭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를 토벌했던 미나모토노 요리미쓰(源頼光)의 사천왕이라 불리던 부하들 중 한 명이 와타나베노 쓰나(渡邊綱)이다. (<https://www.uminokyoto.jp/column/post/64/?u>)

綱)의 손자인 미나모토 다이후노호간 히사시(源太夫判官久)<sup>120)</sup>를 보내어 그를 토벌케 하였다. 이 공로로 미나모토 다이후노호간은 마쓰우라 군(松浦郡)을 하사받아 다스리게 되었다. 이것이 마쓰우라 무사단(松浦黨)의 효시이다. 미카와노카미 지카시(三河守親)는 그 미나모토 다이후노호간의 17대 손이었던 것이다.

8월의 무더운 계절, 시원한 곳을 찾아 가라쓰 해안으로 발길을 옮기는 여행객은 지금도 야마모토 역 남쪽으로 한참을 지난 곳에 가파르게 솟은 산봉우리, 녹색의 바람이 흐르는 듯 도끼 자국의 상처를 감싸며 노송과 오래된 삼나무가 우거진 그곳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시다케 성, 팔만 삼천 석의 영지를 품었던 옛 성터이다.

히데노마에가 이곳에 시집온 후 십수 년 동안 특별히 큰일이 없었다. 그만큼 그녀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하였다.

그러나 쉬지 않고 돌고 도는 봄비와 가을바람이 결국 꽃을 흩뜨리고 달을 가리는 것처럼, 즐겁고 평안했던 미카와노카미 부부의 신상에도 마침내 가슴 아픈 날이 찾아왔다.

그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이었다. 이는 참으로 하타가로서는 원망스러운 화근이 되었다.

태합(太閤)<sup>121)</sup>이 규슈로 내려올 때, 규슈의 여러 다이묘들은 모두 하카타까지 나아가 맞이하였다. 그리고 기노시타 한스케(木下半助), 후쿠하라 우마노조(福原右馬之允)가 주선하여 시마즈,

---

tm 참고)

120) 미나모토 다이후노호간 히사시(源太夫判官久)에서 성명은 미나모토 히사시이고 '다이후노호간'은 관직명이다.

121) 본래는 섭정이나 태정대신을 높여 부르는 칭호였고, 나중에는 관백에서 물러난 뒤에도 특별히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관백 자리를 자식에게 양도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례로도 쓰였다. 쇼군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스스로 조정의 최고 지위인 태합에 올랐다.

류조지, 아키즈키, 오토모, 다치바나, 오무라, 고토, 마쓰우라 등은 차례로 알현의 예를 올렸으나 유독 하타 미카와노카미 지카시만은 배석하지 않았다. 태합은 주위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하타 미카와는 어찌하여 오지 않았는가!”

이때 나베시마 가가와노카미 나오시게(鍋島加賀守直茂)(앞서 쓰던 관직명과 이름은 사에몬 다이후 노부오(左衛門太夫信生)이다)가 나아가 고하였다.

“하타 미카와는 제 부하로 있는 자입니다. 제가 알현드리게 되었으니 그가 없어도 지장은 없을 것이옵니다.”

태합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다이묘 이하의 규슈 무사 스무명 가량이 알현하고 있을 때, 미카와노카미가 허겁지겁 달려와 주선자에게 사정을 호소하였다. 이에 기노시타 한스케가 고하였다.

“하타 미카와노카미가 배석하였사옵니다.”

하지만 태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미카와노카미는 어정쩡하게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나고야 성에서도 아사노 단조노쇼히쓰(淺野彈正少彌)나 이시다 지부노쇼(石田治部少輔)등에 의지해 어떻게든 형세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결국 독대를 허락받지 못한 채 “조선에서 귀환한 뒤 별도의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 그리하여 미카와노카미는 2천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등 여러 장군과 함께 분로쿠 원년(1592년) 4월 1일, 나고야의 포구에서 출정하여 조선 정벌 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그의 부재중에 벌어진 사태가 시작되었다.

때는 분로쿠 2년(1593년) 6월 20일, 나고야성에 머물고 있던

태합에게서 갑작스럽게 기시다케 성으로 사자가 도착하였다.

“이번에 나고야성 안에서 위로 연회를 열게 되었으니 미카와 노카미의 부인도 참석하라는 태합의 명이니입니다.”

이것이 사자의 전언이었다.

예로부터 영웅은 색을 좋아한다고 하나 실로 태합만큼 여색을 좇는 자는 드물다. 만일 미모의 여인이 눈에 띄면 설령 부하 장수의 첩실이든 누구의 아내든 개의치 않았다. 상대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강제로 저택에 끌어들여 난잡하고 음탕한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교토에는 요도기미(淀君)를 비롯해 산조(三條), 가가(加賀), 교고쿠(京極)라 불리는 애첩이 있고, 나고야 성에도 히로사와(廣澤)라는 절세 미인을 가까이 두고 있었다. 그러나 끝없이 여색을 탐하는 그의 본능은 이러한 때에도 멈추지 않고 원정 떠난 여러 장군의 첩실을 노렸다. 부하들이 없을 때 홀로 규방 침상에서의 쾌락을 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삼은 이가 다름 아닌 히데노마에였다.

사자의 전언은 하타가의 가신 다시로 휴가노카미(田代日向守)가 받아서 그 내용을 히데노마에에게 전하였다. 히데노마에는 이미 태합이 방자하고 호색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태합의 명이라 하오나 남편께서 귀환하지 않으신 지금 이 성을 지켜야 할 몸이 어찌 성을 나설 수 있겠사옵니까. 그리 전하시지요.”

그렇게 말하고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휴가노카미는 이러한 뜻을 사자에게 전하였다. 사자는 돌아가 그대로 태합에게 보고하였다.

태합은 크게 분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사자를 보냈다.

“여자된 몸으로 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꾸며대 군령을 거절하는 것은 지극히 불손한 일이다. 아무튼 즉각 등청하라.”

태합의 권위를 등에 업은 사자의 통보였다.

히데노마에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자 사자는 돌아갔다.

흰 비단에 오색실로 남천촉(南天燭)<sup>122)</sup>을 수놓은 겹옷, 옅은 황색 비단에 작은 나비 자수를 놓은 홑옷, 그리고 붉은색 하의를 입은 히데노마에는 시녀 셋과 구가 겐반노스케(久我玄番助), 구로카와 사겐타(黒川左源太) 이하 하급 무사 삼십여 명을 거느리고 그날 정오가 되어 나고야성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격식에 따라 설치된 자리에서 연희를 관람하도록 명받았다. 이윽고 연극과 풍자극 등의 여흥이 끝나자 서둘러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태합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자, 한 시녀가 나타나 그녀를 태합의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곳은 마치 산중의 다실처럼 꾸며져 있었고, 마침 주연이 한창이었다. 태합은 술잔을 손에 쥔 채 히데노마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곧 소리내어 크게 웃었다. 그리고 곁의 시녀에게 무엇이냐 눈짓을 하자, 시녀는 알아들었다는 얼굴로 다른 시녀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 자리에 남은 이는 태합과 히데노마에 뿐이었다. 그녀는 놀랐으나 이제 와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싶어 안절부절못했다.

이윽고 태합이 입을 열었다.

---

122) 남천 혹은 남천촉, 남천죽이라고도 하며, 붉은 열매가 촛불처럼 빨갛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https://www.hc.go.kr/09419/09433.web?gcode=2087&idx=29001549&amode=view&cpage=3> 참고)

“오늘 그대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대의 남편 미카와노 카미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밀고가 들어와 그 진위를 확인코자 일부러 부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해명한다면 그것으로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을 따라 내 첩이 되거라. 어느 쪽이든 대답을 들은 뒤 그대를 성으로 돌려보내겠다.”

생각지도 못한 난제를 받게 되었다.

히데노마에는 엄청난 사태에 쓰러질 듯 놀랐다. 설령 무슨 고발이 있더라도 미카와노카미 같은 분이 모반을 꾀할 리 없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밀고가 있다고 하니 그 증거도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고 하려 해도 아무 해명할 증거가 없다. 설령 증거가 없다고 해도 한 지역의 성주의 아내에게 첩이 되라니, 이 얼마나 천박한 말인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창백해진 얼굴을 소매로 가렸다.

“어찌하겠느냐.”

태합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동시에 히데노마에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부서진 것 같은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왔다. 그러나 일단 즉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하자 우선 옆 방으로 물러나 있게 되었다.

이미 해는 저물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에는 안타까운 슬픔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무심결에 품속에 넣어 두었던 단검에 손이 갔다. 그러나 잠시 후 ‘만일 이 자리에서 자결한다면 남편의 신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하고 생각이 짧은 태합이라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음모 운운하며 이 일을 구실로 수많은 병력을 보낼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남편뿐 아니라 하타 가문 전체가 돌이킬 수 없이 파멸하

게 될 것이다.’라고 깨닫게 되었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몸인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있는데 “전하께서 들어오라 하옵니다.”

하고 조금 전 그 시녀가 부르러 왔다. 가면 노골적으로 설득하려 들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해서 다네히데 부젠(胤榮豊前)<sup>123</sup>의 첫째 딸이기도 한 이 몸이 무거운 잠옷 위에 어찌 원수의 옷자락을 겹칠 수 있으리. 그러나 태합 정도의 영웅도 어두운 연애행로에서 사리분별 못하고 추악하게 능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이 몸의 정조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하고 가만히 방 안을 둘러보던 그녀의 눈에 문득 옆에 놓인 다도용 화로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이거다 하고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화로 곁으로 다가갔다.

화로 안에는 아직도 숯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속에 부젓가락을 꽂아 넣었다. 히데노마에는 마침내 부젓가락이 벌겍게 달구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붉은 입술로 한 번 숨을 뺏는가 싶더니 그것을 곧장 자신의 왼쪽 관자놀이에 대어 눌렀다.

어찌 견딜 수 있으랴. 한 줄기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 보였다. 피부는 갈라지고, 살은 문드러지고, 바로 조금 전까지 꽃같던 얼굴빛도 끔찍하게 일그러진 형상으로 바뀌었다. 이때 태합이 기다리고 계시다며 세 번째 시종 왔다.

굳센 심지를 지닌 히데노마에는 고통을 견디며 두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시녀가 이끄는대로 손을 잡혀 끌려갔다. 시녀는 히데

---

123) 본명은 류조지 다네히데(龍造寺胤榮)이다. 부젠(豊前, 현재 후쿠오카현 동부와 오이타현 북서부) 히젠(肥前, 현재 사가현 및 나가사키현 일부)에서 카미(守), 슈고(守護)라는 관직을 맡은 바 있다.

노마에의 손을 잡고 내실 깊숙한 곳으로 이끌더니 상단의 침상으로 보이는 곳의 맹장지를 열고 히데노마에를 병풍 뒤로 밀어넣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거기 누구 없느냐!”

태합의 황급한 목소리에 놀라 속직을 보던 이코마 도노모리(生駒主殿)가 옆 방까지 다가왔다.

“이 여자, 단검을 품고 우리 앞에서도 거리낌없이 꺼내다니 무엄하기 그지없다. 꼭 보고할 일이 있으면 하고, 성으로 돌려보내 조용히 지내도록 일어두어라.”

라며 심상치 않은 분노를 드러냈다.

이리하여 이듬해 분로쿠 3년(1594년) 2월, 조선에 출정했던 병사들이 차례로 귀국하고 위아래 할 것 없이 만세를 제창하는 가운데 하타 미카와노카미 지카시도 눈부신 전공을 안고 귀환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운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바다에서 곧장 조슈의 쓰쿠바산 기슭으로 유배되었다.

한 통의 글을 올립니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은 전생의 업보라고 해야겠지요. 그대는 물론이고 정무를 함께 보던 여러분들, 특히 오카모토(岡本) 집안과는 인연도 깊은 만큼 상의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히코사부로(彦三郎)를 잘 키워달라는 것입니다. 등나무 물빛이 스며들 듯 해가 저물어가니 내 마음 또한 거칠고 혼탁한 색으로 물든 채.

3월 9일 고세이(好清)로부터

히데노마에에게

앞끝에 맺힌 이슬도 뿌리 쪽의 물방울도 세상에서 늦게까지 남거나 먼저 사라지는 예가 되는 것이겠지.

— 편지로 남기고자 하는 뜻

— 이번 일은 불운이며, 분명 시마(志摩)의 소행이나 그렇다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순순히 성을 넘길 것.

— 서툰 내 자손이 무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구는 선조 하타 야마토노카미 히사카쿠(秦大和守久覚) 공께서 사용하신 것이니, 속히 성에 묻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 금전은 모든 무사들과 하급 병사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기 바랍니다.

— 가문의 계보는 히코사부로에게 넘기되, 장성한 후에는 무사가 되겠다는 뜻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미카와노카미가 유배지에서 아내인 히데노마에 앞으로 보낸 편지이다..

하타 가문은 이렇게 몰락하였다. 그리고 히데노마에는 외아들 히코사부로와 함께 사가로 돌아왔다.

때는 3월. 봄도 점차 가지에 잎을 되돌리고, 산과 들, 언덕에도 빛과 생기가 충만했다. 하지만 그것은 딴 세상의 봄이요, 하타 가문의 사람들에게는 하늘도 땅도 아름다움도 오히려 괴로운 것의 하나일 따름이었다.

그렇게 봄과 가을이 몇 번이나 바뀌고, 게이초 3년(1598년) 4월, 두견새가 새로 돌아난 잎의 그림자 속에서 피를 토하듯 울 무렵, 갑자기 미카와노카미가 병사했다는 비보가 유배지로부터 전해졌다. 아아, 덩굴진 침과 등나무가 무언가에 몸을 감지 않고

서는 무성할 수 없는 몸인데, 의지할 힘이라 믿어 온 큰 나무의 줄기가 썩어버렸음을 알았을 때, 히데노마에의 마음은 어떠했으랴. 이때 이 애처로운 부인에게 단 하나의 작은 희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오직 외아들 히코사부로로 성장뿐이었다. 그러나 아아, 그러나 하타 가문에는 도대체 무슨 깊은 원한이 쌓여 이러한 응보를 받는 것인가. 이 히코사부로도 또한 그 뒤 갑자기 감기가 원인이 되어 끝내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히데노마에는 거듭된 불행 속에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니 놀랍고 기가 막힐 뿐이었다.

이리하여 그녀는 머리를 깎고 이름도 묘안니(妙安尼)로 바꾸었다. 그리고 성 아래에 건물 한 채를 세우고 묘안지(妙安寺)라 이름지었다. 이렇게 세간에서 멀어진 묘안지는 까마귀 소리에 날이 밝고 저녁매미 소리에 날이 저무는, 고요하고 조용한 여름을 보냈다. 그러나 히데노마에 묘안니의 마음에는 늘 분노가 타오르고 그 가슴에서는 비애가 더해졌다. 바느질에 마음을 붙여보려 해도, 아침저녁 불공으로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한순간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애써보아도 마음속 번민과 고뇌와 분노가 뒤엉킨 싸움은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침내 참담한 비극으로 나타났다.

때는 게이초 4년(1599년) 7월 30일 새벽, 달이 지고 동쪽이 붉은 하늘이 점차 밝아지려 할 무렵, 기시다성에서부터 충실히 곁을 지켜온 시녀 오하루는 묘안니의 기력이 꺼져가는 듯한 목소리를 듣고 잠이 깨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황급히 묘안니의 방으로 달려가 보니, 이제 어찌된 일인가, 묘안니가 꺼져가는 등불 아래에서 자신의 목을 단검으로 찢러 붉게 물들어 쓰러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오하루는 깜짝 놀라 급히 묘안니를 껴안아 일으키며 “왜 이런 자결을 하셨습니까, 마님, 마님, 마님”

귀에 입을 대고 목소리를 다해 부르며 되살리려 하였다. 그러나 묘안니는 간신히 두 눈을 한 번 깜박였을 뿐, 옷칠처럼 검은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목덜미의 상처에서 새빨간 피가 주르르 흘러 옷깃을 타고 가슴으로 흘러내려 눈처럼 하얀 승복을 적셨다.

“마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하루입니다. 하루라구요!”

그렇게 미친 듯이 부르짖자, 거의 죽어가는 와중에 묘안니는 또렷이 오하루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 오하루냐...”

하고 말을 이으려 하였으나, 심한 상처와 출혈로 기력이 쇠하여 이제는 호흡조차 버거웠다.

“내 남편은 아무 죄 없이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애초에 나로 인해 벌어진 일, 진즉 자결하였어야 함에도 오늘까지 염치없이 목숨을 이어온 것은 적어도 외아들 히코사부로의 성인이 되는 것을 보고, 하타 가문의 이름을 재건시키겠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천신만고의 고생도 그것을 위해서라면 보람이 있고 어떤 괴로움과 수고도, 치욕도, 그것을 위해 견디려 했다. 허나 그 아이마저 세상을 떠난 지금, 어찌 목숨을 아까워 하겠느냐. 이미 이 세상에서 소망도 사라졌고, 집안을 다시 일으킬 희망도 사라졌다. 다만 억울한 것은 태합의 비정함에, 무엇...무엇 하나...보답을 얻지 못하고...”

라고 절절하게 말하는 사이, 기력은 점점 쇠하여 이제 말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 금세 눈동자의 색이 변해가는 것을 보고 오하루는 더욱 당황해 탁자 위에 있던 꽃병의 물을

입에 머금고 묘안니의 입에 넣어주자 물이 저절로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갔다. 묘안니는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떴다가 다시 힘없이 눈을 감았다. 향년 48세를 일기로 히데노마에 묘안니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무덤은 처음에 묘안지에 있었으나 지금은 옮겨져 사가 시외의 혼조촌에 있는 고덴지(高傳寺)에 있다.

# 회보

## 회비 수입보고

(본 보고로 수령을 증명하며 별도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금 532,500원     2월 중 회비 수입고

## 내역

금액	1,200	,600	2,400	2,400	2,100	1,500	7,500	11,700	5,700	5,100
관청명	지사 외 4명	비서과	문서과	지방과	사회과	학무과	권업과	농무과	토목과	회계과

금액	3,300	2,700	4,200	1,200	,600	2,100	4,500	37,200	9,000	12,300
관청명	세무과	이재과	경무과	고등과	보안과	위생과	대구부	안동군	영양군	영덕군

금액	51,300	33,300	60,900	34,420	35,920	51,000	9,300	14,100	15,300	17,300
관청명	영일군	상주군	문경군	예천군	영주군	봉화군	대구 경찰서	군위 경찰서	익성 경찰서	안동 경찰서

금액	6,200	3,900	4,200	13,800	7,200	8,400	16,200	3,300	9,540	1,500
관청명	영양 경찰서	영덕 경찰서	경주 경찰서	영천 경찰서	경산 경찰서	성주 경찰서	왜관 경찰서	김천 경찰서	문경 경찰서	상주 농학교

금액	900	,600	1,500	15,300
관청명	금융조합연합회	달성금융조합	순사교습소	대구소학교

## 회원 성명(5)

### △영천군(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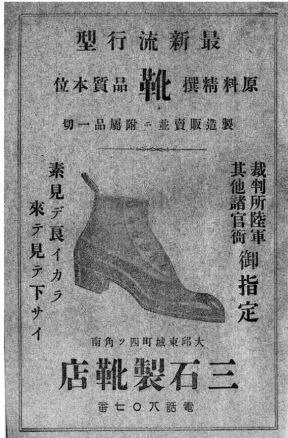
다나카 히데(田中秀) 야나기 마사(柳正) 야가타 오쓰(屋形乙)  
오가와 가즈오(小河一男) 김남식(金楠軾) 양인금(楊仁金) 엄기섭  
(嚴琦燮) 고토 유조(後藤祐三) 하기와라 시게하루(萩原治重) 오  
야 진타로(大矢甚太郎) 다나베 도시오(田邊利夫) 정구화(鄭鉉和)  
가와하라 세이치로(河原清一郎) 이찬기(李燦基) 유동식(柳東植)  
시라쓰루 쇼쿠도(白鶴食堂) 고지마 요시타로(小島儀太郎) 무타  
도쿠타로(牟田徳太郎) 사가라 세이조(相楽省三)

### △의성군

손해진(孫海震) 구라오카 기헤이(倉岡喜平) 오노 료타(小野良  
太) 구로다 후지로(黒田藤浪) 김순항(金淳恒) 히라노 마사요시(平  
野正義) 우메즈 요시오(梅津良雄) 오경원(吳慶源) 최진용(崔鎭龍)  
이영우(李英雨) 최인환(崔仁煥) 권태국(權泰國) 이규호(李圭鎬)  
도미타 도나미(富田斗南) 도쿄로 간기치(所寛吉) 강호명(姜鎬明)  
기시마 선지로(木島千次郎) 우규삼(禹奎三) 오니시 유타치(大西  
勇一) 김찬(金 瓚) 김재순(金在純) 이장식(李章植) 김희순(金熙  
淳) 이흥구(李鴻九) 임형섭(林亨燮) 이석년(李碩年) 정종열(鄭宗  
烈) 김주석(金柱錫) 강화형(姜華馨) 변기수(卞璣秀) 남원복(南元  
福) 김병두(金炳斗)

## △영덕군

야마모토 신기치(山本信吉) 이규학(李圭學) 신극영(申極永) 박정윤(朴正允) 미야우치 만시치(宮内萬七) 이창공(李彰攻) 마키에 아키하루(牧江明治) 배진기(裴震基) 김영한(金英漢) 홍세영(洪世榮) 요시나가 요시오(吉永義夫) 후쿠모토 오야오(福元親雄) 김종삼(金鐘三) 김재형(金在馨) 정기모(鄭基模) 서병근(徐丙根) 서병소(徐炳昭) 시마 유이치(島友一) 김석봉(金錫鳳) 조윤기(趙允基) 이다 이치로(飯田一郎) 방내진(方廼震) 강병규(姜秉圭) 홍의식(洪義植) 도요나가 요시히코(豊永義彦) 미마키 기치노조(三卷吉之丞) 최정로(崔鼎魯) 아리무라 세이치(有村清一) 이규선(李圭善) 박재환(朴裁煥) 유동욱(柳東郁) 남효읍(南孝揖) 신병용(申秉龍) 신응식(申應植) 김동연(金東淵) 오시마 고고로(大島幸五郎) 에모토 기이치(江本喜一) 우에노 가즈오(上野和夫) 스에나가 지로쓰구(末永次郎次) (이하 다음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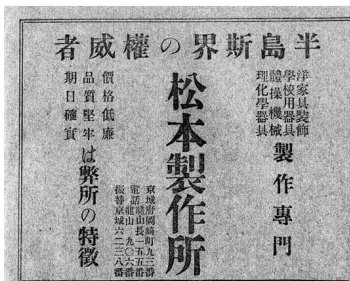


### 미이시 제화점(三石製靴店)

대구부 동성정 사거리 남쪽  
전화 807번  
최신 유행형  
원재료 엄선과 품질 본위의 구두  
제조 판매 및 부속품 일체  
재판소, 육군, 기타 제 관아 지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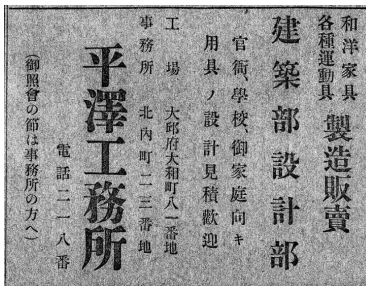
보기만 하는 것도 괜찮으니 와서 보십시오

### 마츠모토 제작소(松本製作所)



반도 사회의 권위자  
서양 가구 장식, 학교 용품, 체조용 기계, 이화학  
(理化学) 도구 제작 전문  
저렴한 가격, 견고한 품질, 확실한 기일 준수는  
저희 제작소의 특징  
경성부 강기정(岡崎町)124 93번  
장(長)전화 : 용산(龍山) 155번  
전화 : 용산 906번  
대체 : 경성 6238번

### 히라사와 공무소



공장 대구부 대화정 81번지  
사무소 북내정 23번지  
전화 218번  
일본, 서양 가구, 각종 운동기구 제조 판매부  
건축설계부  
관청, 학교, 가정 용구의 설계, 견적 환영  
상담은 사무소로

124) 현 용산구 갈월동의 일제강점기 명칭으로 경성부 갈월리(葛月里) 일부를 강기정(岡崎町)으로 칭하였다.

## 경북연구회 규약

제1조 본회는 경북연구회라 칭하며 조선의 시정 방침 및 지방행정 기타 제반 상황을 주지시키고 또한 회원 상호의 지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 사무소는 경상북도 도청 안에 둔다.

제3조 본회는 경상북도 관내의 관공리 및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조직한다.

제4조 회원의 회비로 매월 금 삼십 전을 납부해야 한다.

제5조 본회에서 시행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 행정 기타 직무 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일
2. 잡지 '경북'을 발간하고 회원에게 배포하는 일.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연 또는 의견 교환을 위한 회원의 집회를 열 수도 있다.

제6조 '경북'은 매월 5일 발행한다. 단 필요할 때는 임시 증간할 수도 있다. '경북'에 게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 방침, 시사, 지방행정, 농상공 교육, 토목, 경찰, 재정, 경제, 금융, 학술, 기예 및 통계 등의 보도 및 논설
2. 조사 및 연구
3. 지방 사정
4. 법령 및 질의
5. 인사
6. 문예란
7. 해방란

제7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위원 약간 명, 간사 약간 명

제8조 회장으로서는 도지사를 추대하고 부회장, 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이를 촉탁한다.

제9조 회장은 연구회의 사무를 총리(總理)<sup>125)</sup>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위원은 중요한 사무를 평의한다. 간사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10조 각 연도 시행과 관련된 본회의 성적 및 서무 회계의 보고는 잡지 '경북'에서 발표한다.

**잡지 『경북』(매월 1회 5일 발행 100페이지 내외) 1부 정가 35전**

정가표		광고료	
개정	선금		1회 1페이지
6개월	1원 70전	보통	20원 상당
1년	3원 40전	특별	30원 상당
중간 및 증대호는 정가가 같지 않으므로 값이 부족할 때는 차액을 별도로 받는다.		1년 단위 및 3회 이상은 광고 요금을 할인하기로 하고 매번 광고 의뢰자와 의논한다.	

1923년 3월 3일 인쇄 납본

1923년 3월 5일 발행

제2년 제3호

발행인 경상북도 문서과장

대구부 상정(도청 앞)

인쇄인 시모이시 고야(下石幸也)

---

125) 사무를 통일 관리함.

조선 대구부 상정(도청 앞)  
인쇄소 대구인쇄합자회사

조선 대구부 상정 경상도청내  
발행소 경북연구회

[해제1]

## 잡지 『경북』의 역사적 가치와 1923년 3월호(7권) 내용 개괄

### 1.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의 역사적 가치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慶北)』은 1922년 9월에 창간되어 1925년 3월까지 간행된 월간지 형태의 공보잡지(公報誌)이다. 발행 주체는 당시 대구부(大邱府) 상정(上町)의 경상북도청 안에 있었던 경북연구회(慶北研究會)이다. 경북연구회 회장은 도지사가 맡았고 부회장은 부지사가 맡았다. 잡지 발행인은 경상북도 문서과장(文書課長)이었다. 『경북』은 발행 주체와 발행인 정보만 보더라도 일반 민간 잡지가 아니라 공적 목적으로 간행한 공보잡지였음을 알 수 있다. 권당 분량은 1922년 창간호(1권)만 약 80페이지이고, 1922년 10월호(2권)부터는 약 100페이지~150페이지에 이른다. 잡지 『경북』은 권당 분량과 내용 구성만 보더라도 당시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이례적이다. 이 이례성은 자료가 지니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귀중 기록물이다.

첫째, 『경북』은 1945년 이전 한반도 전체의 12개 부(府)와 13개 도(道) 단위 지역, 달리 표현하면 현재의 광역자치체 단위에서 발간된 근대 행정 공보잡지 가운데 가장 빠른 사례에 해당한다. 경상북도가 근대 시기 전국 행정 공보잡지 가운데 가장 빠르면서

도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든 것이다. ‘경상북도’라는 행정 단위 명칭이 탄생한 것은 1897년 광무개혁 시점이었다. 이때 경상북도는 수부(首府)인 대구군(大邱郡)을 포함한 41개 군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 단위였다. 이후 경상북도가 현재와 같이 대구와 행정적으로 분리된 것은 1914년 부제(府制) 실시 시점이다. 조선총독부는 전국 12개 거점 도시를 부(府)로 지정하면서 13개 도(道) 단위 행정과 분리시켜 가는데, 경상북도는 이 과정에서 대구와 독립된 행정 체계를 처음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은 근대 행정 조직 역사에 비추어 보면 1922년 시점에 경상북도가 근대 도정 잡지 『경북』을 창간한 것은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성이 역사적으로 최초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도정 기록물을 낳은 것이다.

1945년 이전 전국의 부(府) 혹은 도(道) 단위 행정 자료 발간 상황을 확인해 보면 경상북도가 간행한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이 얼마나 선구적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경성부(京城府)는 1921년에 『경성휘보(京城彙報)』를 창간했지만, 분량과 체제가 월 1회 발간되는 신문 정도에 머물렀고 『경북』처럼 잡지 형태를 갖춘 것은 1925년 이후이다. 평양부(平壤府)의 『평양휘보(平壤彙報)』도 1922년 창간 시점에는 월간신문 형태였고 1931년이 되어야 월간잡지 형태로 간행되었다. 부산부(釜山府)도 1926년 7월이 되어야 잡지 『부산(釜山)』을 창간하고, 인천부(仁川府)는 1934년이 되어야 월간 『인천휘보(仁川彙報)』를 발행했다.<sup>126)</sup>

둘째,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은 13개 도(道) 단위에서 월간 형태로 발간한 유일한 근대 도정 자료이다. 앞서 살펴본

126) 坂本愁一 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桜井書店, 2007), p.58.

근대 시기 주요 지역별 행정 공보잡지 사례는 모두 부(府) 단위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5년 이전에도 단위에서 근대 도정 자료를 월간 형태로 발간한 지역은 경상북도가 유일했던 것이다. 어떻게 경상북도만 이와 같은 근대 도정 자료 발간이 가능했는지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당시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조세 납부액을 내는 지역이었다는 점과 ‘경북연구회(慶北研究會)’라는 조직 체계 구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해제 집필자의 전문 영역을 벗어나 확정은 어렵지만, 도지사가 회장을 맡고 부지사가 부회장을 맡아 관내 관공리를 가입시킨 ‘연구회’를 조직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공유한 사례는 당시 도 단위 행정 기관에서 흔치 않은 사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프랑스문학도 읽을 수 있었던 저널리스트 출신 전문 편집인을 고용해 행정, 경제, 산업,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 예술, 해외 정보까지 아우른 평균 100페이지 이상의 두툼한 월간지를 발간한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적용해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은 창간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 잡지 『경북』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이 1920년대에 접어들어 전국 도 단위 행정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의 귀중 자료이다. 『경북』은 1922년 9월에 창간되었다고 소개했는데, 근대 도정 자료가 1920년대에 접어들어 간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창간 시점은 역사적 이유와 맥락이 분명히 존재했다. 일본은 1910년 이후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정책을 위해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단위 행정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중요 조치는 1914년의 부제(府制) 시행이었다. 이 시점에 행정 정책의 우선순위는 전국 12곳 부 단위 도시 지역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시야를 넓혀 보면 1910년에 시작해 1917년 무렵에 마치는 토지조사사업 또한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최우선 정책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7년에 면제(面制)를 새롭게 시행하는데, 이 면제 시행은 부(府) 단위에 이은 도(道) 단위 행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요 조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1917년부터 새로운 면제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도 단위 행정 정책이 토지조사사업으로 구축·재편한 토지 소유에 기초한 세금 징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에 진행한 위와 같은 정책은 ‘무단통치, 헌병경찰제도’와 같은 역사 용어가 상징하듯이 일방적이고 거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1920년대 접어들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일본 본토로 이주하는 조선인 숫자가 일본 본토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인 숫자를 단숨에 따라잡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언한다. 조선총독부도 1910년대 식민지 지배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고민해야 했고 그 결과가 이른바 ‘문화통치’로 대표되는 정책 전환이었다. 물론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 정책 전환이 1910년부터 본격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을 견지하는 동시에 오히려 부드럽게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경상북도의 근대 도정 잡지 『경북』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이 전국 도 단위 행정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유일한 귀중 자료인 것이다.

## 2.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 1923년 3월호(7권), 목차별 주요 내용

### 권두언

『경북』의 편집자 니시에 야스(西江靖)가 쓴 글이다. 주제는 인류의 진화로, 국가라는 존재, 인류의 진보, 인간에게 가해지는 자극 등 인류의 진화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 후지카와 리사부로 회장을 보내며

이 글은 1919년 9월 26일부터 1923년 2월 24일까지 경상북도 지사를 지낸 후지카와 리사부로(藤川利三郎)가 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송별사이다. 후지카와 리사부로는 송별사에 있듯이 한반도 최초 행정 공보잡지 『경북』을 발간하는 주체인 ‘경북연구회’를 만든 인물인 동시에 일제강점기 일본인 주요 관료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대한제국 정부 재정고문, 조선총독부 서기관, 탁지부 세무과장, 평안북도장관을 거쳐 경상북도지사로 부임했다. 이러한 그의 이력은 송별사가 언급한 재무, 화폐, 세금, 은행 및 금융조합 분야 이력과 연동된다. 일제강점기 도 단위 최고 관직은 1919년 8월 이후 도장관에서 도지사로 바뀌는데, 그는 경상북도 최초 도지사로 재임했고 임기 중에 한반도 최초 행정 공보잡지 『경북』을 발간했다.

### 조선의 산업(하)

이 글은 1922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산업자문회’에 참석한 조선총독부 식산국장 강연 기록

이다. 강연 기록의 절반은 앞서 잡지 『경북』 1923년 2월호(6권)에 게재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본 권에 수록되었다. 본 권 수록 내용은 지주와 소작인 관계, 면작 장려 정책과 주요 성과, 임업에서 국유림 관리·민유림 조림 촉진·산야 복구 및 존치림 처분, 수산업에서 어획량 증진·어획물 활용책·어민 보호 및 개량, 공업에서 장려할 공업 종류, 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한 강연 요지이다. 경상북도는 1920년대에 한반도에서 최초로 ‘산업자문회’를 조직해 운용했는데, 이러한 자문회의 역할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조선총독부 식신국장을 초청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한반도에서 최초로 조직된 경상북도 산업자문회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조선총독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 면 행정 감독에 대하여

이 글은 1917년 면제(面制)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면 단위 행정 정착 흐름 속에 있는 글로서 특히 면 행정 감독, 감독자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면 단위 조직은 일제강점기 행정조직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조직이었고, 그런만큼 면 단위 행정 정착은 장기간에 걸친 중요 행정 정책이었다. 한반도 최초 행정 공보잡지 『경북』이 1922년 9월에 창간된 주요 배경도 면제의 안착이었다. 이는 『경북』의 수록 내용이 상당 부분 면 행정 사무와 면 관리 업무에 할애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 권에 수록된 글은 면 행정 감독의 중요성 및 시급성, 면 행정 감독이 잘 보급되는 않는 이유, 면 행정 감독상의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면 행정 감독 주의 사항으로 꼽은 7개 항목은 당시 면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전해주는 기록인 동시에 1920년 전반기 한반도 면 행

정 역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조선 잠업 장려를 위해 관리의 분발을 바람**

이 글은 1920년대 일본 잠업의 현황과 세계 잠사 시장의 변화, 그리고 조선 잠업 진흥의 필요성을 보고하는 글이다. 저자는 일본의 외국무역에서 잠업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농가 부업에서 출발한 일본 잠업이 전업화로 전환했으나 생산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실값 폭락 등 경쟁 심화로 한계에 직면했음을 지적한다. 특히 중국 잠업의 급속한 성장과 가격 경쟁력을 위협 요인으로 제시한다.

## **모르핀 은자(隱者)**

이 글은 대구경찰서 경찰부장 다카스키 곤조가 당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 모르핀 중독자 증가현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다카스키는 대구경찰서가 검거한 모르핀 중독자들의 공술을 토대로 중독 원인과 현황, 그들의 직업, 중독자의 주사 연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구경찰서가 실시하고 있는 치료 방법 및 검거 상황 등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 **조선의 단급 소학교 현황**

단급소학교는 교사 1명이 한 교실에서 전교생을 가르치는 소학교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단급소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로쿠인生이라는 필명의 저자가 1919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편찬한 ‘조선제학교일람’을 참고하여 조선 전체의 단급소학교 수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단급소학교 교원이 겪는 고충과 그에 따른 개선점, 바람직한 교사상 등을 기술하고 있다.

## 사과 해충 구제 방법 실적

이 글은 경북 사과 재배의 시작과 확산, 그리고 경상북도의 병해충 방제에 대해 기록한 보고서이다. 심식충, 잎말이벌레, 면충 등 주요 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이를 방제하기 위한 포살, 봉지 씌우기, 청산가스 훈증, 석회 보르도액 살포 등의 효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한다. 또한 방제에 투입된 인부, 비용 내역, 수입과 순수입 계산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경제성과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병해충 방제가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 수산시험장 개시에 대해

이 글은 경상북도에 신설된 도 수산시험장의 개설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지역 수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기부와 예산 지원으로 설치된 시험장은 해안선은 짧지만 어획량이 많은 경북 어업의 발전 가능성을 근거로, 어선 대형화·가공·유통 개선·자원 보호 등 향후 방향을 모색하며 타 지역·국립 시험장과 연계 필요성도 강조한다.

## 비서 과장에게 부탁하는 글

조선의 시골 벽지에서 근무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아무쪼록 재능 있는 관리는 대구나 달성과 같은 곳으로 파견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쓴 글이다.

## 경주와 교재 연구(1)

이 글은 1923년 보통학교 교과서에 실린 경주 관련 교재를 검토한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인용해 알천 양산촌 등 여섯 촌의 기원과 나정에서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혁거세 설화를 통해 신라 건국의 기원을 설명하는 동시에 경주의 유적 유물과 연결지어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흥미를 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거지의 생활을 답사하고

이 글은 1923년 시점에 경북구제회(慶北救濟會) 운영을 맡고 있던 일본인 후지이 주지로(藤井忠治郎)가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를 기록한 글의 하나이다. 이 기록을 포함해서 후지이 주지가 1920년대 전반기에 기록한 대구와 경북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물 가운데 가장 선구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수록한 중요 기록물이다. 후지이 주지로는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 일부를 잡지 『경북』에 총 8회에 걸쳐 연재했고 이를 포함해 1926년에 『조선무산계급연구』라는 총 250여 페이지에 달하는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료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에서 가장 선구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기록에 해당한다. 잡지 『경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초로 기록한 중요 기록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본 권에 수록된 글은 조선인 걸식자들이 추운 겨울밤을 지내는 모습과 기록, 그들의 어려움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 10대 걸식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 기록을 담고 있다.

## 권업과 통신

농회, 사무분장 개정, 관리들의 출장, 1923년도 지방비 사업, 수산시험장, 도량 기구들 공동구입, 영일만의 청어 어황(漁況), 어업조합, 식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산업 계획 요강

경상북도 산업자문회의 자문을 거친 경상북도 산업계획 요강에 관한 글로, 각 산업 분야 즉 농업, 산미, 쌀 이외 주요 식용작물, 특용작물, 원예작물, 비료, 새끼줄 가마니, 농업기구, 소농 보호, 농업 연구 및 장려 기관, 목화, 잠업, 축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 대구의 무역 개황

1923년 총무역에 관한 글로 주요 수 수출은 쌀, 대두, 면직물, 고치, 생사, 소가죽, 비료 등이었고 주요 수입은 쌀, 소맥분, 설탕, 주류, 연초, 직물류, 종이, 도자기, 기계 부속품 등이었다. 이들 각 항목에 대해서는 1921, 1922년도 통계 및 증감 수치 그리고 1912년부터 1922년 도내 각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 잠업 장려 계획

경상북도가 잠업 장려를 위해 1922년부터 19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관한 글로 양잠 호수, 뽕밭, 양잠 고치 생산 현황 및 증가 추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도평의회(道評議會) 개최 시기**

이 글은 경상북도 도평의회가 19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도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 **주임(秦任) 대우 네 명의 면장**

조선의 지방관 관제를 개정하여 기원절에 맞추어 발표된 46곳의 주임 대우 면장 가운데 경북의 인물들에 대해 다룬 글이다. 김천면장에 임명된 군인 출신 일본인을 비롯하여 조선인 상주면장, 옥포면장, 현풍면장의 이력 및 면장이라는 제도, 임명된 전국의 주임 대우 면장의 현황을 다루고 있다.

## **닥나무 증식 계획**

경북의 제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닥나무 증식에 관한 글로 장려 계획, 실행 방법, 닥나무 묘포 설치 비용 및 1923년도 춘기 지역별 닥나무 묘포 설치 계획에 관한 설명과 표를 보여주고 있다.

## **잠업 기술원 협의회(打畝會)**

1921년 12월 도청 구 의사당에서 열린 잠업 기술원 협의회는 잠업 장려 계획의 첫 해를 맞아 각종 시설 및 지도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내무부장은 묘목 생산, 식재 장려, 뽕밭 관리, 잠종 취급, 기구 설비, 공동 판매, 복제 잠종 단속, 학교 교육, 지역 유력자 참여 등 20개 항목을 주의사항으로 제시하며 철저한 실행

과 보고를 요구하였다.

## 두 면의 징수 실적

1920년대 쌀값 폭락과 금융 경색으로 경산군의 납세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남산면은 면장과 직원들의 협력으로 3년간 단 한 명의 체납자도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완납해 모범적 성과를 거두었다. 경산면은 1921년 이후 면장 주도의 개혁과 적극적 독려를 통해 체납자를 크게 줄이며 성과를 올렸다.

## 청송군 개일동(開日洞) 진흥회

1921년 청송군 현동면 개일동에 설립된 ‘개일동진흥회’는 면장 남석한의 주도로 지역 유력자들의 협의와 기부를 통해 만들어진 공공 기관이다. 풍기 개선, 교육, 산업 진흥, 납세 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회원의 모범적 행동은 표창하고 규약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 용기 있는 형사

1921년 12월, 경북 왜관경찰서 순사 황의원은 새벽 정찰 중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고 연행하려다 범인과 격투 끝에 얼굴에 중상을 입었다. 황의원은 과묵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평소 범죄 검거의 의지를 보여왔고 이번 사건으로 총독부 경찰국장으로부터 위문금을 받았다.

## 조선어 시험문제

이 글은 일제강점기 조선어 장려갑종 시험문제 예시로, 조선어

와 일본어 간 번역 능력을 평가한 것이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신문기사체, 청원서체, 공문체, 시문체 등 특정 문체를 살려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 **군웅할거의 시대(하)**

전호에 이어 규슈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전국시대 무사들의 싸움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혼란한 전국시대,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혼탁한 다툼 속에서 도구로 이용된 한 여성의 삶이 어떻게 갈무리되는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다.

[해제2]

## 잡지 『경북』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보통학교의 '경주' 역사교육과 그 목적

윤경애

### 1. 보통학교에서의 경주 역사교육

『경북』 1923년 3월호(7권)와 1923년 4월호(8권)에는 당시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에서 경주에 대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재를 중심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923년 현재 경주에 대한 항목은 보통학교용 『국어독본』 4권에 두 곳, 『조선어 및 한문 독본』 5권에 일곱 곳, 『조선어 및 한문 독본』 6권에 한 곳이 실리는 등 보통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히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본문에 실린 신라 시조 항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始祖姓朴氏，諱赫居世，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四月丙辰(一曰正月十五日)即位，號居西干，時年十三，國號徐那伐，先是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爲六村一曰闕川楊山村，二曰突山高墟村，三曰觜山珍支村，(或云干珍村)，四曰茂山大樹村，五曰金山加利村，六曰明活山高耶村，是爲辰韓六部

본문에 따르면 윗글이 『조선어 및 한문 독본』 5권 제16과에

실려있다고 한다. 이 글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시조의 성은 박(朴)이고, 이름은 혁거세(赫居世)이다. 전한 효선제(孝宣帝) 오봉(五鳳) 원년 갑자년 4월 병진일(丙辰日)(일설에는 정월 15일이라고도 한다)에 즉위하여 호칭을 거서간(居西干)이라고 하니, 이때 나이가 13세였다. 나라 이름은 서나벌(徐那伐)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朝鮮)의 유민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살면서 6촌(六村)을 이루고 있었는데, 첫째는 알천(闕川) 양산촌(楊山村), 둘째는 돌산(突山) 고허촌(高墟村), 셋째는 취산(觜山) 진지촌(珍支村)(혹은 간진촌(干珍村)이라고도 한다.), 넷째는 무산(茂山) 대수촌(大樹村), 다섯째는 금산(金山) 가리촌(加利村), 여섯째는 명활산(明活山) 고야촌(高耶村)으로, 이들이 바로 진한(辰韓)의 6부이다.

이 내용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시조 항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미 보통학교에서부터 삼국사기 원문을 역사교육에 사용한 것이다. ‘경주와 교재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글을 쓴 저자는 『경북』 1923년 3월호(7권)에 이어 1923년 4월호(8권)에서도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 이사금 항목이 『국어독본』 4권 제22과에 실려있음을 소개하며 삼국유사 제1권 탈해왕 항목과 제2권 가락국기(駕洛國記)까지 인용해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통학교에서 경주 역사를 수업할 때 참고할 유적지를 자세히 소개하며 수업 중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듯 교재에 소개된 삼국사기 항목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며 관련된 경주 유적지까지 상세히 소개한 저자는 당시 경주공립보통학교장이었던 오사카 긴타로(大阪金太郎)이다. 그

가 어떻게 이토록 신라 역사와 경주의 유물 유적에 정통할 수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를 초등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오사카 긴타로와 경주

오사카 긴타로는 1923년 당시 직함이 경주공립보통학교장이었으나 이전부터 경주고적보존회의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1921년 금관총 유물 수습에 적극 관여했다. 1932년에는 국립부여박물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장을 역임하고 1934년 경주분관으로 돌아와 1938년부터 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국립경주박물관의 전신)의 3대 관장으로 취임해 1945년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단지 경주 지역의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아니라 경주의 여러 유적 명칭과 위치를 특정함으로써 현재까지 한국 역사학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며 특히 ‘에밀레종’ 전설을 선덕대왕신종으로 특정한 것으로 유명하다.<sup>127)</sup>

주로 오사카 로쿠손(大坂六村)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는데, 1921년 『(신라의 고도)경주고적 안내((新羅舊都)慶州古蹟案内)』를 발간하고 1927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경주의 전설(慶州の傳説)』 芦田書店, 1927/田中東洋軒, 1932/桑田文堂, 1942)을 간행했다. 이 책에 실린 ‘봉덕사의 종(奉德寺の鐘)’이라는 글에서 에밀레종 전설을 소개하며 에밀레종을 봉덕사 종(선덕대왕신종)으로 특정한다. 에밀레종 이야기는 전설로서 영어나 일본어로 채록되기 이전에 구비문학으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것에 구체적

---

127) 김지영, 「식민지기 재조일본인 ‘아마추어 고고학자’들과 조선인 미술가들: 후원과 활용을 둘러싼 식민자의 생존 의식」, 『일본비평』 33, 2025, pp.291-292.

인 유물로서 형태를 주고 인물상과 서사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오사카의 이 책을 통해서이다.<sup>128)</sup>



<그림 1> '신라의 가면와(新羅の假面瓦)' (영남대학교 소장본)

또한 얼굴무늬 수막새 기와를 소개하고, 해방 이후 한국으로 반환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얼굴무늬 수막새는 1934년 6월 1일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조선』 제229호에 오사카로쿠손(大坂六村)이라는 필명으로 쓴 '신라의 가면와(新羅の假面瓦)'라는 글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다. 기와의 사진을 곁들인 이 글에서 “이 기와가 경주 야마구치(山口) 의원의 의사인 다나카 도시노부(田中敏信)가 구리하라(栗原) 골동품상에서 몇개

월 전에 구입한 유물”이라고 소개되었다. “출토지는 경주읍 사정리 흥륜사지(현재는 영묘사지로 수정)라 한다. 조사해보니 확실하다…가운데 면은 틀로 만들어낸 흔적이 없고 전부 손으로 눌러 만들었는데, 손가락 끝으로 세공한 것이 드러나 있다. 경주 출토의 신라 기와는 다종다양한 무늬가 수준급이라 자랑할 만하지만, 이런 가면와는 단 하나도 출토되지 않았다”면서 “이 와당의 출현은 신라 예술 연구상 귀중한 자료의 하나라 생각된다”고 극찬했다.<sup>129)</sup> 오사카는 소장자인 다나카의 허락을 얻어 이 기와를 소개했노라고 마무리지었다. 오사카가 이 글을 통해 얼굴무늬 수막새

128) 김효순, 「'에밀레종' 전설의 일본어 번역과 식민지시기 희곡의 정치성-함세덕의 희곡 「어밀레종」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36, 2016, pp.318-319.  
 129) 大阪六村, 1934.6, 「新羅の假面瓦」, 『朝鮮』 229號.(서울: 高麗書林, 1988 影印)

를 소개한 1934년 6월이면 부여에서 경주분관으로 복귀한 직후였다. 이렇게 소개된 얼굴무늬 수막새는 3개월 뒤인 1934년 9월 고고학자인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의 보고서 『신라 고와 연구(新羅古瓦の研究)』(京都帝国大学文学部考古学研究報告 第13冊, p.47)에도 도판과 설명문이 수록됐다. 그러나 소장자인 다나카가 1940년 귀국한 뒤 필리핀 전선에서 군의간으로 복구하면서 수막새의 존재는 잊혀지게 되었다. 당시 다나카 도시노부가 근무했던 야마구치 의원의 ‘취미실’을 촬영한 엽서에는 수막새 외에 다양한 신라 기와가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이 야마구치 의원이 당시 경주 도굴품들의 주요 고객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30)</sup>



<그림 2> 야마구치 의원  
취미실 엽서



<그림 3> 현재 화랑수련원으로 쓰이고  
있는 야마구치 의원 전경  
(구글지도 스트리트뷰 이미지)

130) 허형욱, 2015, 國立慶州博物館所藏人面文圓瓦當의 發見과 受贈 經緯, 신라문물연구 8, pp.19-20.

<그림 2>의 엽서는 다나카 도시노부 유족의 기증품으로 위 논문에 소개되어 있다.



〈그림 4〉 LG  
홈페이지의 CI 소개

그런데 1972년 2월 15일 당시 박일훈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일본 나라(奈良) 시장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자신이 1920년대 말경 재학했던 경주공립보통학교 시절의 스승 오사카 긴타로를 찾게 된다. 일제강점기 신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얼굴무늬 수막새에 대해 박일훈 관장이 묻자 오사카는 뜻밖에 당시 소장자였던 다나카의 소재를 알려준다. 박일훈 관장의 부탁으로 오사카는 96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소장자를 설득하는 노력 끝에 결국 얼굴무늬 수막새의 기증이 결정되고, 1972년 10월 14일 다나카 부부가 직접 경주를 방문해 기증식이 거행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과 곡절을 거쳐 얼굴무늬 수막새는 ‘신라의 미소’를 상징하는 국가 보물로 지정되었다.<sup>131)</sup>

이렇듯 얼굴무늬 수막새의 귀환에 오사카 긴타로의 공로가 크다는 점과 그가 신라 유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나카 도시노부와 같은 ‘도굴품’ 수집가의 유물 매매를 단순히 ‘취미’로 취급할 수 없는 것처럼, 오사카 긴타로와 같은 경주고적보존회 중심의 이른바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의 신라 유적·유물에 대한 ‘애호’는 개인적 관심의 범위를 넘는 것이었다.

131) 허형욱, 위 논문 참조.

### 3. 일본인 신라 왕

당시 경주에 정착한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경주관은 경주고적 보존회 설치와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1912년에 출간된 『조선총독부월보(朝鮮總督府月』 2권 제2호에 실린 「慶州의 古蹟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이 글에서 경주란 일본의 신공황후(神功皇后)가 정벌한 곳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정벌과 관계있는 곳이며, 일본에 인질로 와 있었던 신라왕자가 있었던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경주는 일본의 옛 식민지였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이라 정리되어 있다. 당시 대구에서 전기회사를 설립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를 수집했던 오구라 타케노스케의 전기에서도 조선문화재의 수집 명분과 당위성을 이와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sup>132)</sup>

오사카 긴타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신라 제4대 왕인 탈해 이사금(脫解尼師今)을 일본인으로 둔갑시킨다. 잡지 『경북』 1923년 4월호(8권)에서 보통학교 국어독본 4권 제22과 ‘알에서 태어난 왕’ 석탈해를 소개하며 삼국사기 기록을 직접 인용한다. 그가 인용한 삼국사기 신라본기 원본에는 분명 “脫解牟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多婆那國)에서 태어났다. 그 나라는 왜국(倭國)의 동북 1,000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오사카는 이 삼국사기 기록을 설명하며 “상고(上古)시대부터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은 여러 방면에서 입증되어 지금 새삼 논의할 여지가 없으나, 이 전설은 특히나 이를 유력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파나국(多婆那國)의 위치는 현재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교통이나 그 외 관계에서

---

132) 정인성, 2009, 일제강점기 ‘慶州古蹟保存會’와 모로가 히데오 (諸鹿央雄). 대구사학, 95, pp.10-12.

보아 규슈(九州) 지방이나 혹은 산인(山陰) 지방의 한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신라의 왕 석탈해를 일본인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자신이 교사와 교장으로 근무했던 경주공립 보통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오사카가 『경북』 8권에서 소개한 경주공립보통학교 2학년 김동환의 글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옛날, 일본의 어느 지역에 자식이 없는 수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 해님께 기도하거나 달님께 기도하며 “제발 건강한 자식을 하나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식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서 바다에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 알을 깨끗한 상자에 넣고 작은 소와 작은 말, 쌀과 보리, 곡옥과 검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그 상자에 함께 넣는 “너는 어디에 가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라고 말한 뒤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러자 그 상자는 점차 조선 해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상자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상자는 경주 나아리(羅兒里)로 흘러왔습니다...

왜국에서 동북쪽으로 1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떠내려온 신라의 씨족 설화가 1920년대 보통학교에서는 일본 출신 신라 왕 신화로 둔갑되어 교육되어진 것이다. 『경북』 1923년 3월호(7권)와 1923년 4월호(8권)에서 경주의 건국 설화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원본을 빌어 자세히 소개하고, 경주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해

박한 지식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그 설명의 방향과 목적이 결국 일본의 옛 식민지로서의 경주, 일본인 출신의 신라 왕으로 향하고 있음을 잡지 『경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제3]

## 일제강점기 경상북도 사과 산업의 기원과 발전

정찬휘(영남대학교 박사과정)

『경북』 1923년 3월호(7권)에 실린 「사과 해충 구제 방법 실적」은 일제강점기 경상북도에서 이루어진 사과 병해충 방제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이다. 저자인 오오가와라 구니사부로(大河原邦三郎)는 조선총독부 농무과 소속 기술관으로, 재배 기술과 방제법을 조사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문에서는 ‘경상북도에서의 사과 재배는 1906년 일본인 이주민들이 사과나무를 식재한 것이 시초였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점이 드러난다. 첫째, 1906년 이전에도 이미 경상북도에서 사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둘째, 일본인의 사과나무 식재는 1904년에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경북』 1923년 3월호(7권)에는 면충과 심식충의 발생 및 방제 실험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해충 문제가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해제는 경상북도 사과의 기원, 면충 발생과 「경북과물동업조합」의 성립, 경상북도 사과의 전개 과정을 차례대로 살피고자 한다.

잡지 『경북』은 여러 차례 경상북도를 사과 재배의 적지로 소개하며 경상북도의 사과가 조선 내에서 주요 원예작물로 자리잡았음을 강조했다.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사과는 국내 유통을 넘어 만주, 일본, 대만, 남양 지역에까지 수출되었으며, 품질 면에서도 일본 아오모리산 사과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

1922년 창간호(1권)에서는 1922년 도쿄 우에노 공원에서 열린 ‘평화기념 도쿄박람회’에서 조선 특산물이 출품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 대표 사례로 경북 칠곡의 사과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경북』 1922년 11월호(3권)에서는 출품한 여러 지역 가운데 경상북도가 특히 우수한 사과 산지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 경상북도 사과의 기원

조선시대에도 이미 ‘능금(林檎)’이 재배되었으며 최초의 기록은 고려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계림유사(鷄林類事)』(1103년)와 『고려도경(高麗圖經)』(1123년)에 능금 관련 기재가 확인된다.<sup>133)</sup> 또한 『승정원일기』 등 17세기 기록에도 능금의 존재가 나타난다. 다만 당시의 능금은 과실의 크기와 당도가 낮아 본격적인 산업작물로 발전하지 못하고, 주로 관상용 또는 제한된 식용으로 소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기후와 토질은 과수 재배에 적합했으며, 특히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은 과수 재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대구 인근은 서리 피해가 적고 성숙기가 약 열흘 정도 빨라 다른 지역보다 품질과 재배 시기에서 우위를 보였다. 이러한 조건은 조선 농업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sup>134)</sup>

19세기 말 개량종 사과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명칭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했다. 중국에서는 『神農本草經集注』(502-536)에 ‘임금(林檎)’과 ‘내(奈)’ 등 능금 계통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sup>135)</sup> 이후 서양종 능금이 도입되었을 때 그

133)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경북능금 백년사”, 대구: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1997): 3.

134) 朝鮮民報社編輯局, “慶北産業誌”. 大邱: 朝鮮民報社 (1929): 183.

것을 구별하기 위해 「頻果」라고 칭했다.<sup>136)</sup> 18~19세기 농서에서는 ‘頻果’가 ‘林檎’보다 큰 서양 사과를 의미하였으며, 서양종이 점차 확산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자 간단히 ‘苹果’라는 표기가 표준으로 정착하였다.<sup>137)</sup> 이와 함께 작은 종류의 임금을 ‘沙果’라 부르는 속칭도 있었는데, 이는 『본초품휘정요(本草品彙精要, 1505)』와 『식물명실도고(植物名實圖考, 1848)』 등에 보인다.<sup>138)</sup> 이러한 ‘사과(沙果)’라는 어형은 17세기 후반 중국에 파견된 조선 사신들에 의해 조선에 전래되었다.<sup>139)</sup>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林檎’와 더불어 ‘苹果’라는 표기가 쓰였다.<sup>140)</sup> 1910~1920년대 농업 연구 기관의 기록을 보면 ‘苹果部’, ‘苹果試驗場’과 같은 명칭이 확인된다. 따라서 『경북』 1923년 3월호(7권) 원문에 나타나는 ‘苹果’는 곧 사과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과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양 선교사들과 일본인 농업 이민자들을 통해 새로운 품종이 전해지면서 이전까지 재배되던 전통적 능금과는 다른 과수 재배가 시작되었다. 1898년~1899년 대구 최초의 선교 거점이었던 구제일교회 부지인 애덤스 목사 자택에 최초의 서양 사과가 정월수로 심겨졌다. 그리고 1900년~1901년 현재의 동산병원으로 선교기지를 옮기고 애덤스 목사와 존슨 의사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로 묘목을 수입

135) 이호철, “조선후기 능금생산의 발전”, 경제사학 24 (1998): 35.

136) 석태문, 이호철. "경북 능금산업의 발달과정: 기술사적 관점." 농촌사회 11.1 (2001): 4.

137)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경북능금 백년사”, 대구: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1997): 15.

138) 이호철, “조선후기 능금생산의 발전”, 경제사학 24 (1998): 42.

139)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경북능금 백년사”, 대구: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1997): 14.

140)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경북능금 백년사”, 대구: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1997): 15.

한 후 ‘동산’에 대규모의 상업적 사과원을 개설하였던 것이다.<sup>141)</sup>

그리고 이후 1904년 일본인 가게야마 히데키(影山秀樹)가 일본 농상무성 오키츠(興津) 원예시험장에서 들여온 묘목을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면(현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시험 재배하였다. 이 시도가 본격적인 과수원 경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42)</sup> 그는 1905년, 가게야마 히데키는 본격적으로 과수원을 조성하였으며, 홍괴(紅魁), 유옥(柳玉), 축(祝) 등 신품종을 심어 과수원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08년에는 각 품종이 40~50개의 열매를 맺었고, 1909년에는 유옥 품종이 260개의 열매를 맺으며 대구 근교가 사과 재배에 적합한 지역임을 입증하였다.<sup>143)</sup> 아래 사진은 당시 가게야마 과수원의 모습이다.<sup>144)</sup>

따라서 경북 사과 재배의 기원을 1906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98년 선교사들의 개량종 도입이 첫 출발점이었다면, 1904년 가게야마의 시도는 상업적 과수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경북 사과 산업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근대 사과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갔다.

---

141) 경상북도과물동업조합의 『조합사업성적서』(1930)는 1892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아치발트 그레이 플레처(A. G. Fletcher)가 대구 남산동 105번지 자택 정원에 사과 묘목을 심은 일을 한국에서 최초의 개량종 사과 재배 시도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석태문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자료에 기록된 한국 이름은 ‘안목사’인데, 실제로 플레처는 목사가 아니라 의사였으며, 1909년까지 안동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1910년에 대구로 전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1897년 11월 1일부터 대구 지역 선교 업무를 담당한 이는 제임스 애덤스 목사였고, 그의 한국 이름이 ‘안의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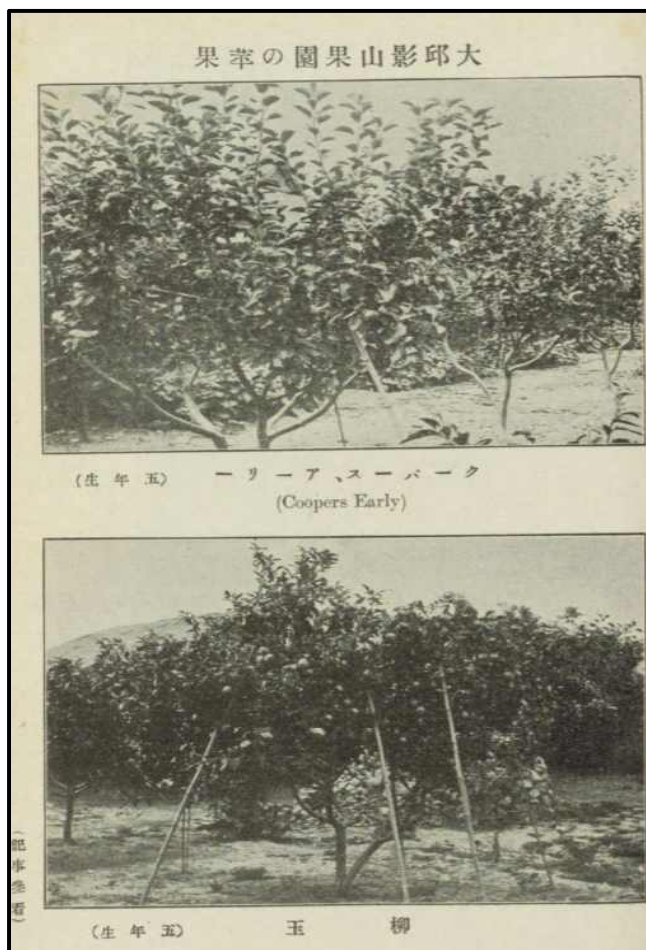
142) 靑戶藤吉, “韓國中央農會報3(8)” 京城: 韓國中央農會, (1909): 14 ; 小早川九郎, “朝鮮農業發達史”(1960): 245.

143) 靑戶藤吉, “韓國中央農會報3(8)” 京城: 韓國中央農會, (1909): 14.

144) 가게야마 히데키는 1904년에 대구로 이주하여 1907년에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과수원은 그 이후에도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10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靑戶藤吉, “韓國中央農會報3(8)” 京城: 韓國中央農會, (1909): 14)



<그림 1> 대구 가게야마 과원의 歐洲 포도



<그림 2> 대구 가게야마 과원의 사과

## 경상북도 과물동업조합(慶北果物同業組合)의 설립

경상북도는 낙동강 유역의 충적토,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라는 자연조건 덕분에 사과 재배에 적합한 지역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경북에서 생산된 사과는 품질과 맛에서 일본산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식민지 초기 경북의 과수원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아 품종과 재배법이 제각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시험장을 설치하고, 지역 기후와 토양에 맞는 우량품종을 보급했다. 재배자들에게는 묘목 선택, 식재 방법, 전정 등 관리 기술을 지도했고, 수출을 위해 저장법도 강조했다. 이러한 기반 마련이 있었기에 경북은 곧 사과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곧 병해충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1911년 칠곡 왜관에서 면충(綿蟲)이 처음 발견되었고, 1919년부터는 심식충(心喰蟲), 갈반병, 탄저병 등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이때 지역 과수업자들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발적으로 조합을 조직해 나섰다.<sup>145)</sup> 1912년 5월 24일 칠곡군에 「왜관 과수조합(倭館果樹組合)」이 최초로 창립되었다. 당시 대구와 달성군 지역에서도 과수재배가 이미 상당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재배기술을 개량하고 판로를 확장하려는 요구가 특히 강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같은 해 6월 15일 「대구과수재배조합(大邱果樹栽培組合)」이 설립되었고 1914년 8월에는 「대구과수조합(大邱果樹組合)」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당시 조선의 생산품은 규모가 작고 통일되지 않아 대량 주문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1915년

---

145)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경북능금 백년사”, 대구: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1997): 73.

10월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을 바탕으로 소규모 조합들이 통합되었고, 그 결과 1917년 10월 [경상북도과물동업조합(慶北果物同業組合)]이 출범하게 되었다. 조합의 관할은 대구부·달성·칠곡·김천·청도·선산 등 1부 6군에서 시작하여 1937년에는 영천까지 확대되었다. 창립 당시 조합원은 140명으로, 주요 사업은 수출용 과실의 포장 검사, 판로 조사, 재배법 강습회와 품평회 개최 등 폭넓게 이루어졌다.<sup>146)</sup> 특히 조합은 병해충 방제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경북』 1923년 3월호(7권)에는 면충과 심식충 방제를 위해 포살, 봉지 씌우기, 청산가스 훈증, 석회보르도액 살포 등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21년 무렵에는 면충이 거의 퇴치되었고, 1923년에는 ‘과수원 정리 계획’이 수립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sup>147)</sup>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도 이어졌으며, 시비법·관수법 개선 같은 기술 보급도 함께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조합 활동은 기술 확산과 유통망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1918년에는 재배법 강습회가 열렸고 같은 해 판로 조사도 이루어졌다. 이어 1920년에는 과실 품평회가 개최되었으며, 1922년부터는 견습생 양성이 추진되어 인력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힘썼다. 1945년 이후 일 본인 소유 과수원의 귀속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으나, 1947년 ‘과물동업조합 주식회사’를 설립해 재정을 보강했고 1957년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 ‘경북사과협동조합’으로 개편되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

146)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경북능금 백년사”, 대구: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1997): 81.

147)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경북능금 백년사”, 대구: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1997): 88.

## 경상북도 사과 산업의 위상

1920년대 경상북도의 사과 재배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에 따르면 1921년 경상북도의 사과나무 수는 137,778그루였으나 1930년에는 95,594그루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 수는 줄어드는 것 같으나 수확량은 오히려 점차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사과나무를 기존 과수원을 정리하면서 시범 구역을 설치하는 등, 생산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상북도 사과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부터는 우량 품종 도입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중생종인 축(祝), 옥(旭), 홍옥(紅玉) 등이 가장 우수한 재배 성적을 보였다.<sup>148)</sup>

<표 1> 1921년~1930년 경상북도 사과 현황

연도	나무수(본)	수확고(관)
1921년	137,778	244,521
1922년	148,855	295,271
1923년	145,405	295,545
1924년	140,888	366,025
1925년	136,063	270,513
1926년	115,759	403,529
1927년	115,948	386,182
1928년	109,688	551,183
1929년	92,836	566,940
1930년	95,594	414,336

출처: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경북능금 백년사”, 대구: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1997): 86

148)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경북능금 백년사”, 대구: 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1997): 83.

그리고 1931년 각 도별 사과 재배 현황을 <표 2>를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과나무 수는 황해도 546,541그루, 평안남도 375,601그루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함경북도 196,221그루, 경기도 112,777그루, 경상북도 97,235그루 순이다. 경상북도는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중간 수준에 속한다. 황해도, 평안남도, 함경북도와 같이 대규모 재배지를 가진 북부 지역에 비해서는 적지만 충청도나 전라도보다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수확량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경상북도는 752,898관으로, 남한 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상북도가 나무 수 자체보다는 그루 당 수확량을 극대화하는 집약적 농업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생산액 역시 388,290원으로, 황해도, 평안남도, 함경북도와 같은 북부의 대규모 생산지보다는 다소 낮지만, 남한 지역 가운데서는 가장 높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상북도가 남한의 핵심 생산지였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상북도는 단순히 나무 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보다는 나무 수는 비교적 적지만 수확고와 생산액을 크게 늘리는 질적 발전을 추구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1931년 도별 사과 우량품종의 수확고와 생산액**

연도	나무수(본)	수확고(관)	생산액(원)
경기도	112,777	410,680	159,757
충청북도	22,485	110,691	56,039
충청남도	19,102	94,403	41,077
전라북도	16,900	94,696	57,076
전라남도	20,597	141,088	73,366
경상북도	97,235	752,898	388,290
경상남도	21,751	175,942	117,751
황해도	546,541	3,531,539	857,647

평안남도	375,601	3,557,175	899,129
평안북도	68,365	437,375	232,760
강원도	69,640	167,848	80,043
함경북도	196,221	1,343,275	415,246
함경남도	149,507	272,528	132,485

출처: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 (1931): pp.104~105.

이러한 통계 자료뿐 아니라, 1939년 출판된 잡지 『관광조선(觀光朝鮮)』에서도 대구 사과에 대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朝鮮』에 수록된 대구 여행 기사(제2권 제3호, 제3권 제2호)에 따르면, 대구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조선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로 평가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만큼 대구 사과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는 사과나무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우량 품종 도입과 집약적 재배를 통해 수확고와 생산액을 크게 늘리며 남한 최고 수준의 사과 생산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나아가 경북 사과 산업은 조합 결성을 통한 조직화와 병해충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고, 이것이 지역의 자연적 이점과 결합되면서 근대적 농업 체계를 형성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 결과 경상북도가 “능금의 고장”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